

2015 대전 성인지 통계



인구 | 가족 | 소득과 소비 | 일·가정 양립 | 교육 | 경제활동 | 보건 및 복지 | 사회참여 및 문화 | 환경 및 안전

2015 대전 성인지 통계

대전발전연구원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Daejeon Woman and Family Policy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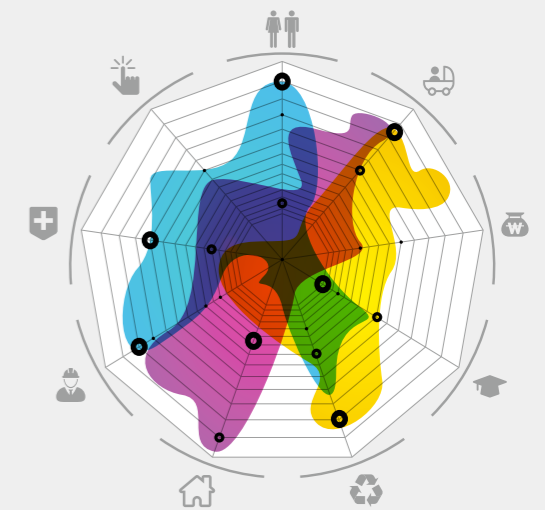


연구진

연구책임·**주혜진**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지표자문·**이선화** 충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15 대전 성인지 통계



이 책은 대전발전연구원이 2015년에 정책과제로 수행한
〈인포그래픽스를 활용한 대전 성인지 통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스 (Infographics)란?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그래픽(Graphic)의 합성어로 다량의 정보를 차트, 지도, 다이어그램, 로고,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혹은 지식의 시각적 표현을 말합니다.
인포그래픽은 정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정보 습득 시간을 줄여주며, 정보에 대한 기억 시간을 연장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인지 통계란?

성 인지적(性 認知的, Gender-Sensitive) 통계의 생산은 1995년 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 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인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지 통계란, 삶의 여러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지위, 조건 등을 보여주는 통계를 의미합니다.

지표 구성의 원칙

성에 따른 삶의 차이 제시

- 주요 변수별(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로 나타나는 여성과남성의 현황 파악
- 성에 따른 차별적인 상태를 통계로 비교함으로써 불평등한 상황 점검

성평등한 상태를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

- 이상적으로 성평등한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시
-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평가 근거 제공
- 성평등정책의 수립 근거 제공 및 정책의 점검과 평가 가능

자료의 추출 및 구성 방법

- 통계자료분석이나 통계표 구성 시 고려된 기본 변수는 성별
- 통계 및 지표의 기본체계는 「2014 대전여성가족통계」를 기반으로 하되,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새롭게 지표를 구성해 게재
- 최근자료를 중심으로 통계표를 게재하되, 해당연도의 자료가 없을 경우 가장 근접한 연도의 통계 수록

인구	인구구성	총 인구 및 세대 현황	성 및 자치구별 인구수, 자치구별 세대수 및 세대 당 인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성 및 연령별 기대여명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연도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 지수
		자치구별 인구이동현황	성 및 자치구별 총 전입 및 총 전출
		인구동태	출생자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연도,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연령별 출산율	어머니 연령별 출산율	
	자살자	성 및 자치구별 자살자수	
	연령별사망률	성 및 연령별사망률	

가족	가족형성 및관계	평균초혼연령	성 및 자치구별 평균초혼연령
		다문화가족 가구현황	성 및 다문화가족 수
		결혼이민자 국적	성 및 국적별 결혼이민자 수
		외국인 현황	성 및 자치구별 외국인 수
		혼인상태별 인구	성 및 혼인상태별 비율
		1인가구	성 및 자치구별 가구 수
		가족관계 만족도	성별 가족관계 만족 비율

소득과 소비	소득	소득만족도	성별 소득만족비율
		가구부채	성별 가구 부채 유무 및 이유 비율
		월평균 가구소득	성별 가구 소득 비율
	소비	소비생활만족도	성별 소비생활만족도 비율

일·가정양립	일·가정양립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성별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비율
		보육시설현황	설립주체 및 자치구별 시설 수
		보육대상아동	성 및 연령별 보육대상 아동 수
		보육료지원현황	성 및 연령별 보육료지원 비율
		저출산 해소를 위한 요구사항	성별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요구사항 비율
		가사분담실태	성별 가사분담실태 비율
		시간활용	성별 행동분류별 평균시간
		맞벌이 가구	2013, 2014 유배우 맞벌이 비율

교육	교육	졸업 후 상황	졸업 후 상황 및 성별 진학자 수
		학생 및 교원현황	성별 학생, 교원 비율
		학업중단 중학생현황	성별 학업중단 학생 수
		학업중단 고등학생현황	성별 학업중단 학생 수
		거주 지역 교육만족도	성별 거주 지역 교육만족도 비율

경제활동	경제활동	경제활동 참가율	성 및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연령계층별 취업자	성 및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교육정도별 취업자	성 및 교육정도별 취업자 수
		산업별취업자	성 및 산업별 취업자 수
		직업별취업자	성 및 직업별 취업자 수
		종사상지위별취업자	성 및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비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인구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실업률	성 및 연도별 실업률
		경력단절여성 규모	2013, 2014 경력단절여성규모 비율

보건 및 복지	보건	흡연율 및 음주율	성 및 연도별 흡연율, 음주율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	성별 이용 의료시설 비율
		암 검진 수검률	성별 암 검진 수검율
		평균운동시간	성별 평균 운동 일 수, 시간
		비만율	성 및 연도별 비만율
		스트레스 인지율	성 및 연도별 스트레스 인지율
		복지	국민연금가입자
	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		성별 생활비 마련방법 비율
	노인의 고충문제		성별 고충문제 비율
	장애인등록현황		성 및 자치구별 장애인등록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성 및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한부모 가족 현황		자치구별 한부모 가족 수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대상 비율

사회참여 및 문화	사회참여문화	문화 활동 참여율	성별 문화 활동 참여율
		지방선거투표율	성 및 연령별 투표율
		대전시 여성 공무원	급별 여성공무원 수
		계층적 귀속의식	성별 계층적 귀속의식 비율
		사회적 소통	성별 사회적 소통 비율
		사회적 포용(외국인)	성별 및 외국인이민자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비율
		연대감(대전 시민 자부심)	성별 대전 시민 자부심 비율
		사회적관계망	성별 사회적 관계망 비율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경험	성별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평균 점수
		SNS이용율	성별 SNS 이용율
		여가활동	성별 여가활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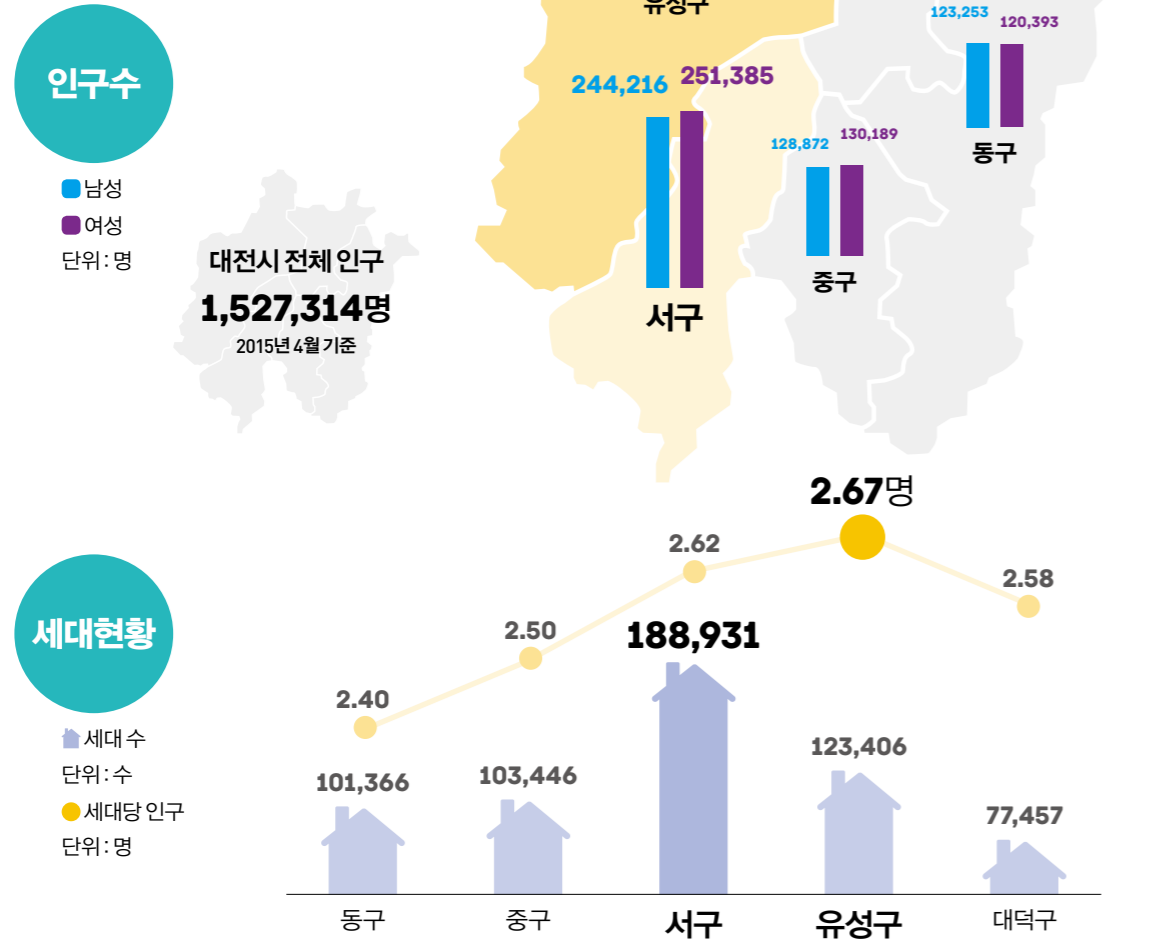
환경 및 안전	환경	환경오염방지노력	성별 환경오염방지노력 비율	
		대기환경체감도	성별 대기환경체감도 비율	
		생활환경만족도	성별 생활환경만족도 비율	
		안전	이용교통 수단	성별 이용교통수단 비율
			교통사고 발생율	성별 교통사고 발생율
	성폭력피해자 신고 지원현황		성폭력 피해 신고, 지원 건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평균 점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성별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비율	
	신종전염병에 대한 안전 인식	성별 신종전염병에 대한 안전 인식 비율		

1. 인구



1-1 인구구성	총 인구 및 세대 현황	성 및 자치구별 인구수, 자치구별 세대 수 및 세대 당 인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성 및 연령별 기대여명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연도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 지수
	자치구별 인구가동현황	성 및 자치구별 총 전입 및 총 전출
1-2 인구동태	출생자	성 및 연도별 출생자수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연도,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연령별 출산율	어머니 연령별 출산율
	자살자	성 및 자치구별 자살자수
	연령별사망률	성 및 연령별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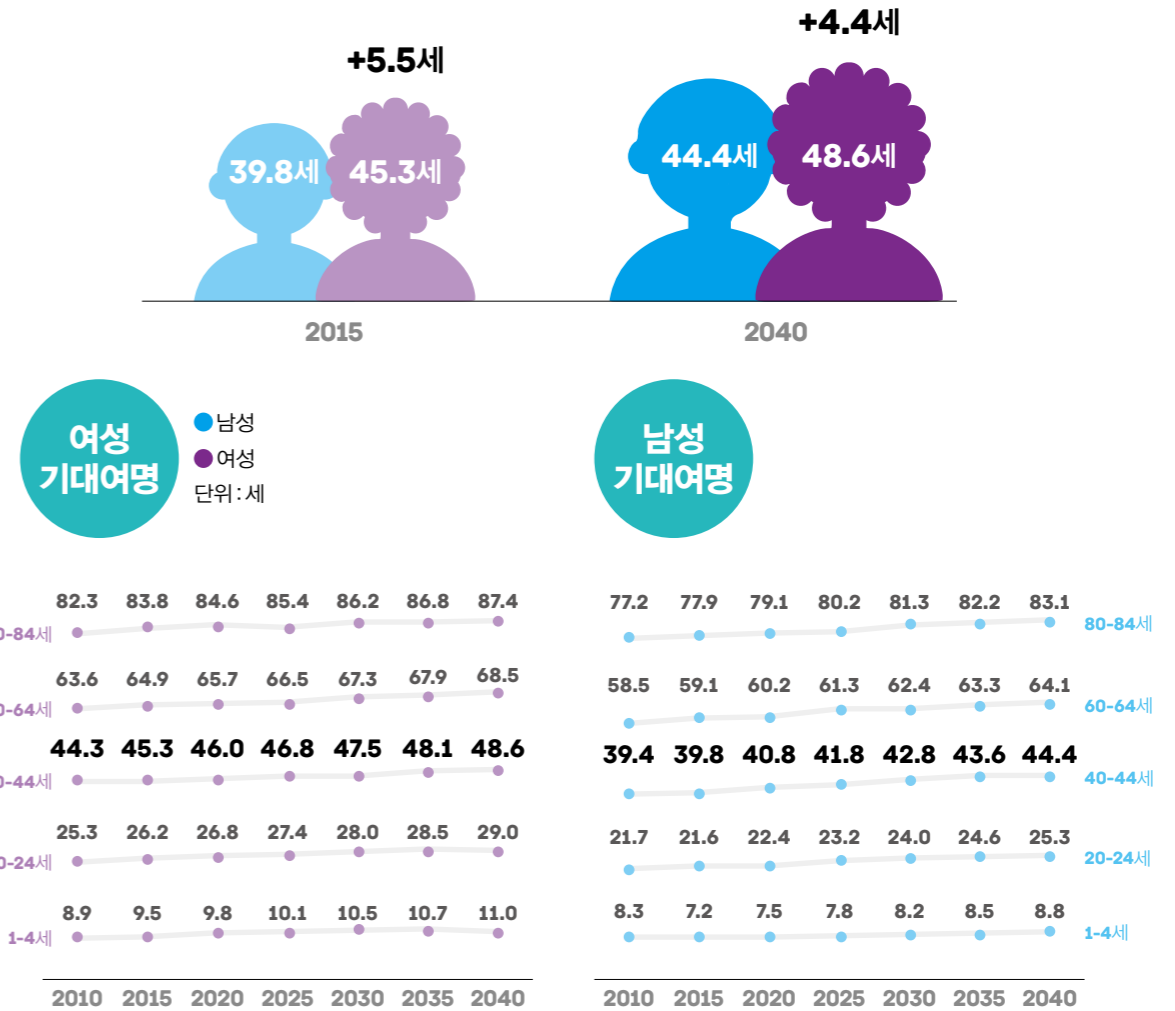
총인구는 서구가,
세대별 인구는
유성구가 제일 많아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5)

대전시 인구는 2015년 4월 기준 1,527,314명이며, 여성인구는 763,259명으로 전체 인구의 49.97%를 차지한다. 총 인구와 세대 수는 서구가 가장 많고, 가장 인구가 적은 구는 대덕구이다. 서구와 중구를 제외한 대덕구, 유성구, 동구에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약간 더 많다. 세대 당 인구는 동구가 2.4명으로 가장 적고, 유성구가 2.67명으로 가장 많다. 세대 당 평균 인구는 2.55명이다.

2040년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보다 4살 더 높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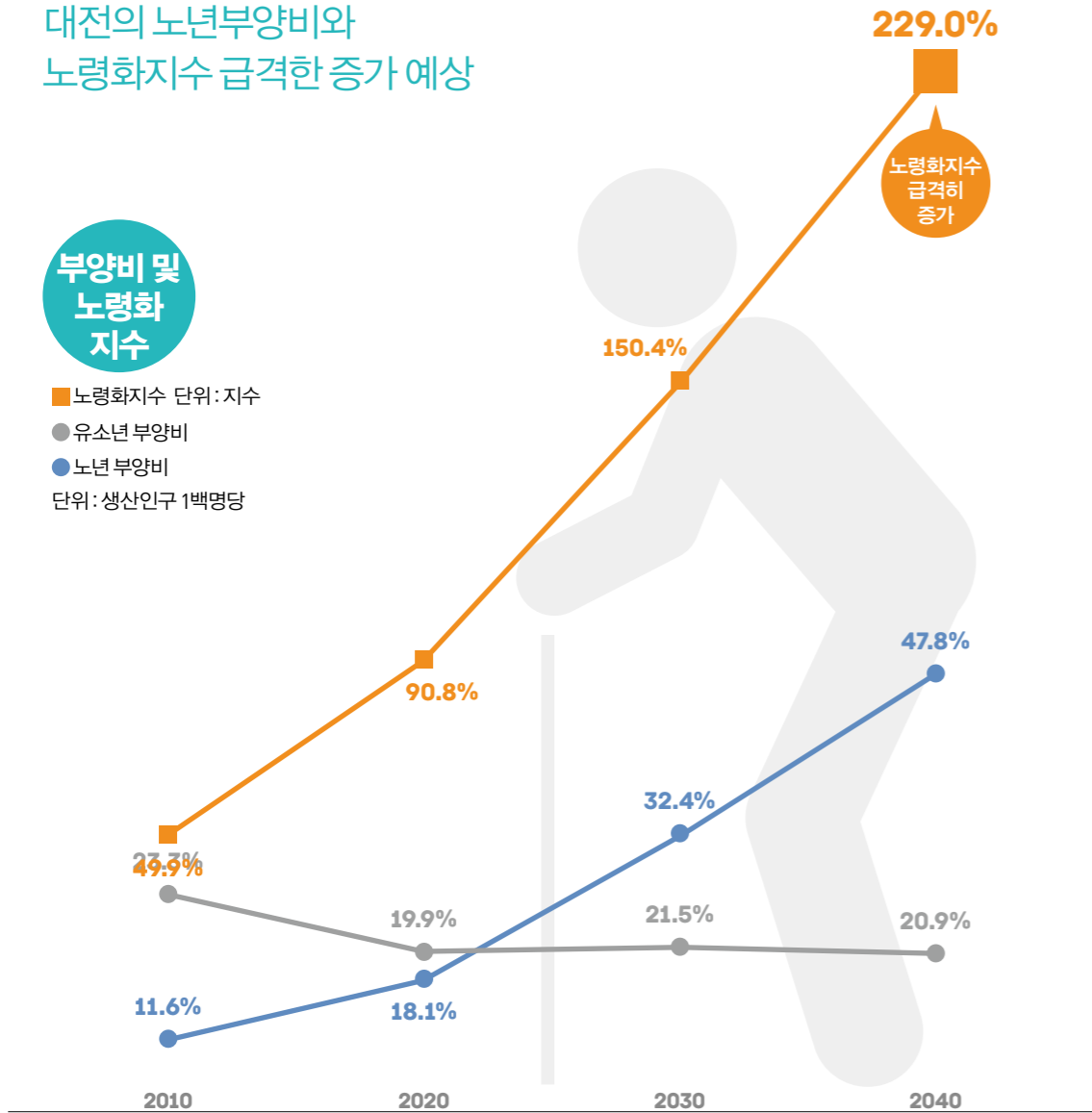
각 연령대에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는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다. 현재 40-44세의 경우 2015년 기대여명은 여성 45.3세, 남성 39.8세로 여성이 5.5세 더 높고, 2040년에는 여성 48.6세, 남성 44.4세로 여성이 4.4세 더 높다.

+ 기대여명: 특정연령 X 세의 생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대전의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 급격한 증가 예상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 노령화지수 단위: 지수
- 유소년 부양비
- 노년 부양비
- 단위: 생산인구 1백명당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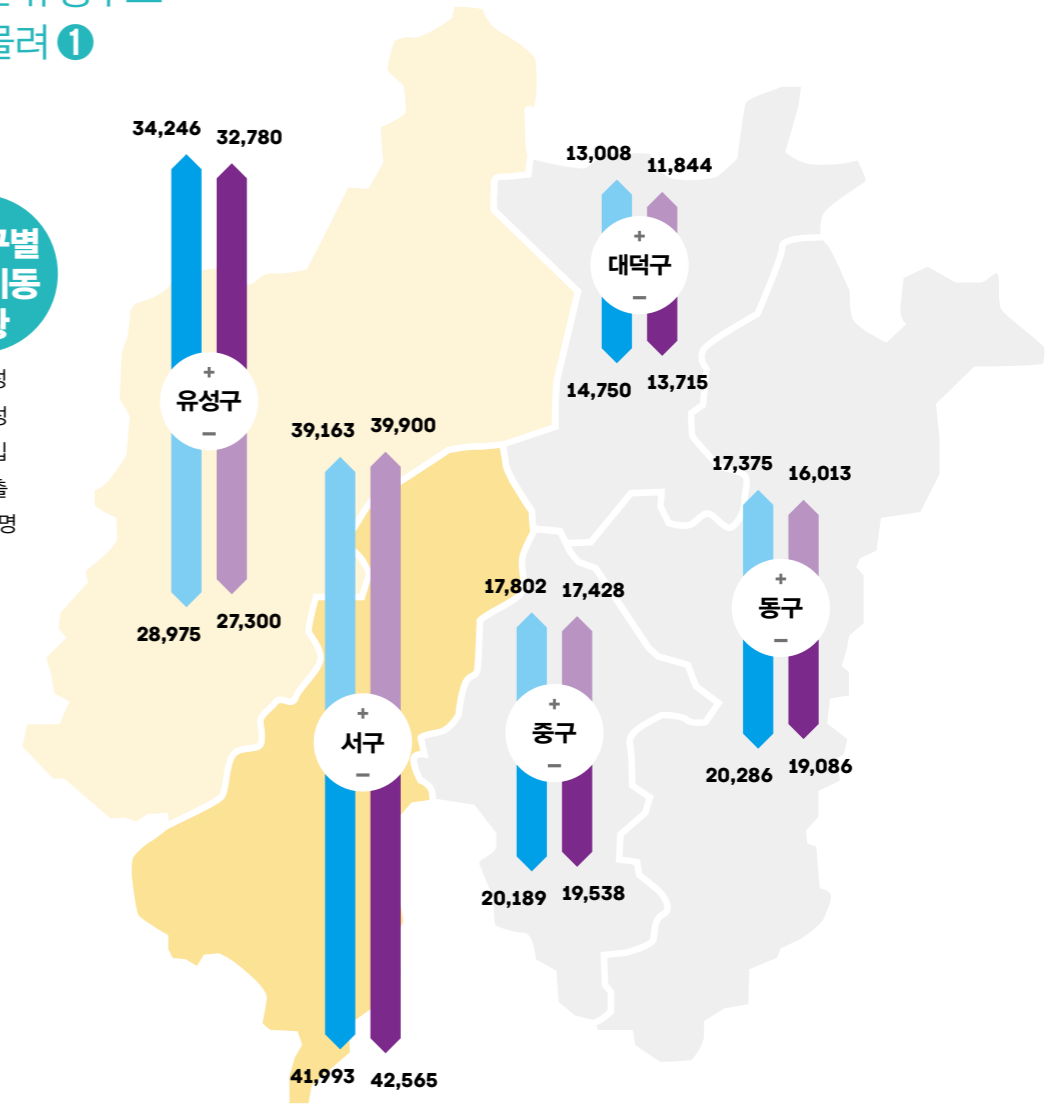
대전의 노년부양비는 2010년 11.6, 2020년 18.1, 2030년 32.4, 2040년 47.8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소년부양비는 2010년 23.3에서 2040년에는 20.9로 하향추세다. 유소년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2010년 49.9에서 2020년 90.8, 2030년 150.4, 2040년 229.0으로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 생산가능연령(15-64세) 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층 인구(0-14세, 65세이상 인구의 합)의 비율로 생산가능연령층 인구가 부담해야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 ◆ 노령화지수 : 연소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령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서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면 지수는 증가함

2014년 유성구로 인구 몰려 ①

자치구별 인구이동 현황

- 남성
- 여성
- ▲ 전입
- ▼ 전출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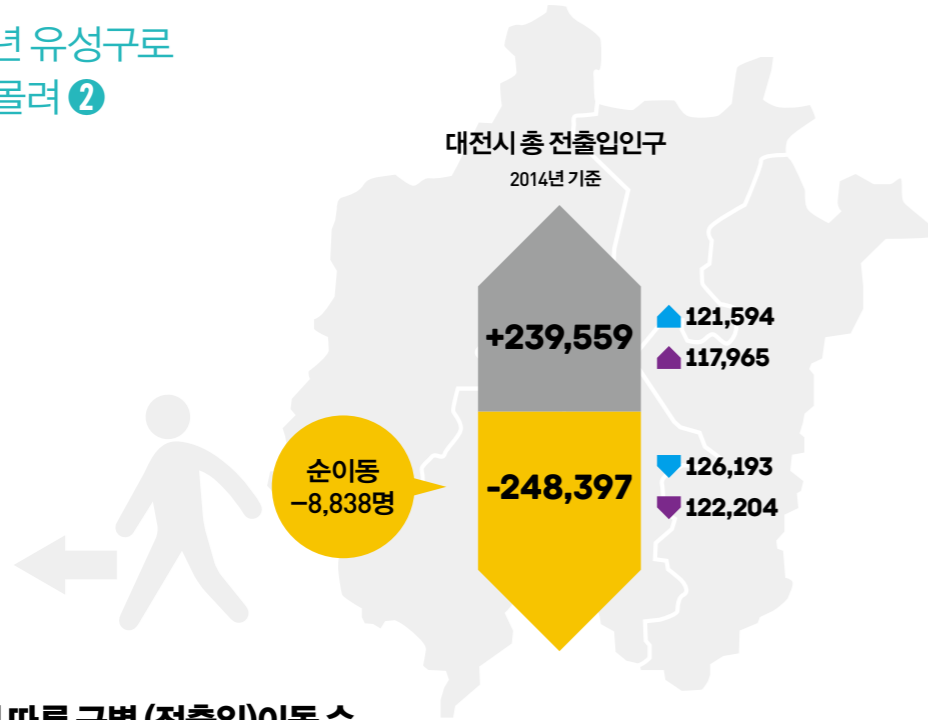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4)

2014년 대전시 총 전입인구는 239,559명, 전출인구는 248,397명으로 전출인구가 8,838명 더 많다. 성별 전입인구는 여성 117,965명, 남성 121,594명이며, 전출인구는 여성 122,204명, 남성 126,193명이다. 구별 총 전입은 서구가 79,063명으로 가장 많고, 총 전출도 84,558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별 순이동을 살펴보면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순으로 전출초과하여 인구유출이 많았고, 유성구만 전입초과 10,751명으로 인구유입이 가장 많다.

- ◆ 순이동=전입-전출

2014년 유성구로 인구 몰려 ②

- 남성
 - 여성
 - ▲ 전입
 - ▼ 전출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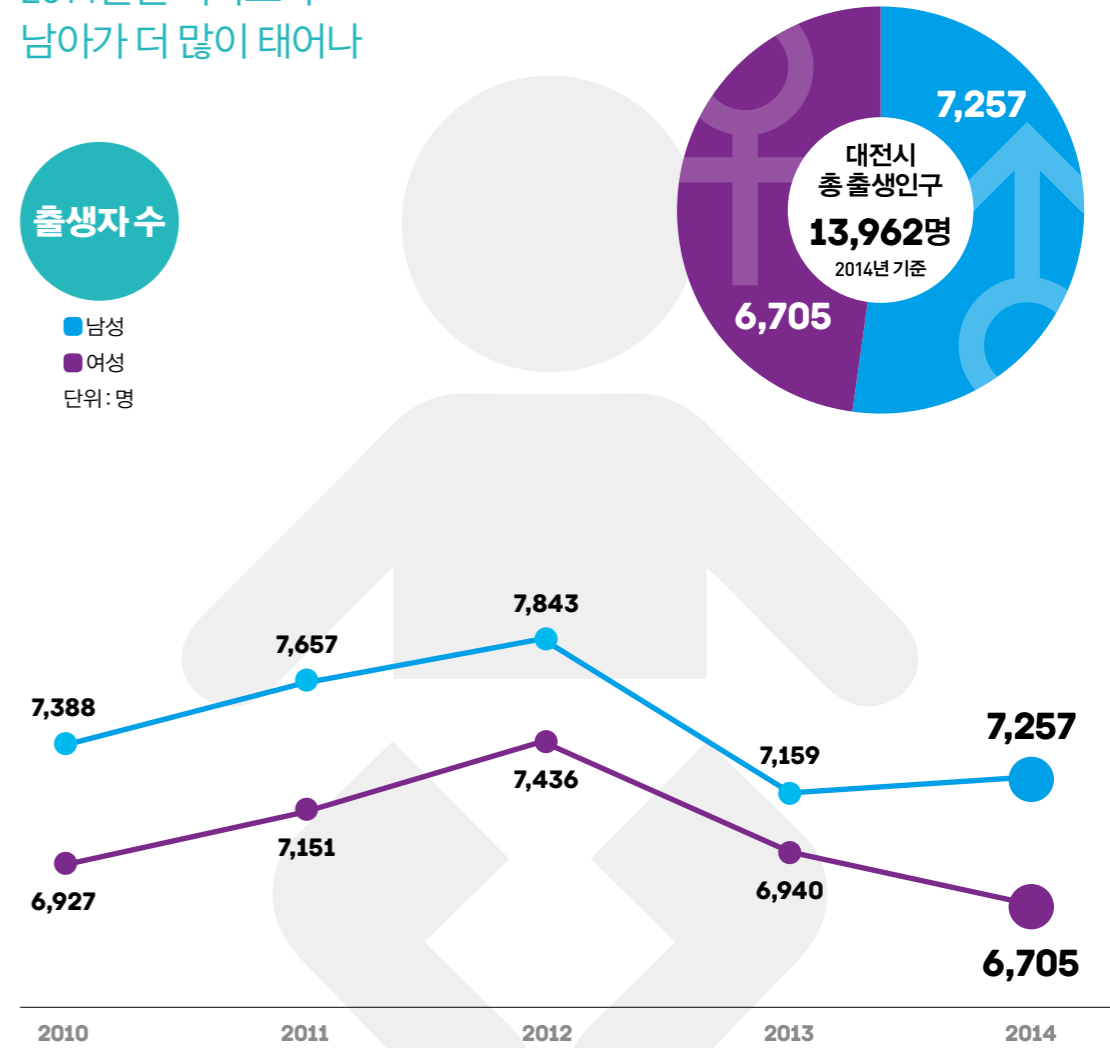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구별 (전출입)이동 수

행정구역 (시군구)별	성별	2014					
		총전입 (명)	총전출 (명)	순이동 (명)	시도 내 이동-시군구 내 (명)	시도 내 이동-시군구 간 전입 (명)	시도 내 이동-시군구 간 전출 (명)
대전광역시	계	239,559	248,397	- 8,838	73,415	83,546	83,546
	남자	121,594	126,193	- 4,599	36,510	42,142	42,142
	여자	117,965	122,204	- 4,239	36,905	41,404	41,404
동구	계	33,388	39,372	- 5,984	10,613	11,539	15,934
	남자	17,375	20,286	- 2,911	5,396	5,983	8,032
	여자	16,013	19,086	- 3,073	5,217	5,556	7,902
중구	계	35,230	39,727	- 4,497	11,012	13,712	16,592
	남자	17,802	20,189	- 2,387	5,466	6,923	8,335
	여자	17,428	19,538	- 2,110	5,546	6,789	8,257
서구	계	79,063	84,558	- 5,495	29,491	23,879	26,137
	남자	39,163	41,993	- 2,830	14,288	11,913	13,060
	여자	39,900	42,565	- 2,665	15,203	11,966	13,077
유성구	계	67,026	56,275	10,751	15,230	24,907	12,959
	남자	34,246	28,975	5,271	7,735	12,370	6,643
	여자	32,780	27,300	5,480	7,495	12,537	6,316
대덕구	계	24,852	28,465	- 3,613	7,069	9,509	11,924
	남자	13,008	14,750	- 1,742	3,625	4,953	6,072
	여자	11,844	13,715	- 1,871	3,444	4,556	5,852

2014년엔 여아보다 남아가 더 많이 태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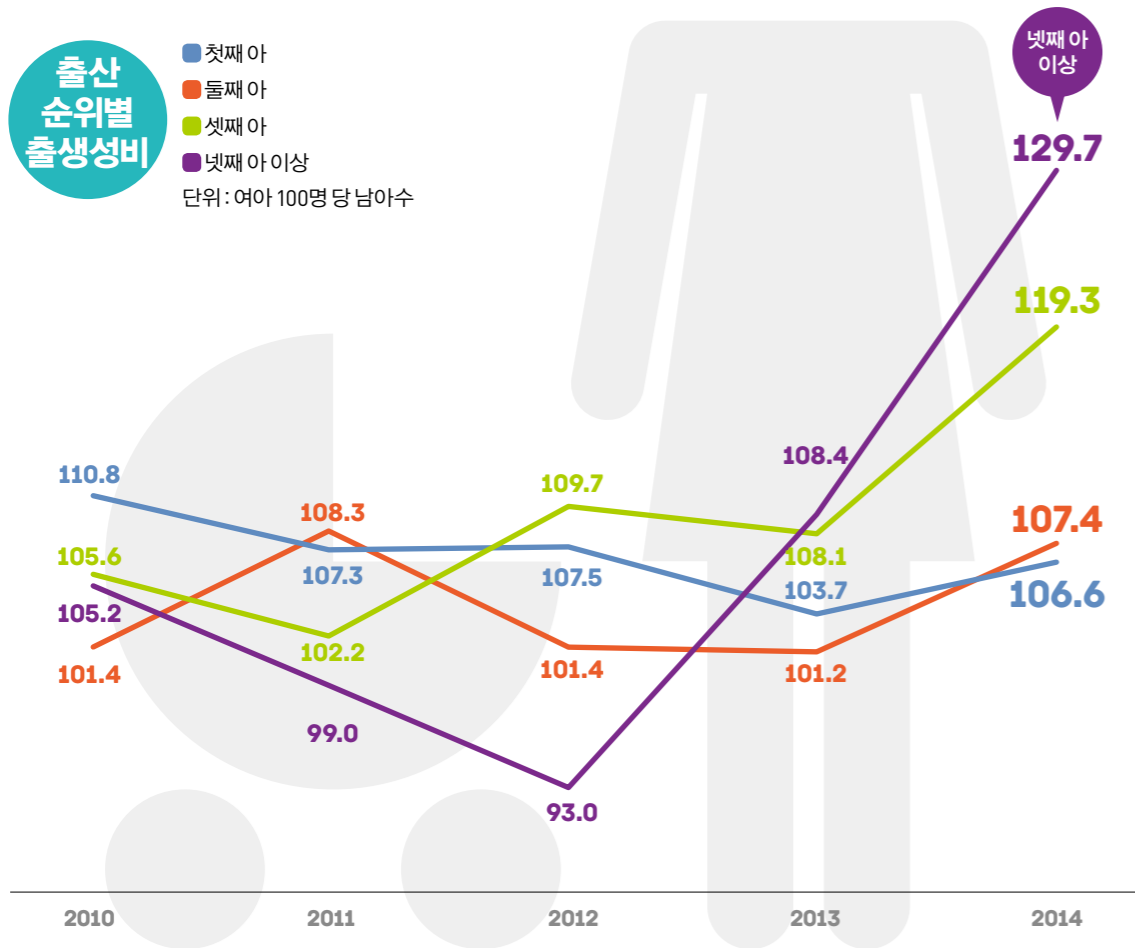
- 출생자수
 - 남성
 - 여성
- 단위: 명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4)

2014년 한해 대전시에서 출생한 인구는 총 13,962명으로 총 출생인구 중 여성인구는 6,705명(48%), 남성인구는 7,257명(52%)이다. 2013년에 비해 여성 출생인구는 235명 감소한 반면 남성 출생인구는 98명 증가했다.

셋째 아 출생성비는 감소, 넷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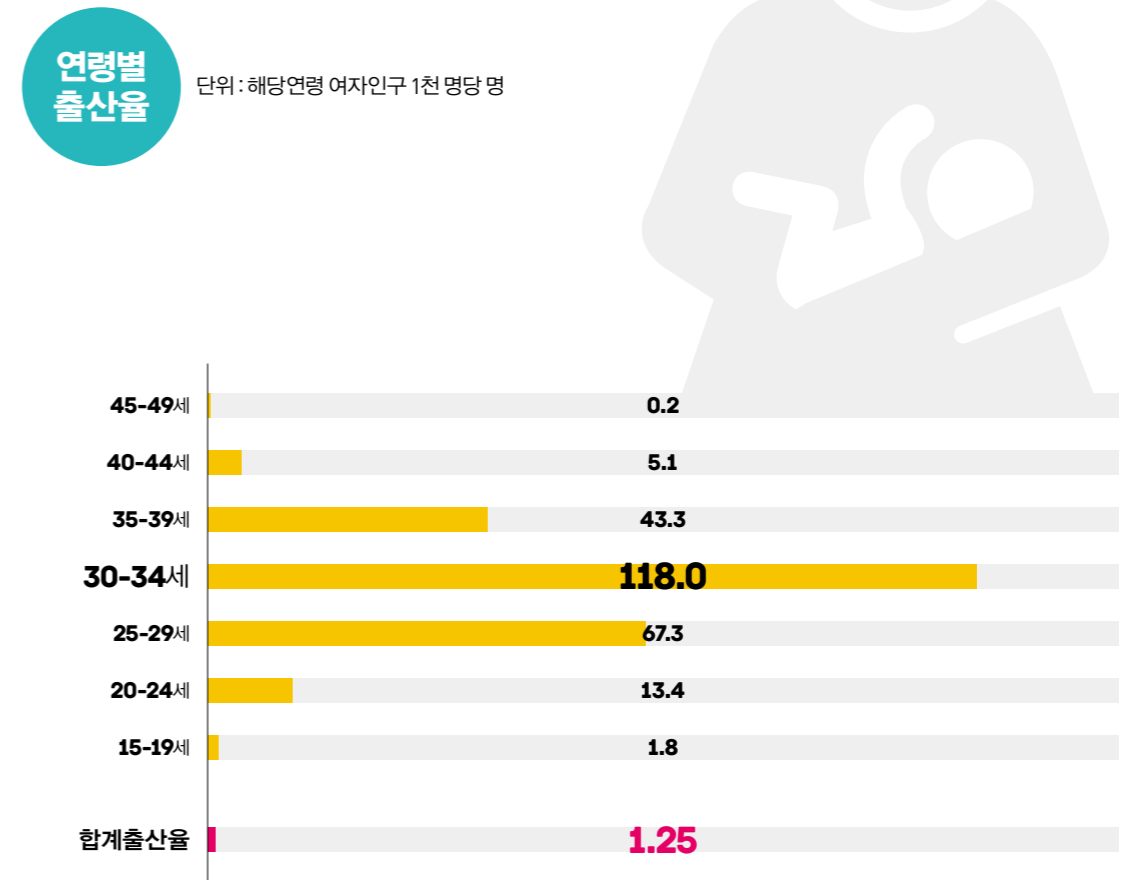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4)

2014년 출산순위별 출생성비는 첫째, 둘째 자녀가 각각 106.6, 107.4, 셋째 자녀 119.3, 넷째 아이 이상 129.7이다. 첫째, 둘째아는 정상성비구간(103-107)사이로 분포하고, 셋째아부터는 (비정상적으로) 남아가 훨씬 많이 태어남을 알 수 있다. 2013년에 비해 셋째아, 넷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 출생성비: 여 출생아 100명당 남 출생아수. 자연상태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5% 정도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103-107 정도가 자연스러운 비율.

어머니 연령별 출산율 30-34세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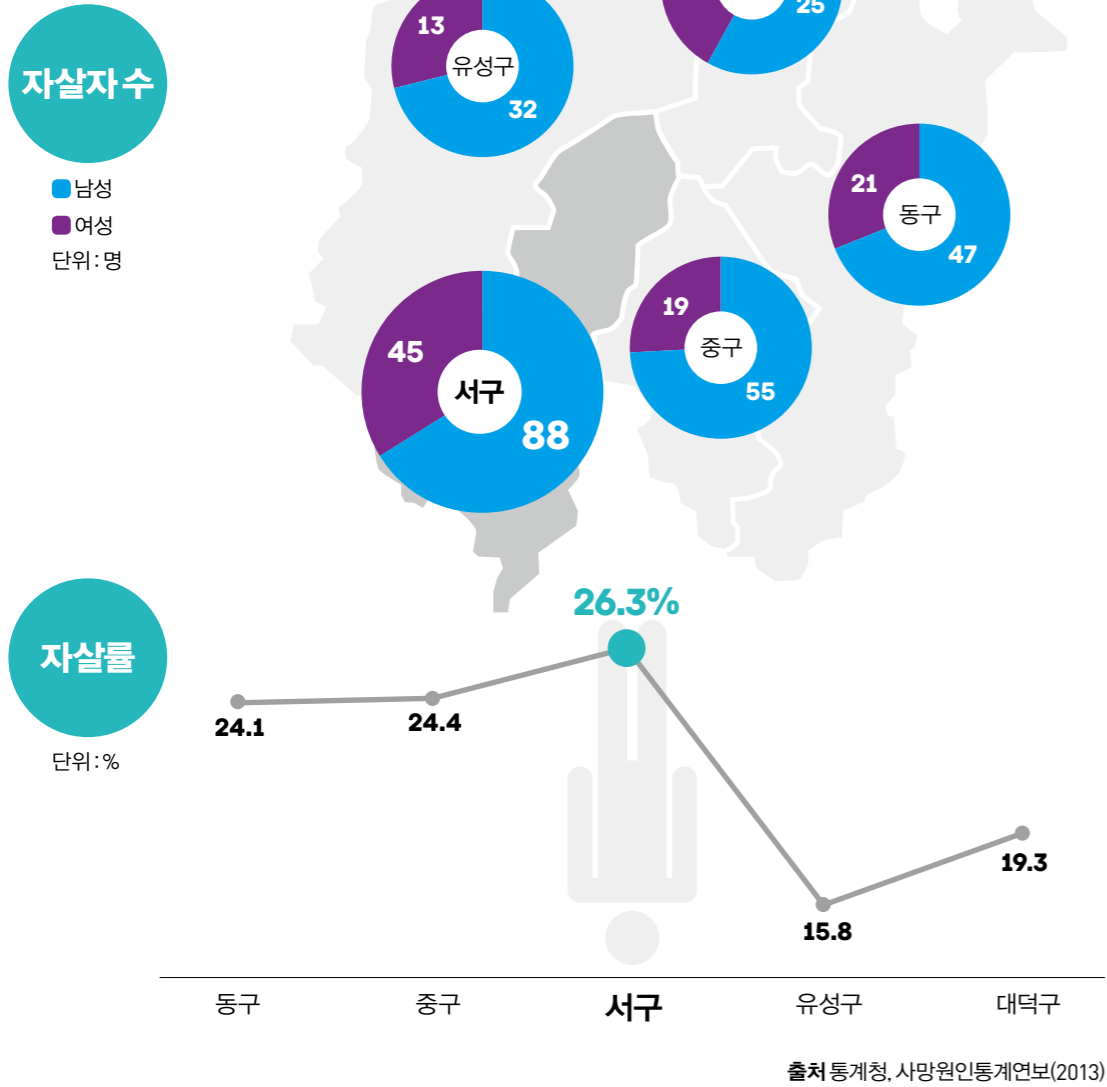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4)

2014년 대전시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014년 어머니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이 118.0으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 67.3, 30대 후반 43.3, 20대 초반 13.4순이다.

◆ 합계출산율: 가임여성 1명당 명.

◆ 모의 연령별 출산율: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명.

대전시 자살자수 서구 남성이 가장 많아



2013년 대전시 자살자 수는 여성 116명(32%), 남성 247명(68%)으로 남성이 더 많았고, 구별 자살자도 모든 구에서 남성의 수가 더 많다. 가장 자살자수가 많은 구는 서구로 남성 88명, 여성 45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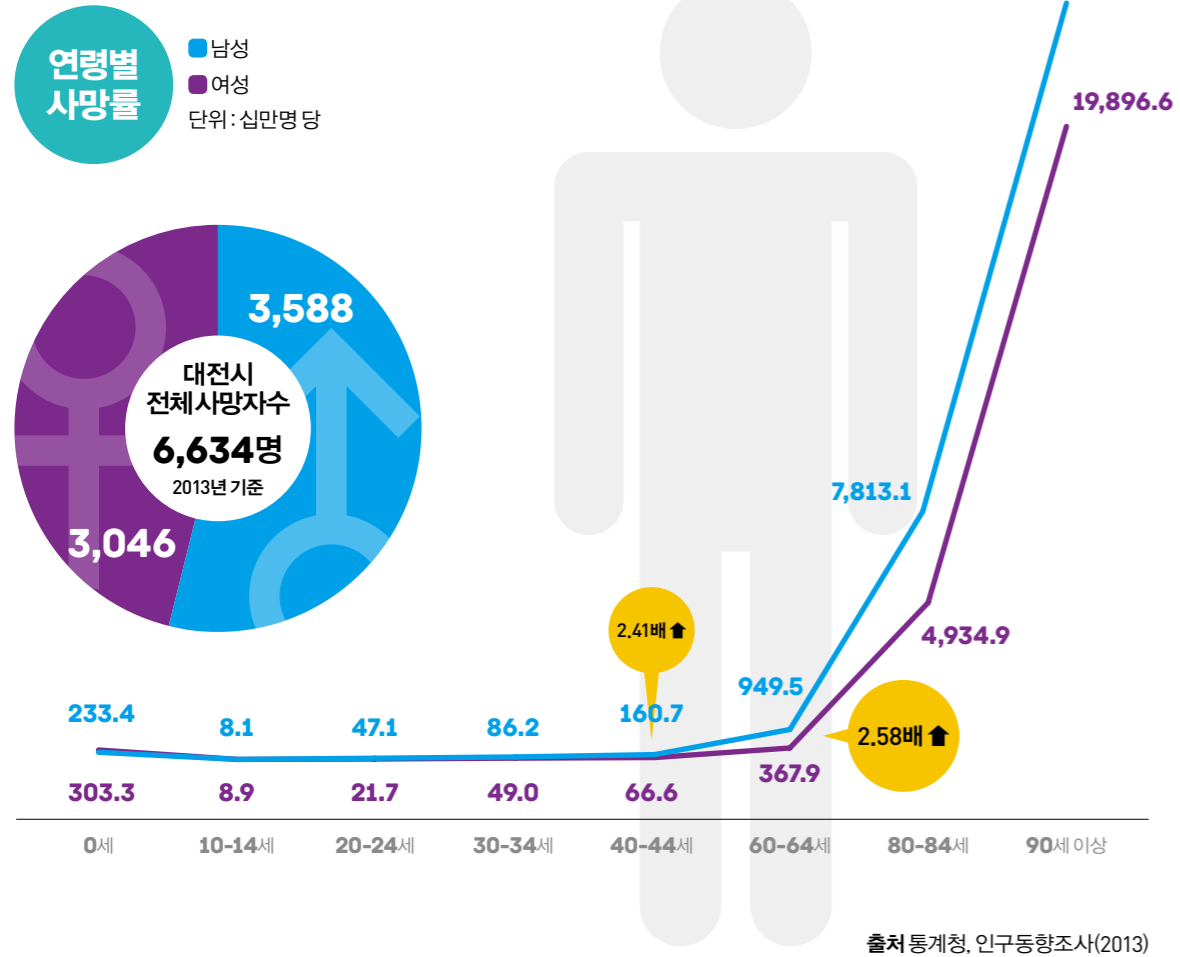
✦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



성별, 연령별 자살률

구분	남성 (%)	여성 (%)	계 (%)
총 자살률	32.6	15.3	23.9
1-4세	-	-	-
5-9세	-	-	-
10-14세	2.0	2.2	2.1
15-19세	10.1	3.8	7.1
20-24세	19.2	9.9	14.8
25-29세	21.2	18.6	19.9
30-34세	43.9	21.3	32.6
35-39세	34.1	17.7	25.9
40-44세	31.3	18.4	24.8
45-49세	36.8	14.3	25.5
50-54세	47.2	12.5	29.8
55-59세	42.6	14.7	28.3
60-64세	71.1	6.1	38.3
65-69세	69.7	20.0	43.8
70-74세	91.2	42.7	64.2
75-79세	78.9	57.3	65.9
80-84세	116.3	45.7	68.3
85-89세	97.4	37.3	54.0
90세 이상	134.5	165.5	158.2

여성보다 남성이 모든 연령별 사망률 높아



2013년 한해 대전시 전체 사망자수는 6,634명이며, 이 중 여성 사망자수는 3,046명, 남성 3,588명이다. 사망률은 남성 472.9, 여성 401.5로 남성의 사망률이 71.4p 높다. 대전시 연령별 사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모든 연령층에서 높았고, 40대 초반은 2.41배, 60대 초반은 2.58배나 남성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 사망률: 특정 연령의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연도의 연령별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어떤 특정 연령층에 사망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표시



DAEJEON
 GENDERSENSITIVE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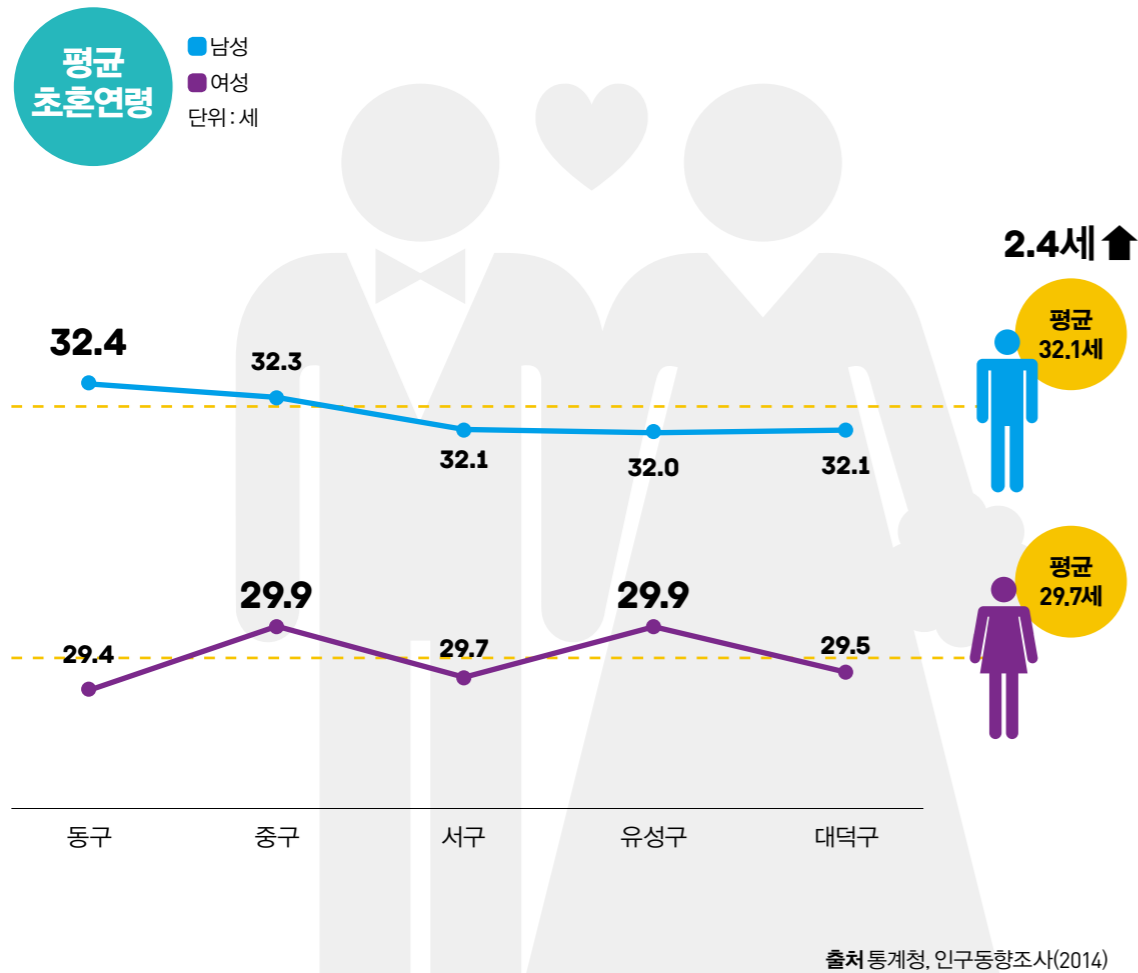
2. 가족



2-1 가족형성 및 관계

평균초혼연령	성 및 자치구별 평균초혼연령
다문화가족 가구현황	성 및 다문화가족 수
결혼이민자 국적	성 및 국적별 결혼이민자 수
외국인 현황	성 및 자치구별 외국인 수
혼인상태별 인구	성 및 혼인상태별 비율
1인 가구	성 및 자치구별 가구 수
가족관계 만족도	성별 가족관계 만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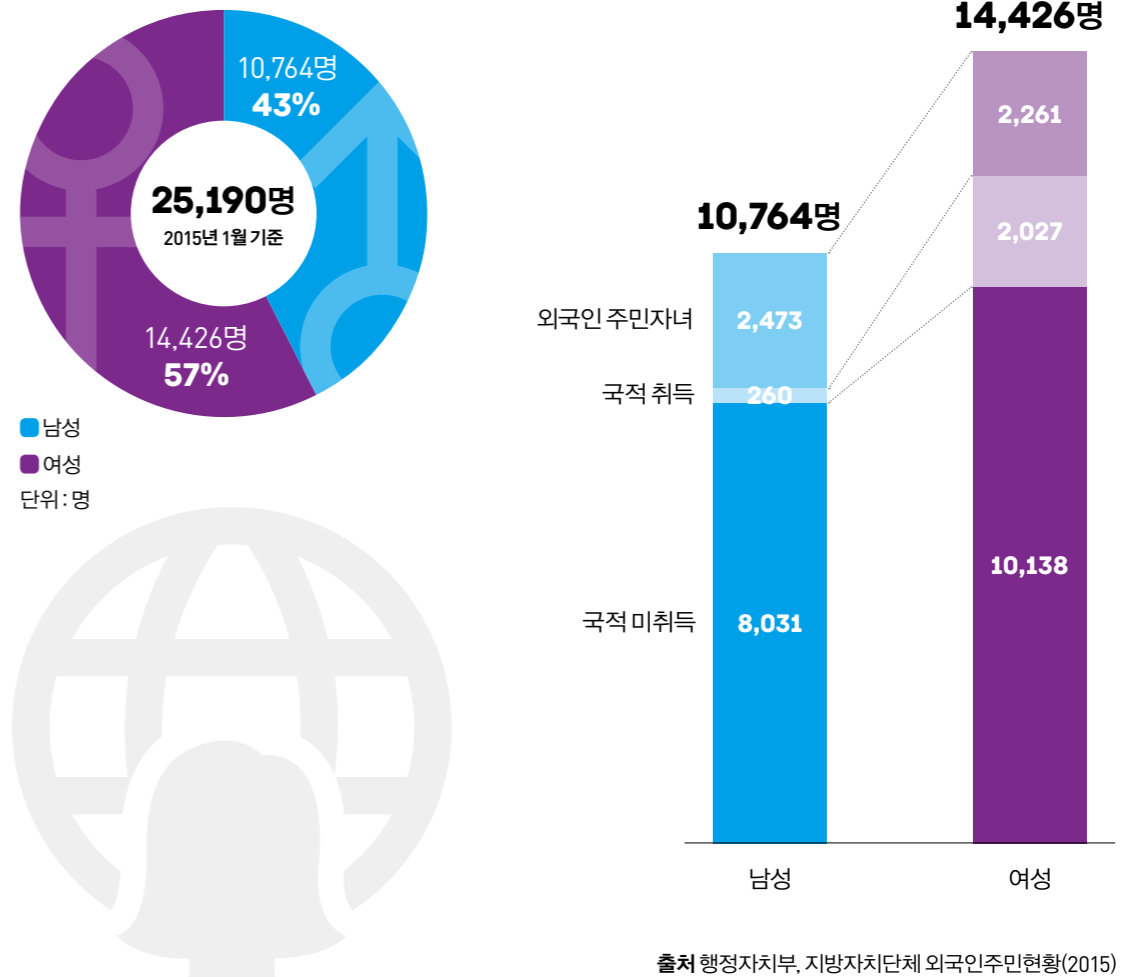
평균초혼연령은 남성 32.1세, 여성은 29.7세



2014년 대전시 평균초혼연령은 남성 32.1세, 여성은 29.7세로 남성이 2.4세 높다. 구별로 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동구(32.4)이며,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이 높은 곳은 중구와 유성구(29.9)이다.

다문화가족 가구원 여성이 더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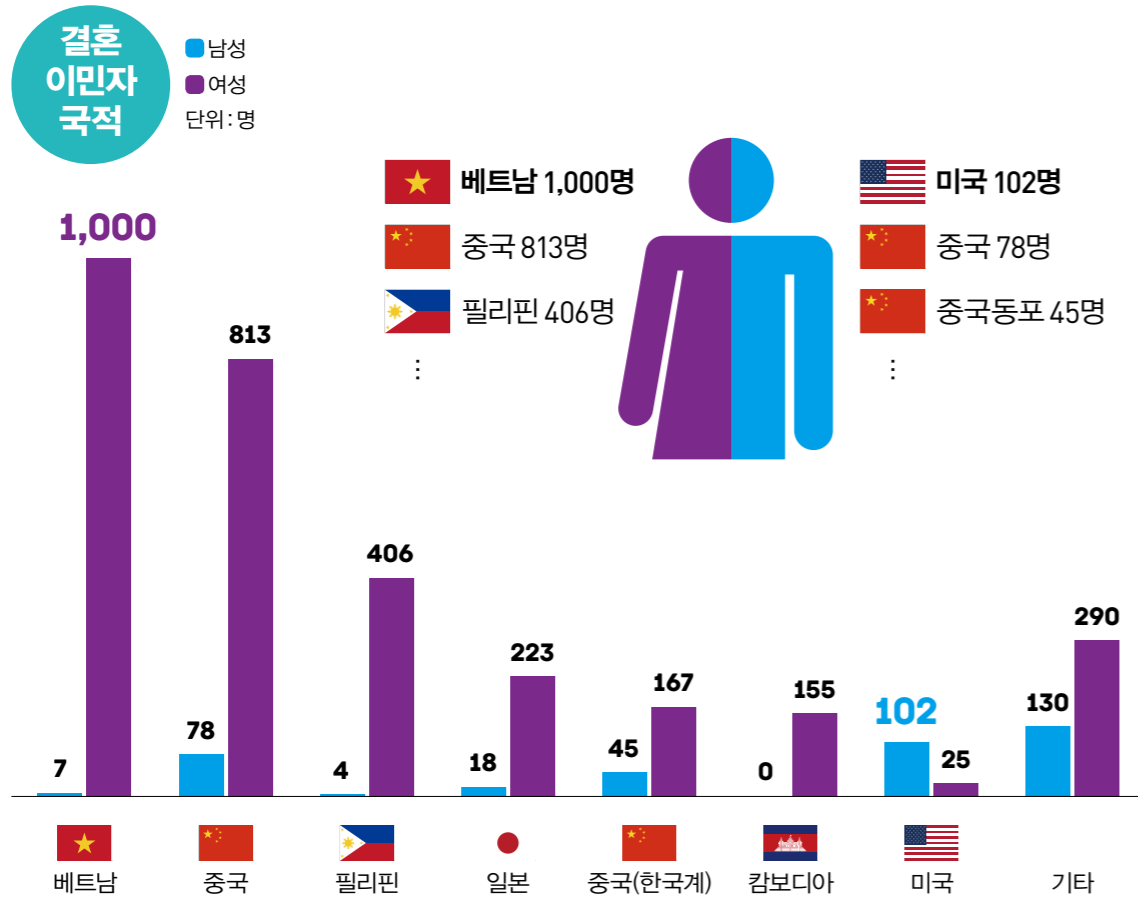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가구원 현황



대전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가구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월 기준 남성은 10,764명(43%), 여성 14,426명(57%)으로 여성이 더 많고, 이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남성 8,031명, 여성 10,138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남성 260명, 여성 2,027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더 많다. 외국인 주민 자녀의 경우는 남성 2,473명, 여성 2,261명으로 남성이 더 많다.

- ✦ 한국국적 미취득: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초과 체류자(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 ✦ 한국국적 취득: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혼인귀화자, 일반귀화, 입양 등)
- ✦ 자녀: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외국인부모, 한국인부모, 외국인-한국인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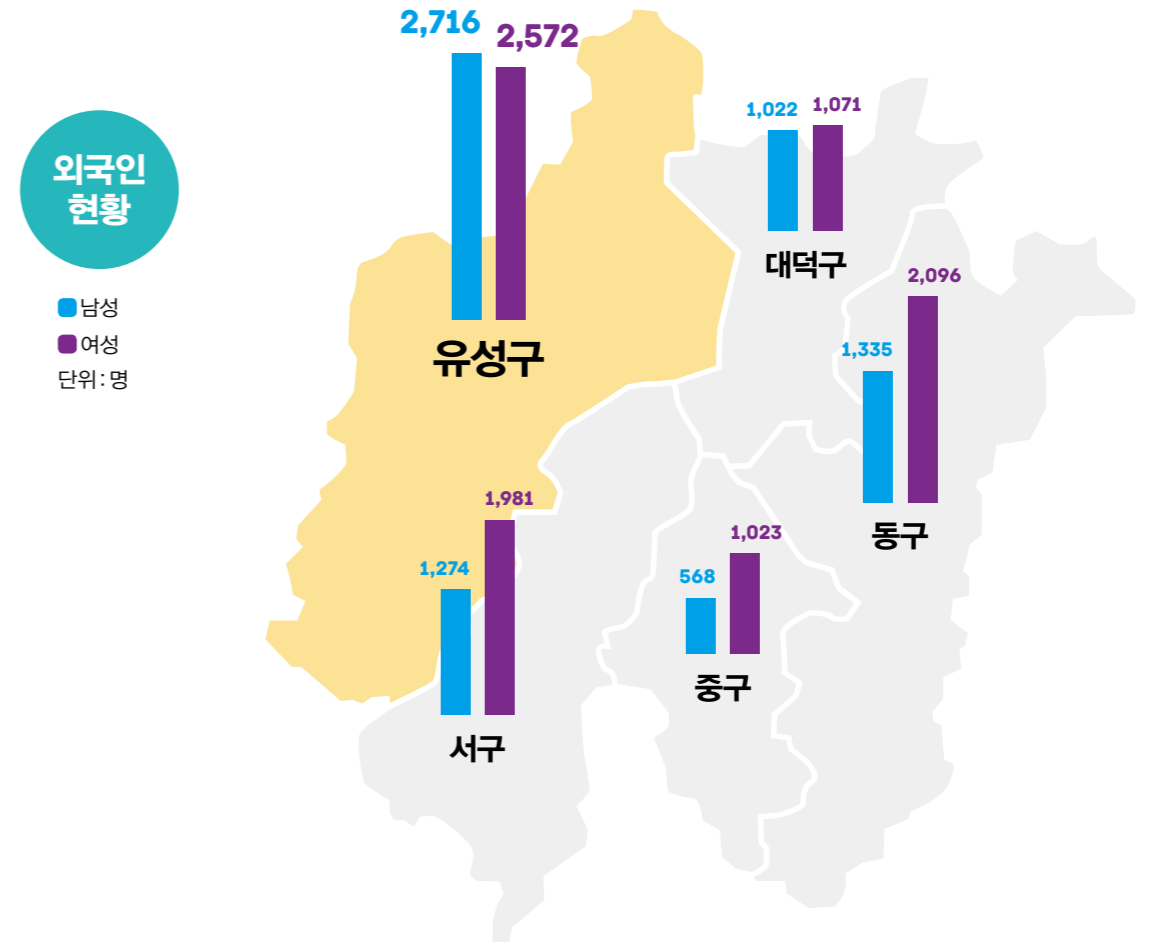
결혼이민자국적 베트남이 가장 높아



출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5)

2015년 1월 기준 대전시 결혼이민자의 국적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베트남 1,000명, 중국 813명, 필리핀 406명, 일본 223명, 중국동포 167명, 캄보디아 155명, 미국 25명 순이다. 남성은 미국이 102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78명, 중국동포 45명 순이다.

유성구에 외국인 가장 많이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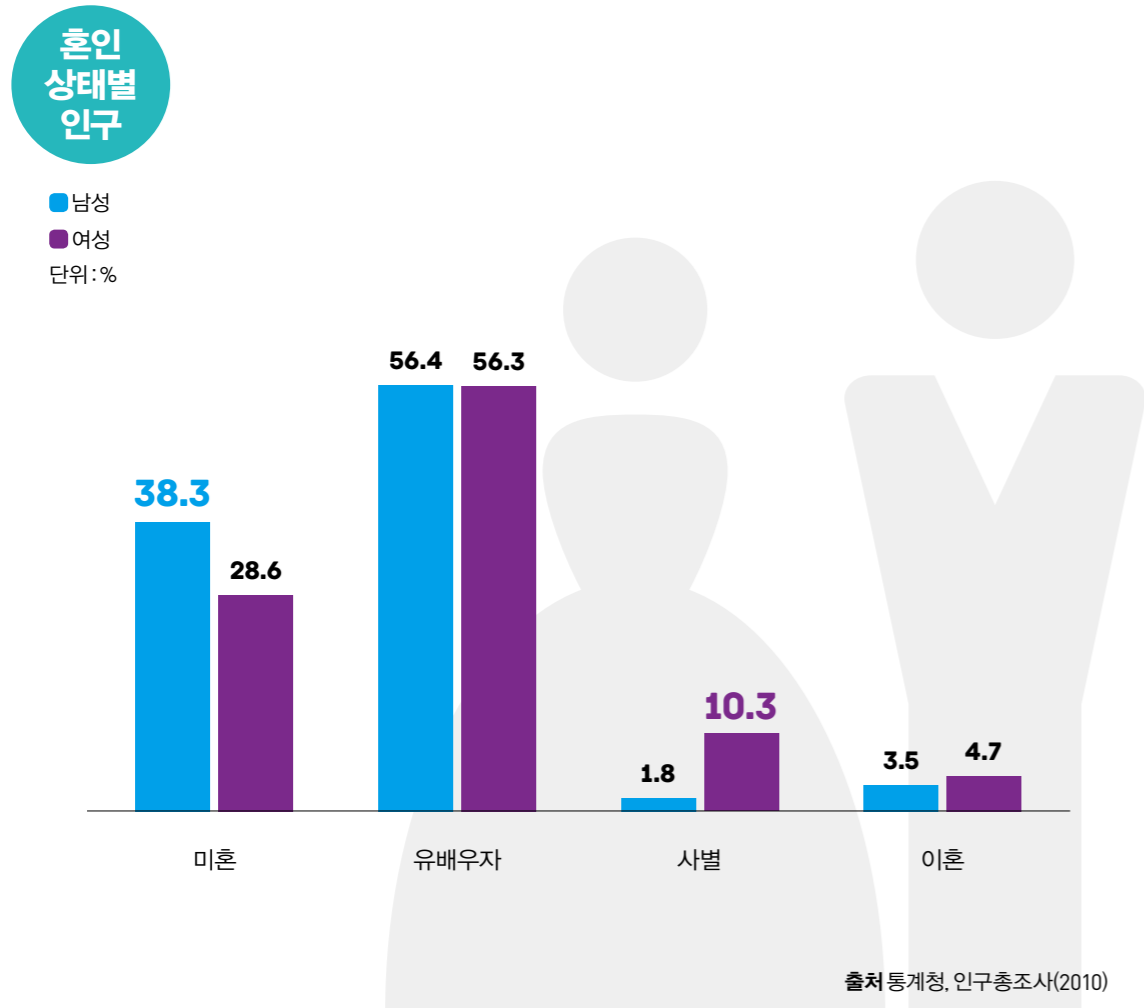


출처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2014)

2014년 12월 기준 대전시에 등록된 외국인 인구를 살펴보면 유성구가 여성 2,716명, 남성 2,572명 총 5,288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 3,431명, 서구 3,255명, 대덕구 2,093명, 중구 1,591명 순이다. 유성구(남성 51.4%, 여성 48.6%)와 대덕구(남성 48.8%, 여성 51.2%)는 성별 비율이 비슷하지만 중구의 경우 여성이 64.3%, 남성 35.7%로 여성의 비율이 28.6% 더 높고, 동구와 서구도 각각 여성이 61.1%, 60.9%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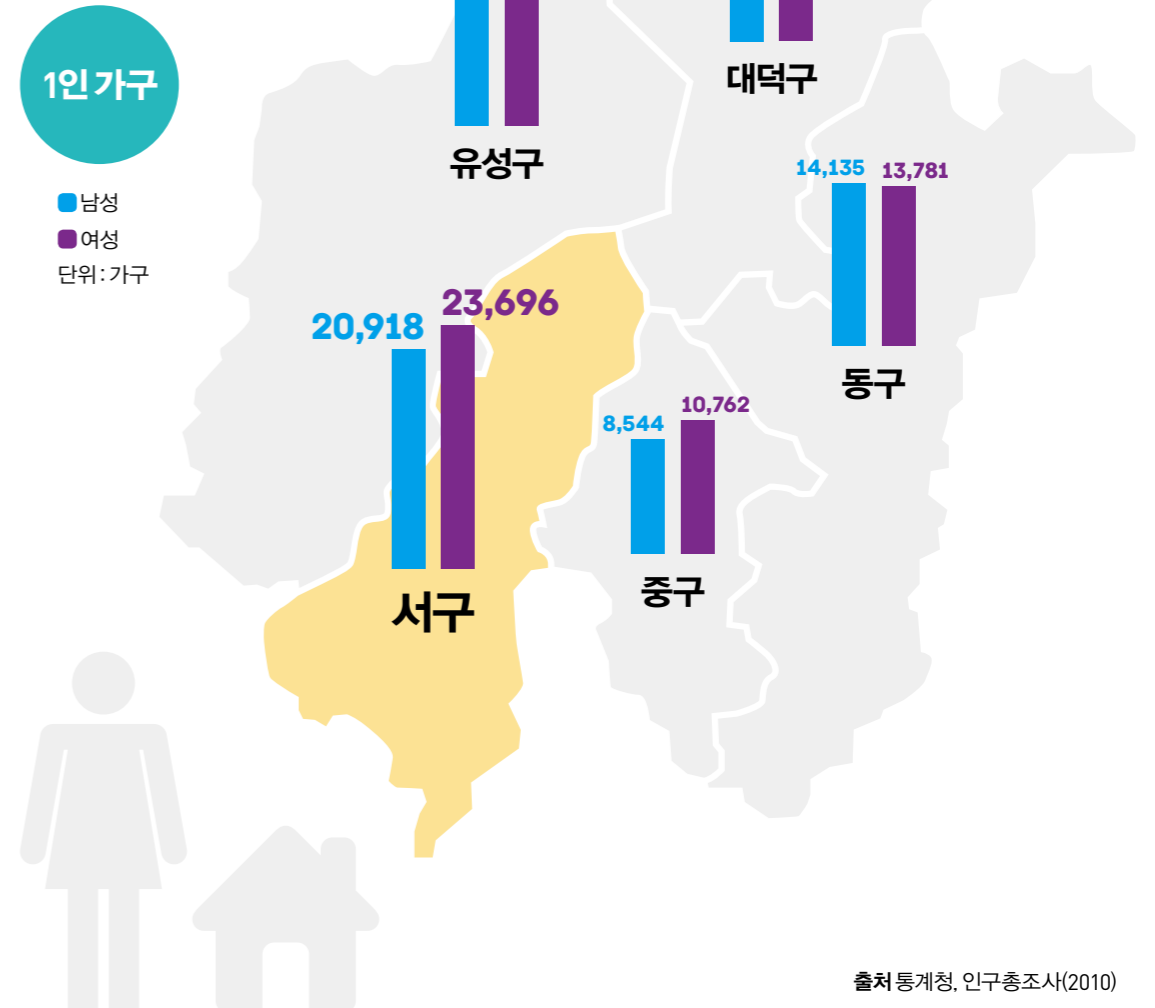
✦ 외국인등록표를 근거로 외국인수 파악

미혼의 비율은 남성이, 사별은 여성의 비율이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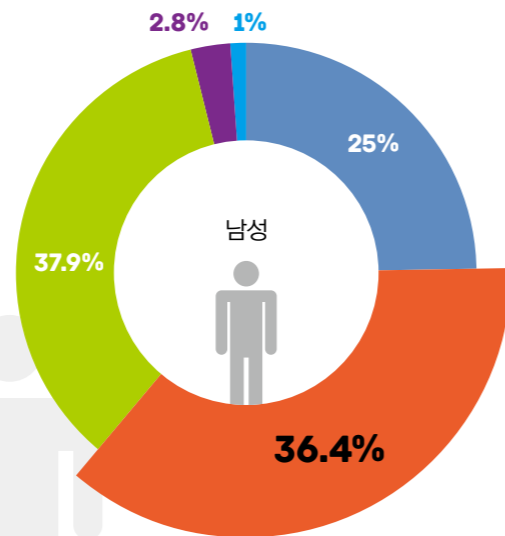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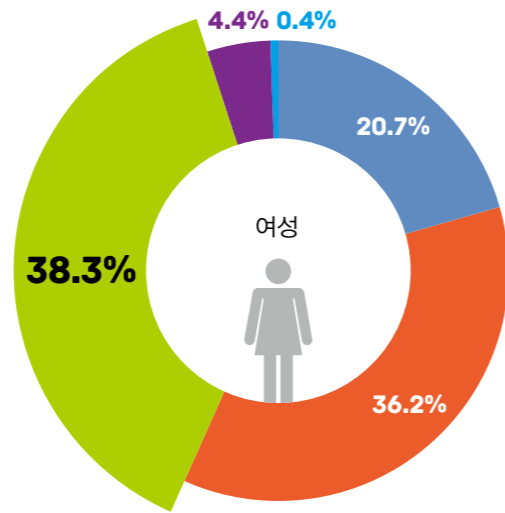
대전시 혼인상태별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유배우자' 56.3%, '미혼' 28.6%, '사별' 10.3%, '이혼' 4.7%로 나타났고, 남성은 '유배우자' 56.4%, '미혼' 38.3%, '사별' 1.8%, '이혼' 3.5% 이다. 미혼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9.7% 더 높고 사별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8.5% 높다.

1인가구 서구에 많아



대전시 구별 1인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 44,614가구, 동구 27,916가구, 유성구 26,555가구, 중구 19,306가구, 대덕구 16,547가구 순이다.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서구는 여성가구주가 23,696가구로 남성 20,918가구 보다 2,778가구 더 많고, 반대로 유성구의 경우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보다 4,829가구 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가족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14)

2014년 대전 시민의 가족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 정도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경우 '보통' 38.3%, '약간만족' 36.2%, '매우 만족' 20.7%, '약간 불만족' 4.4%, '매우 불만족' 0.4% 순이다. 남성의 만족도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데, '매우만족'이 여성보다 4.3% 높다.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의 비율이 높고 '불만족' 비율이 낮아 성별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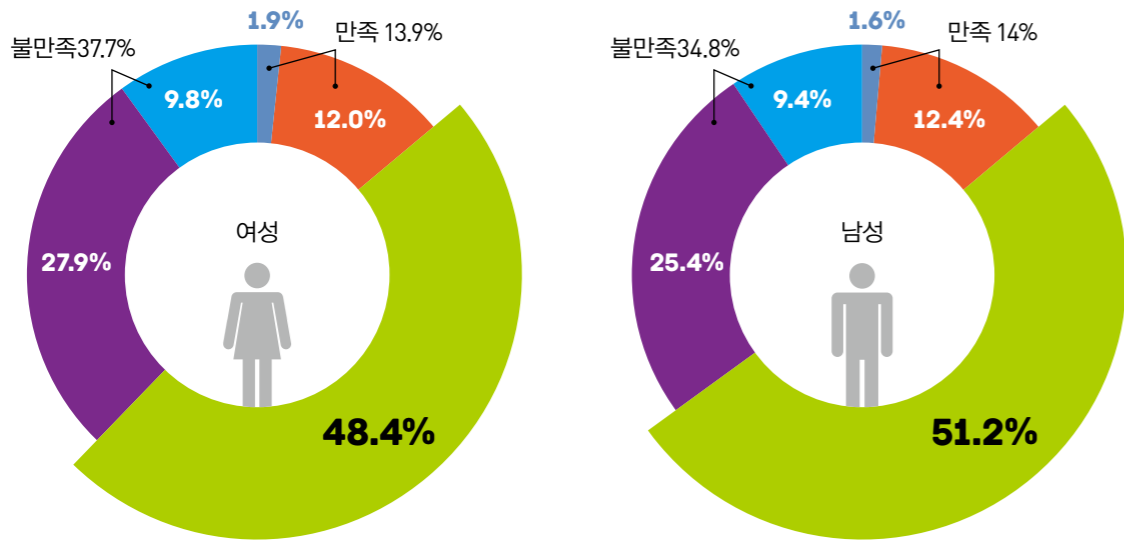
DAEJEON
GENDERSENSITIVE
STATISTICS

3. 소득과 소비



3-1 소득	소득만족도	성별 소득만족비율
	가구부채	성별 가구 부채 유무 및 이유 비율
	월평균 가구소득	성별 가구 소득 비율
3-2 소비	소비생활만족도	성별 소비생활만족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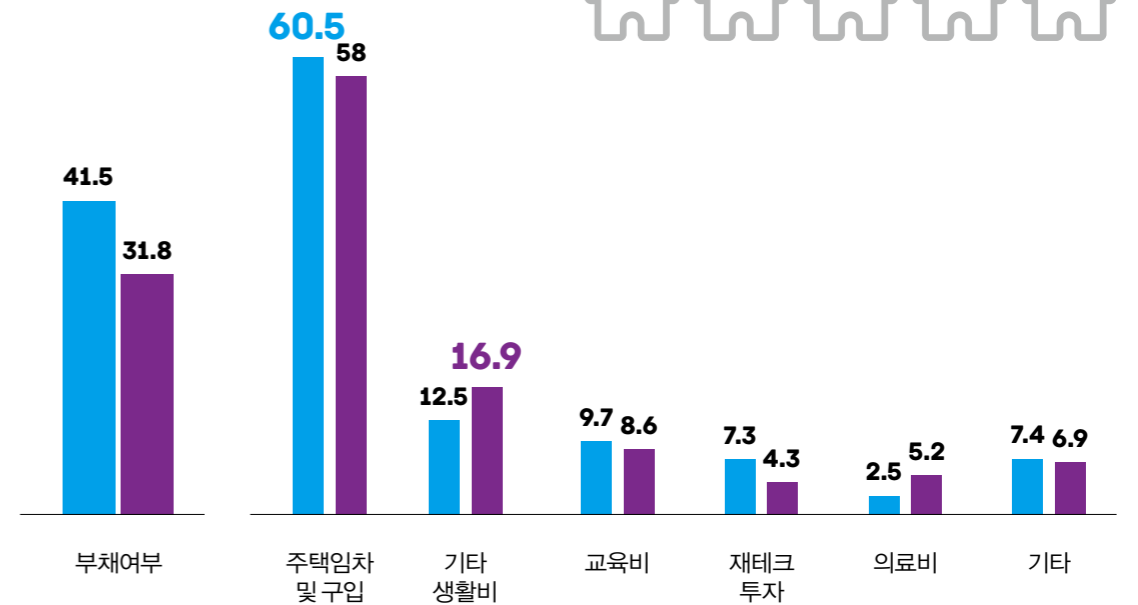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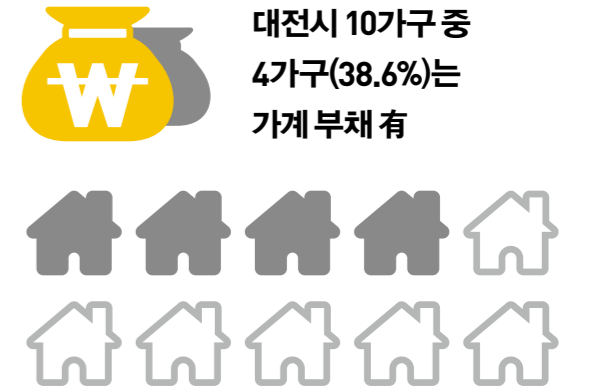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수준에 대해 2.9%p 더 불만족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2014년 대전 시민의 소득만족도 조사 응답결과 본인의 소득에 대해 '불만(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이라는 부정 응답이 남성은 34.8%, 여성 37.7%로 나타나 '만족(매우만족, 약간 만족)'이라는 긍정 의견(남성 14%, 여성 13.9%) 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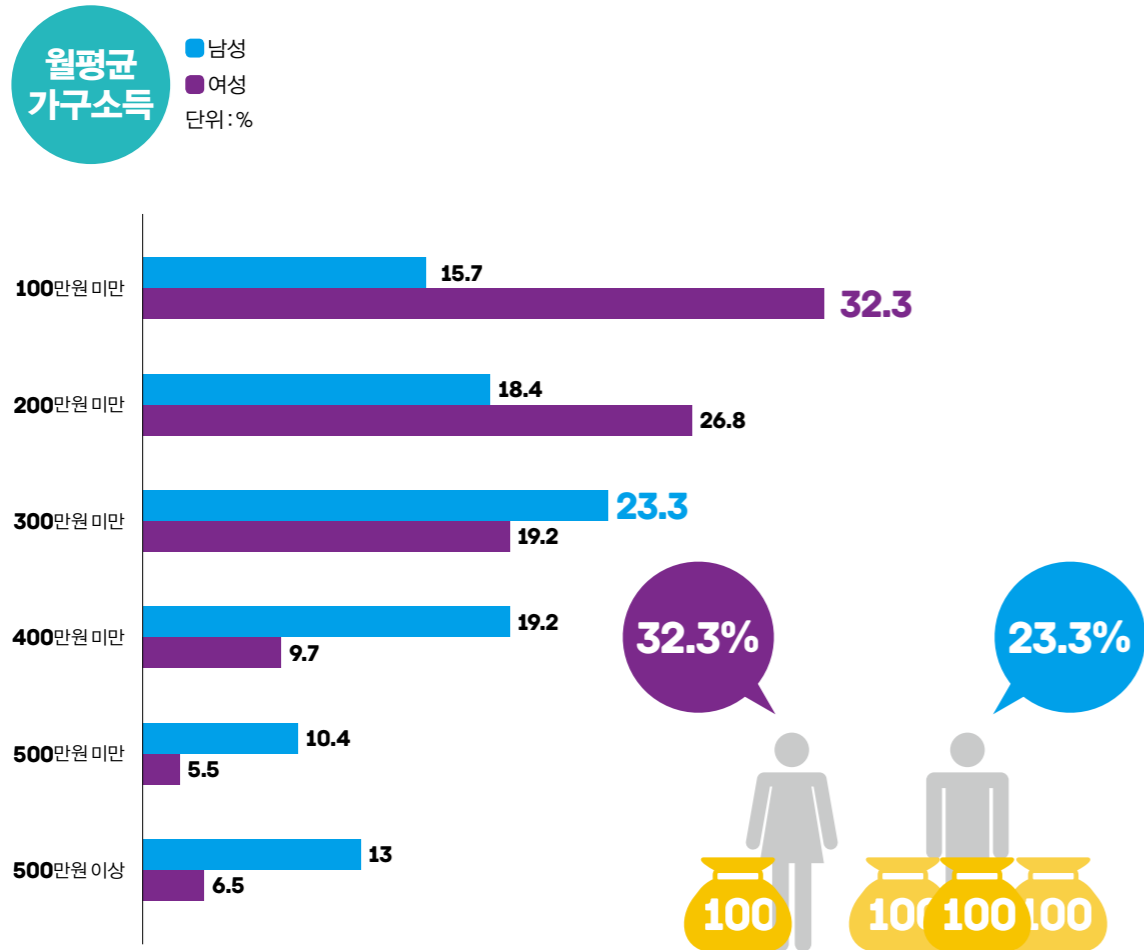
대전시 가구 중 38.6% 가계 부채 있어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대전시 10가구 중 4가구(38.6%)는 가계 부채가 있고, 성별로는 남성 41.5%, 여성 31.8%로 남성이 9.7% 더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발생 이유를 성별로 살펴보면 주택임차 및 구입은 남성이 60.5%, '기타 생활비'는 여성이 16.9%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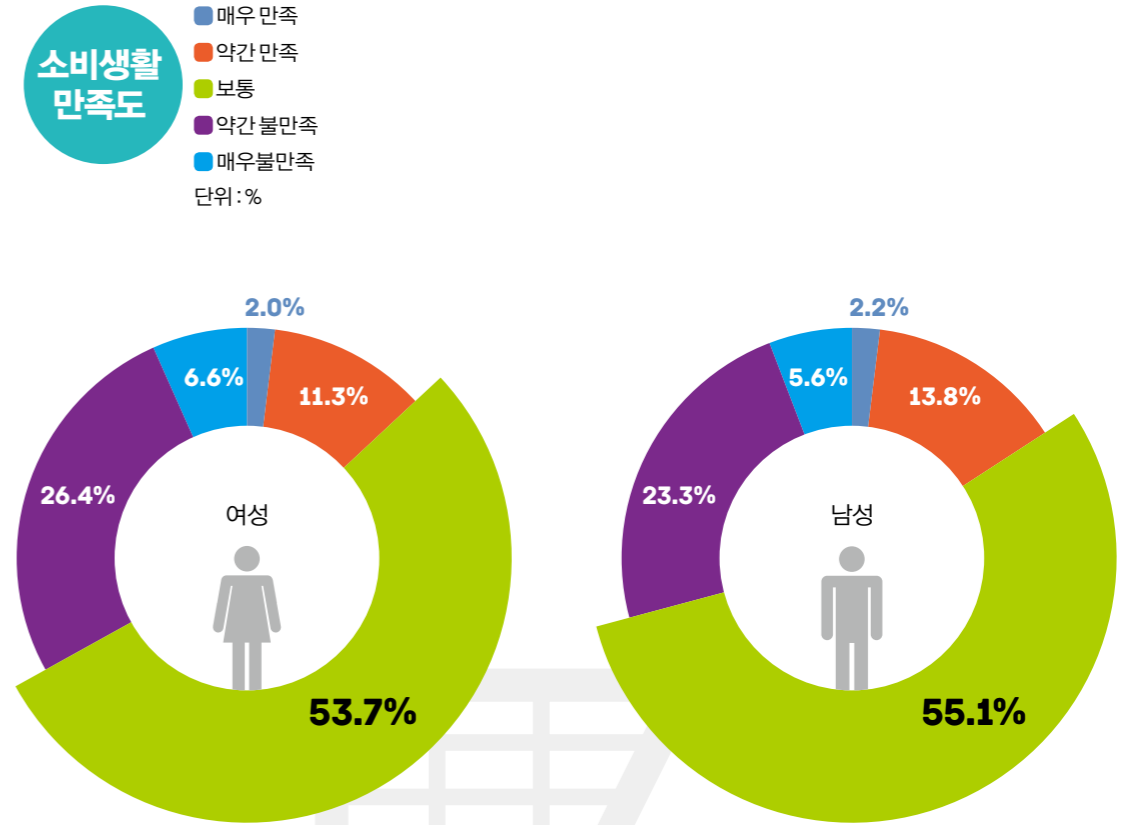
월평균 가구소득 남성은 300만원 미만, 여성은 1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아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2014년 대전 시민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100만원 미만'이 32.3%로 특히 높게 나타났고, '200만원 미만' 26.8%, '300만원 미만' 19.2%, '400만원 미만' 9.7%이다. 남성은 '300만원 미만'이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0만원 미만' 19.2%, '200만원 미만' 18.4%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가구소득 격차를 보인다.

소비생활 만족도는 보통 수준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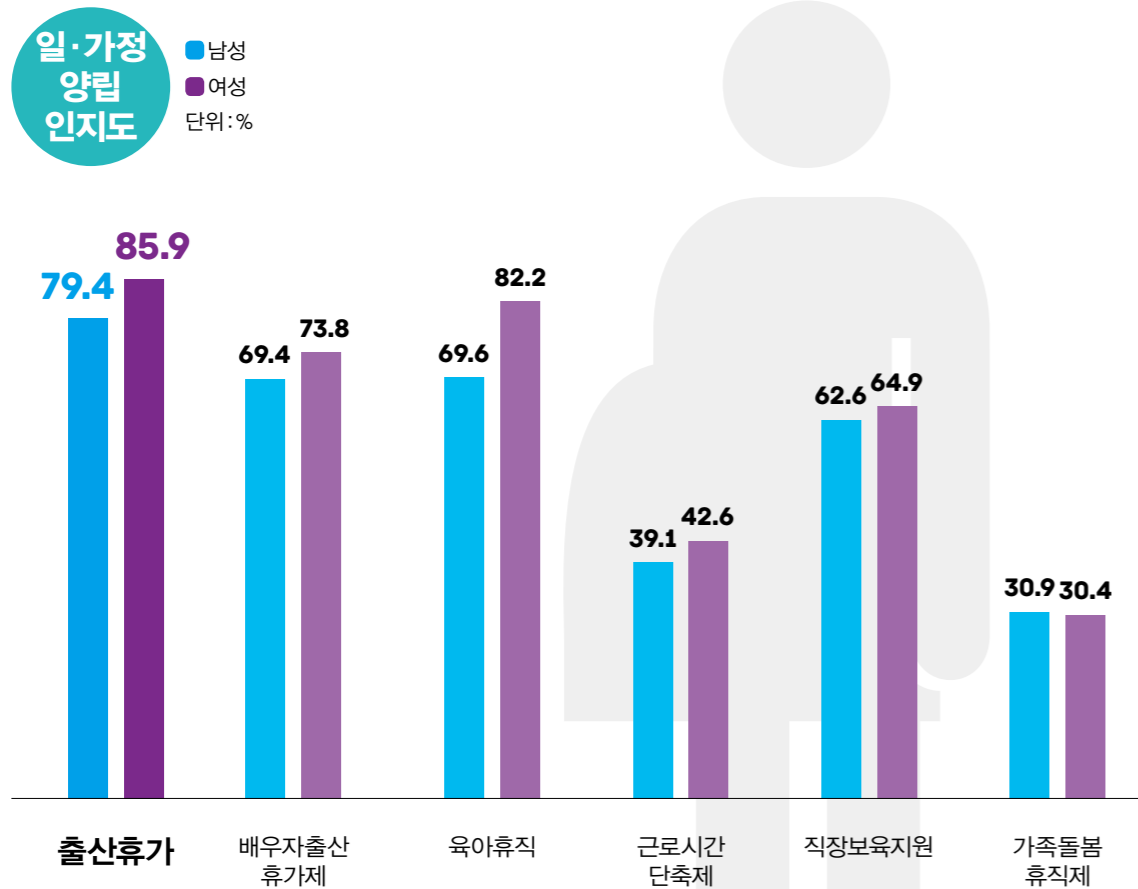
2014년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매우 만족, 약간 만족)'이라는 의견은 남성 16.0%, 여성 13.3%, '불만(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라는 의견은 남성 28.9%, 여성 33.0%이다. 5점 만점 평균은 남성 2.84점, 여성 2.76점으로 '보통' 수준이다. 소비생활 '만족'은 남성이 더 높고, '불만'은 여성이 더 높다.

4. 일·가정 양립



4-1 일·가정양립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성별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비율
	보육시설현황	설립주체 및 자치구별 시설 수
	보육대상아동	성 및 연령별 보육대상아동 수
	보육료지원현황	성 및 연령별 보육료지원 비율
	저출산 해소를 위한 요구사항	성별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요구사항 비율
	가사분담실태	성별 가사분담실태 비율
	시간활용	성별 행동분류별 평균시간
	맞벌이가구	2013, 2014 유배우 맞벌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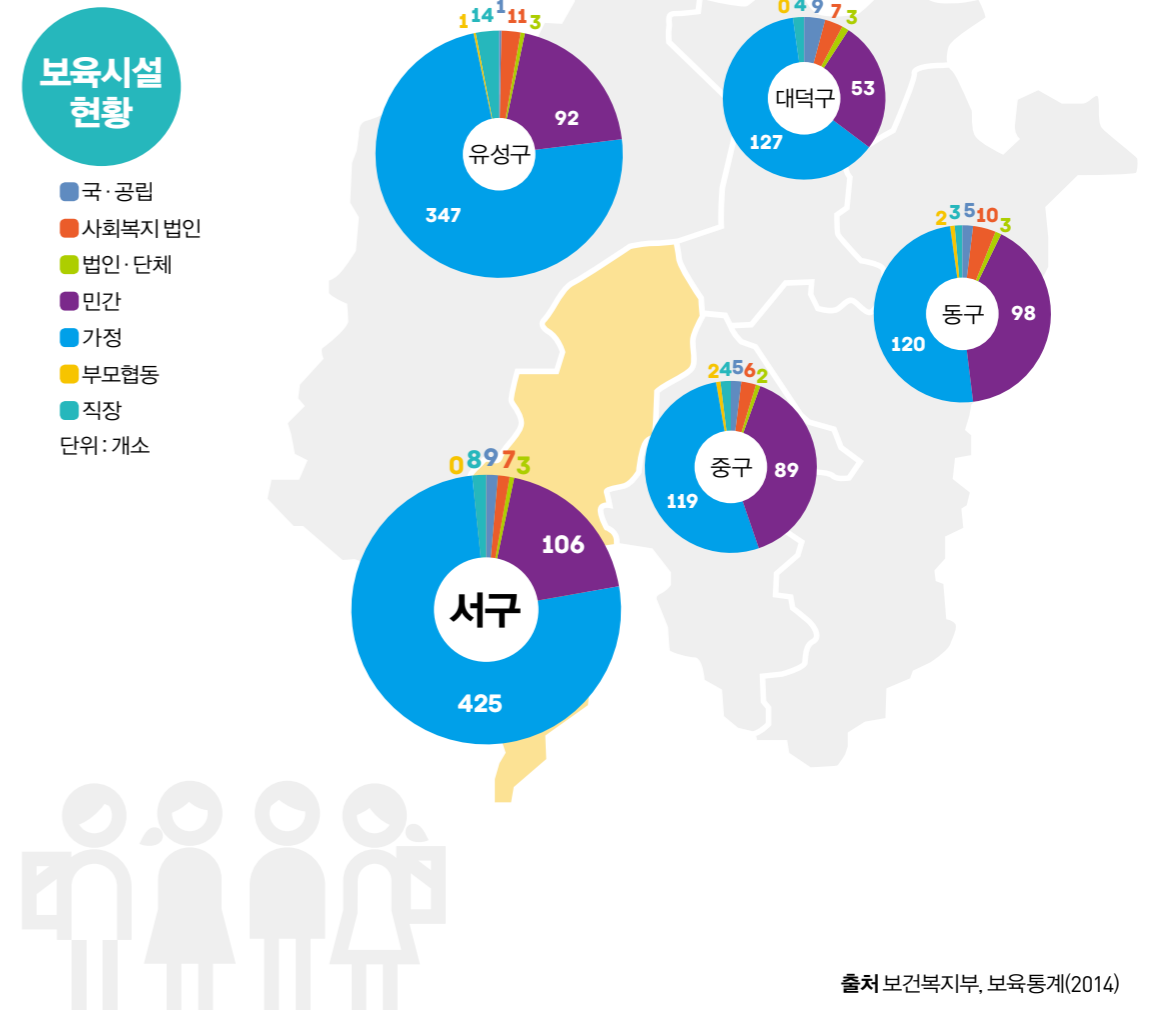
출산휴가 인지도가 가장 높고 가족돌봄 휴가제 가장 낮아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대전 시민의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출산휴가'에 대한 인지도가 여성 85.9%, 남성 79.4%로 가장 높다. '가족돌봄 휴직제'(여성 30.4%, 남성 30.9%)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으며, 전반적으로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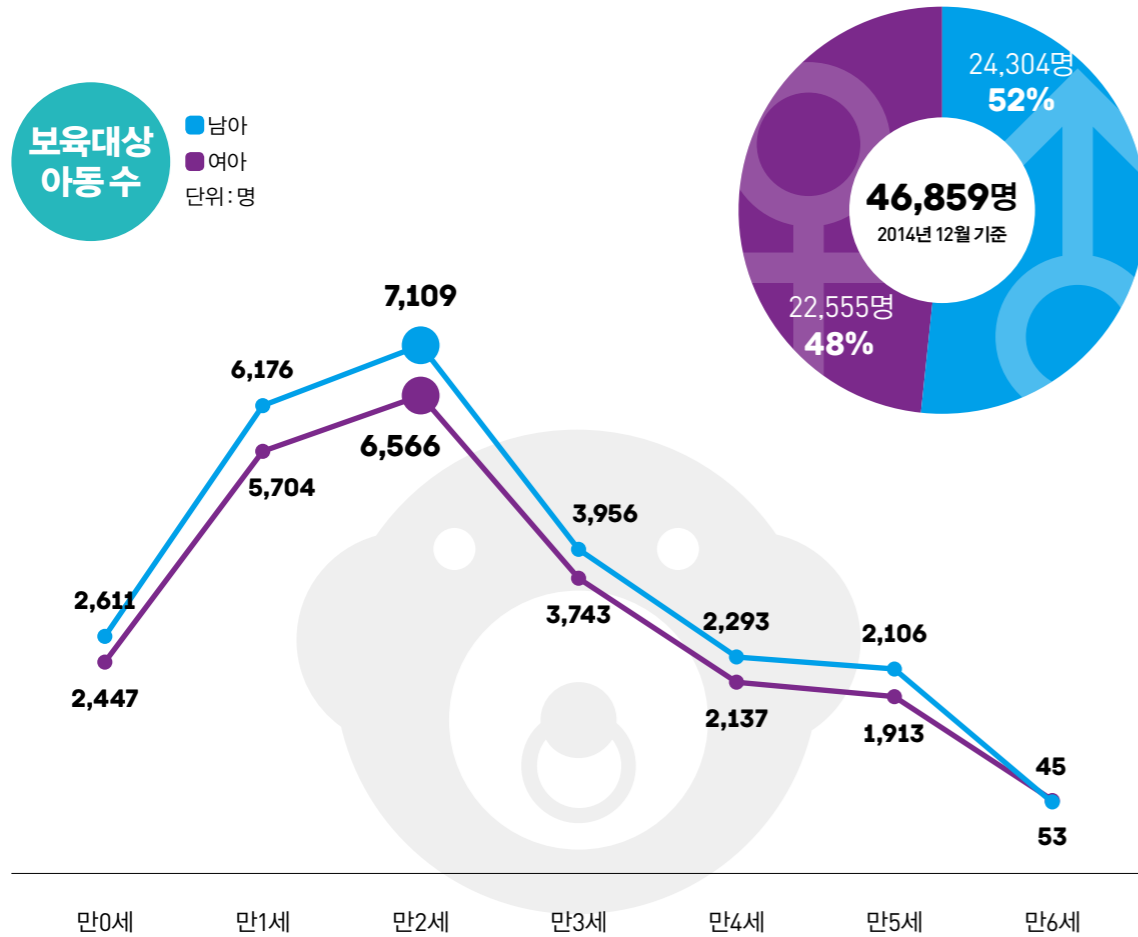
대전시에는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많아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14)

2014년 12월 기준 대전시 어린이집 수는 총 1,698개이다. 이중 가정어린이집이 1,138개로 전체 어린이집의 67%를 차지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이 438개소로 그 다음으로 많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29개소에 머무르고 있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구에 어린이집이 558개로 가장 많고, 대덕구가 총 203개로 가장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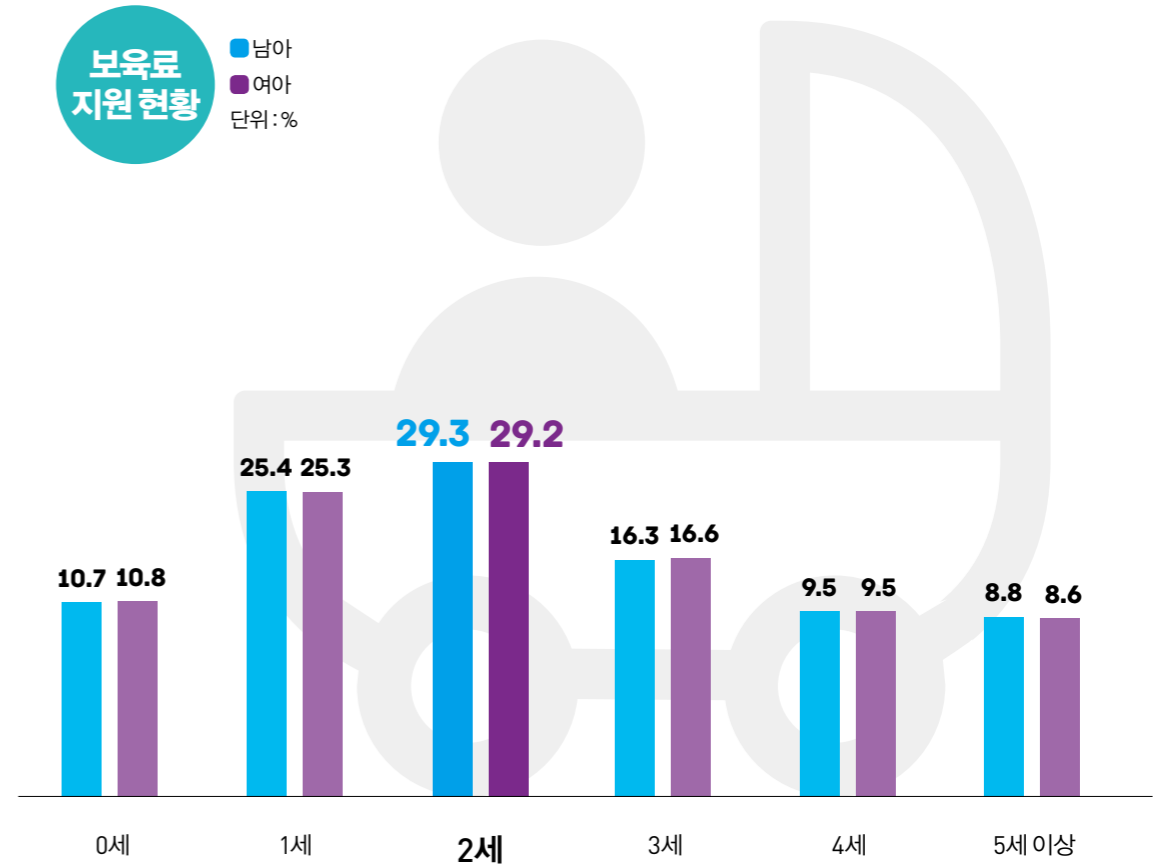
대전시 보육대상 아동 수는 남아가 더 많아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14)

2014년 12월 기준 만0세~만6세 보육대상 아동 수는 남아 24,304명(52%), 여아 22,555명(48%)으로 총 46,859명이다. 연령별로 만2세가 13,675명(남아 15.2%, 여아 12.2%)으로 가장 많고, 만0세가 5,058명(남아 5.6%, 여아 5.2%)으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여아보다 남아의 비율이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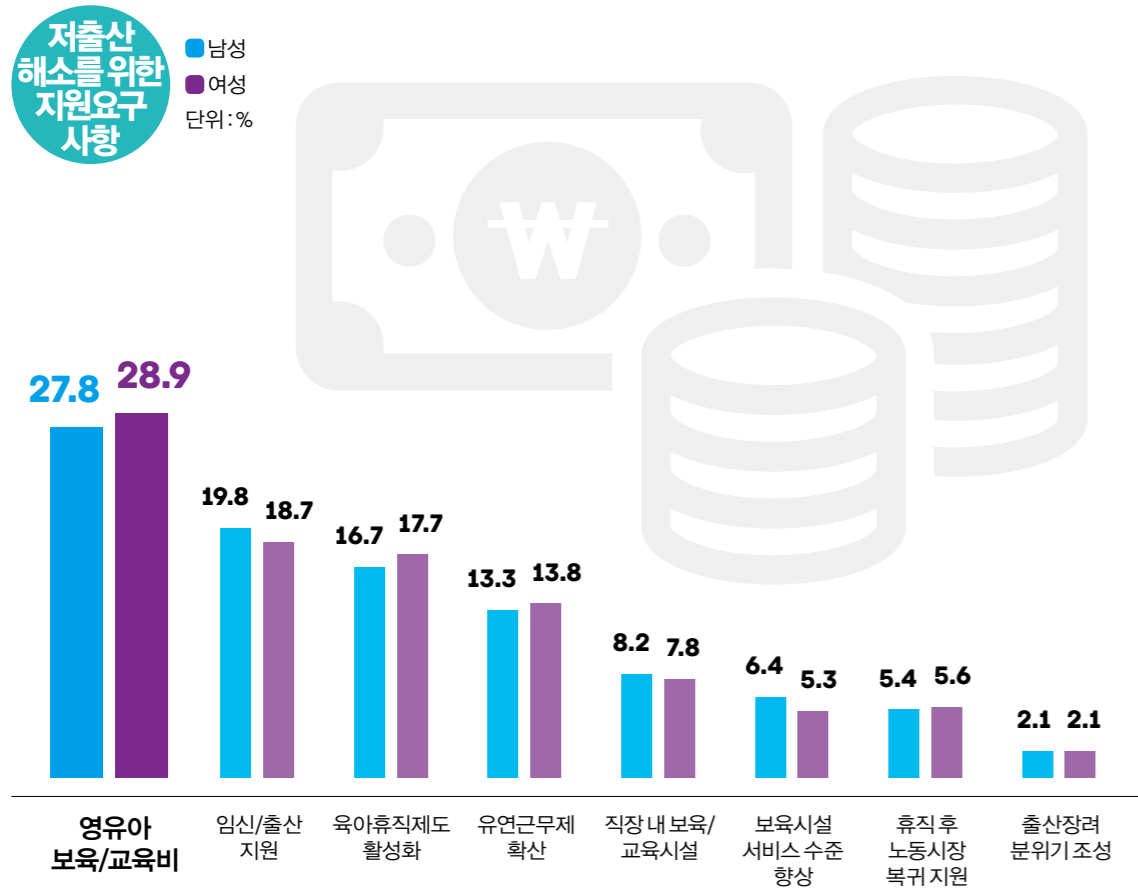
보육료 지원 만2세가 가장 많아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14)

2014년 12월 기준 대전시 보육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세 남아 29.3%, 여아 29.2%로 가장 높고, 1세 남아 25.4%, 여아 25.3%, 3세 남아 16.3%, 여아 16.6% 순이다. 보육료 지원은 보육대상 아동수가 많은 만2세, 만1세, 만3세, 만0세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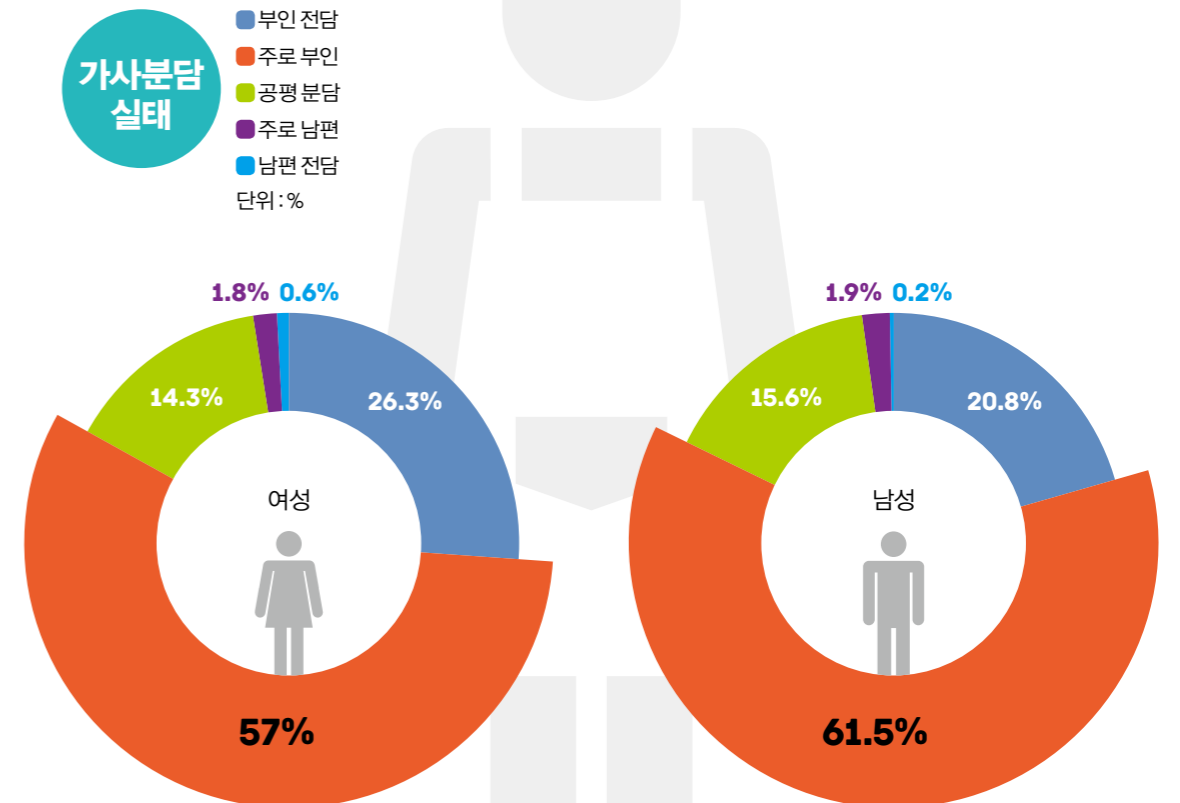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은 영유아 보육/교육비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3)

2013년 대전사회조사에 나타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 결과를 보면,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이 남성 27.8%, 여성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휴직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다.

가사분담 실태, 주로 부인이 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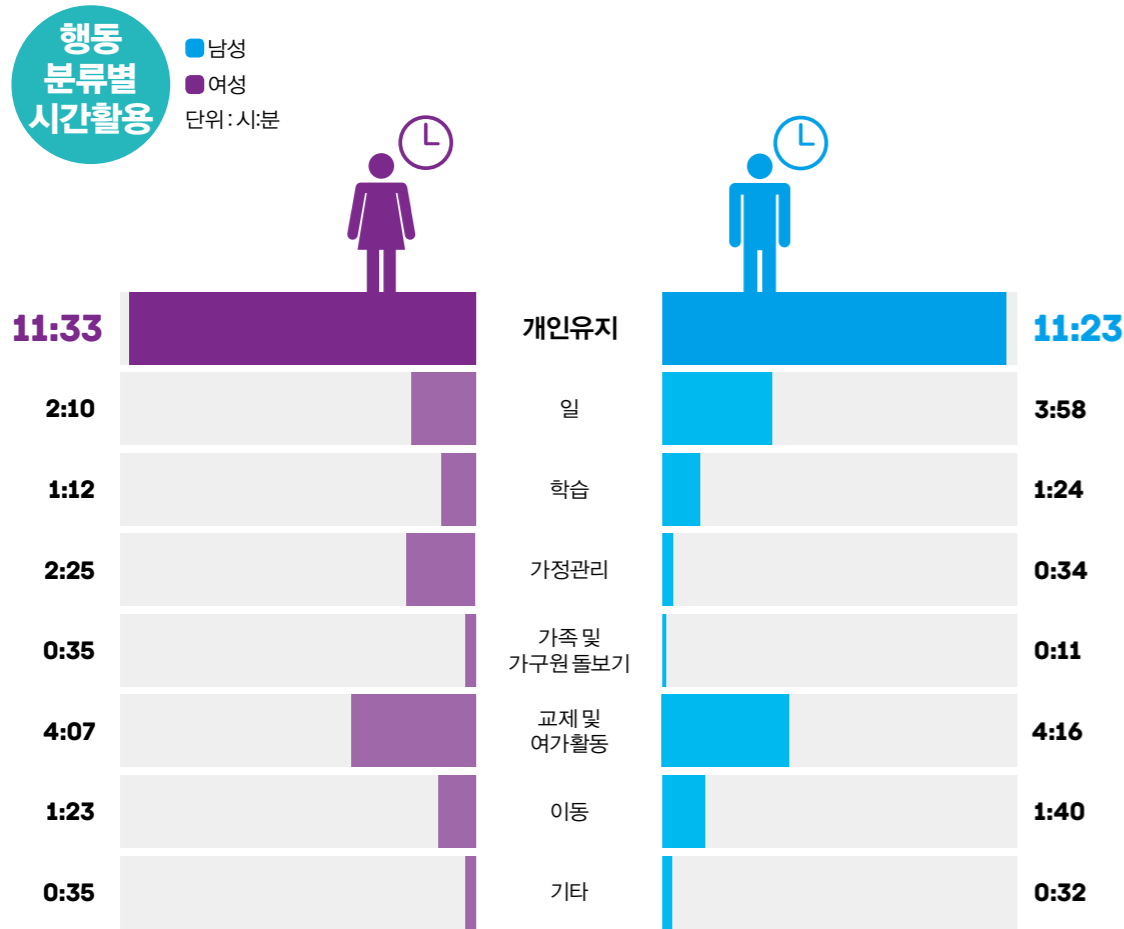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14)

201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나타난 대전시민의 가사분담 실태를 살펴보면 여성 26.3%, 남성 20.8%가 '부인이 전담한다'고 응답했으며, '주로 부인이 한다'는 응답도 여성 57%, 남성 61.5%로 매우 높았다.

✦ 19세 이상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에서 남편과 부인이 각각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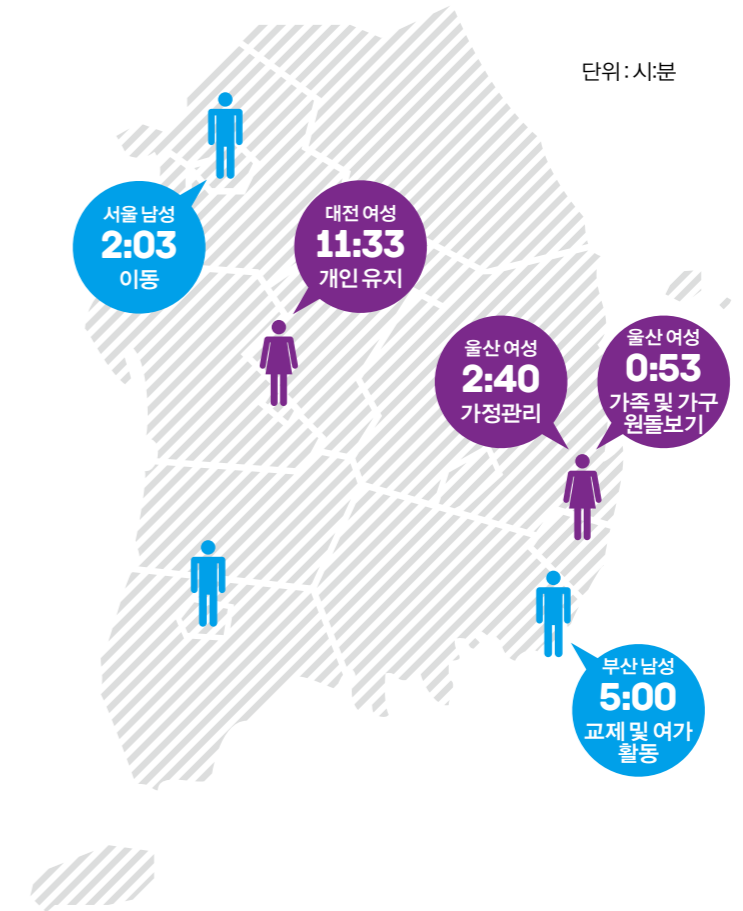
성별 행동분류별 평균시간 개인유지가 가장 많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14)

대전시 성별 행동분류별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개인유지가 여성 11시간 33분, 남성 11시간 23분으로 가장 많고, 여성이 남성보다 10분 더 많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간활용은 가정관리로 여성(2시간25분)이 남성(34분)보다 1시간 50분 더 많다.

주요 도시별 성별 행동분류별 평균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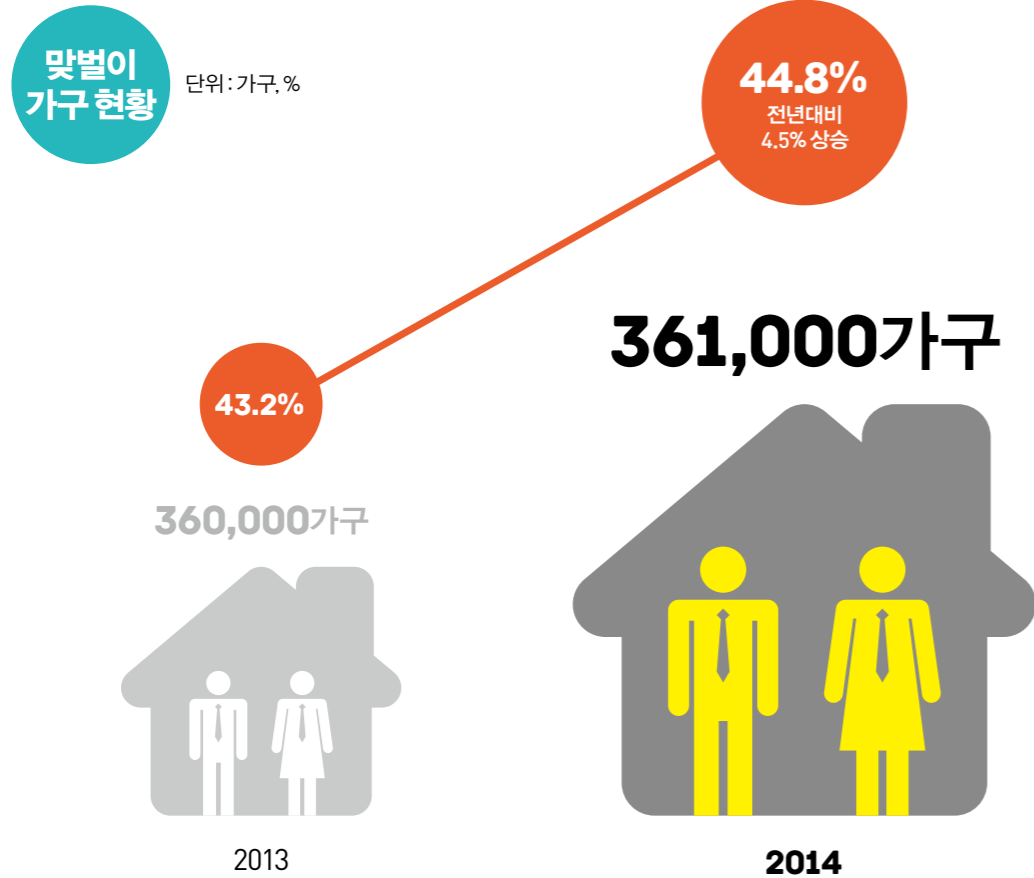


도시별로 성별 행동분류별 시간활용을 살펴보면 각각 '개인유지'는 대전 여성, '일'은 울산 남성, '학습' 광주 남성, '가정관리' 울산 여성, '가족 및 가구원돌보기' 울산 여성, '교제 및 여가활동' 부산 남성, '이동'은 서울 남성이 가장 높다.

▶ 행동분류: 사람들의 행동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참여 및 봉사활동은 응답자 및 사용시간이 적어 기타에 포함)

- 개인유지(필수생활시간):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건강관리, 기타 개인유지
- 일(의무생활시간): 고용된 일 및 자영업, 부업, 무급가족일, 일 중 휴식, 연수, 일 관련 행동
- 학습(의무생활시간): 학교활동, 학교활동 외 학습
- 가정관리(의무생활시간): 음식준비, 가정용 섬유 및 신발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관리, 애완동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함께사는 만10세미만 아이돌보기, 10세 이상 초중고생 돌보기, 함께사는 배우자 및 부모, 조부모, 그 외 가족 돌보기
- 참여 및 봉사활동(여가생활시간): 참여활동, 자원봉사,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 교제 및 여가활동(여가생활시간): 교제활동,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종교활동, 문화 및 관광 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 의례활동, 기타 여가활동
- 이동(의무생활시간): 개인유지관련이동, 출퇴근 및 기타 일 관련 이동, 학습관련 이동, 가정관리 관련이동,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기타 이동관련 활동
- 기타(여가생활시간): 기타 분류되지 않는 행동

대전시 맞벌이 가구 44.8%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4)

대전시 2014년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는 361천 가구로 이중 맞벌이 가구가 44.8%(162천 가구)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대비 4.5%p 상승한 것이다.



DAEJEON
GENDERSENSITIVE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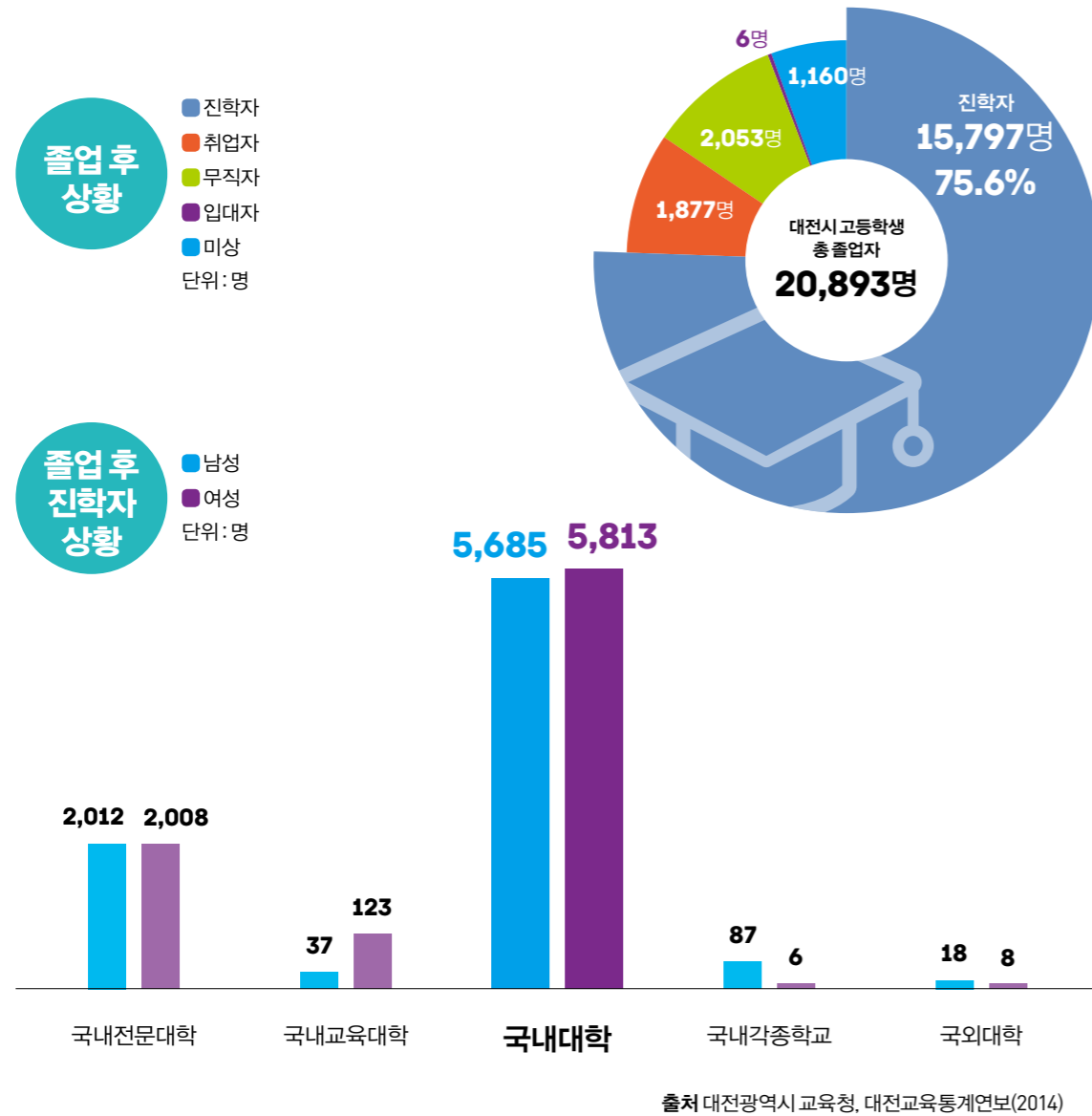
5. 교육



5-1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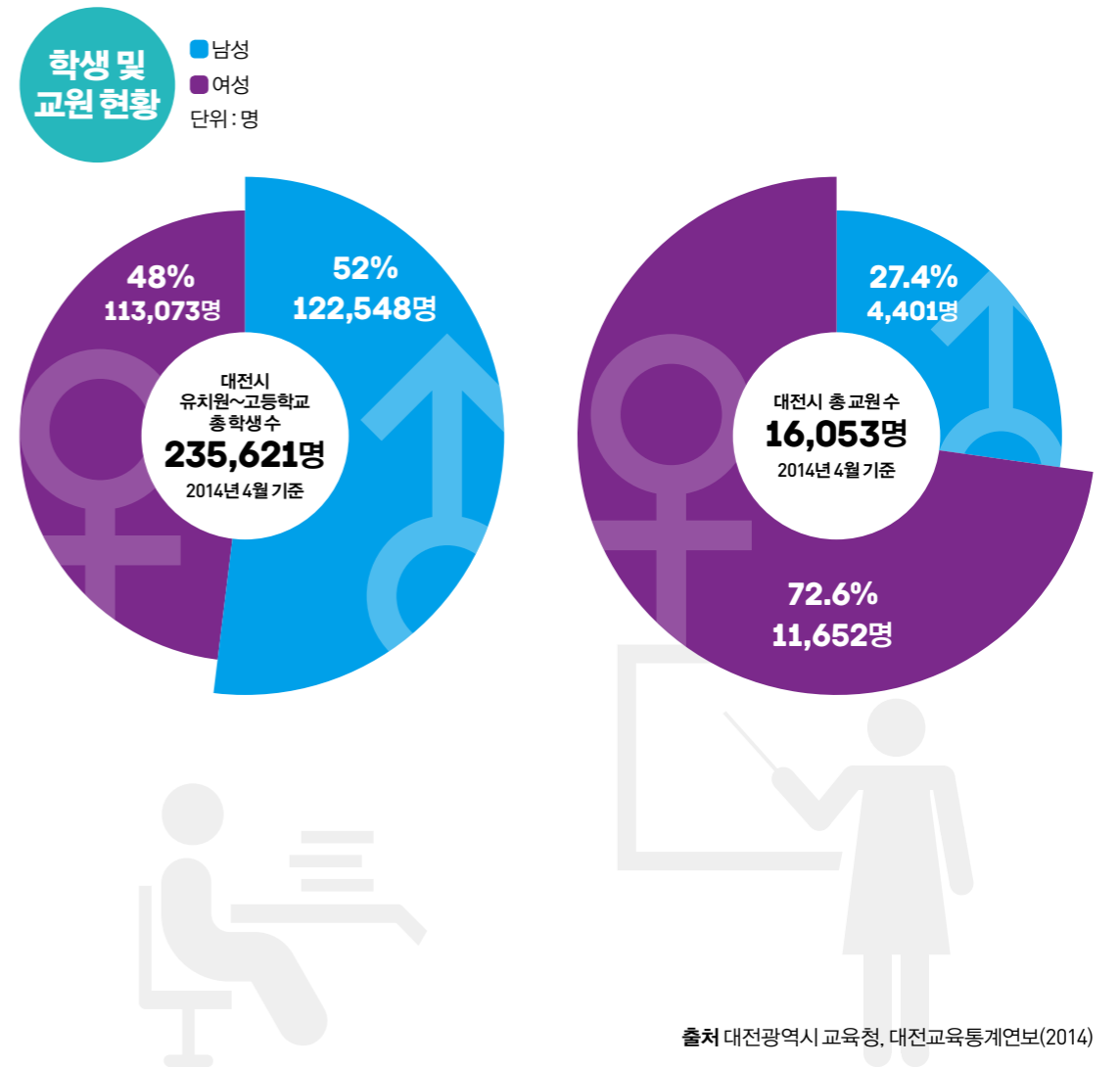
졸업 후 상황	졸업 후 상황 및 성별 진학자수
학생 및 교원현황	성별 학생, 교원 비율
학업중단 중학생현황	성별 학업중단 학생 수
학업중단 고등학생현황	성별 학업중단 학생 수
거주 지역 교육만족도	성별 거주 지역 교육만족도 비율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자 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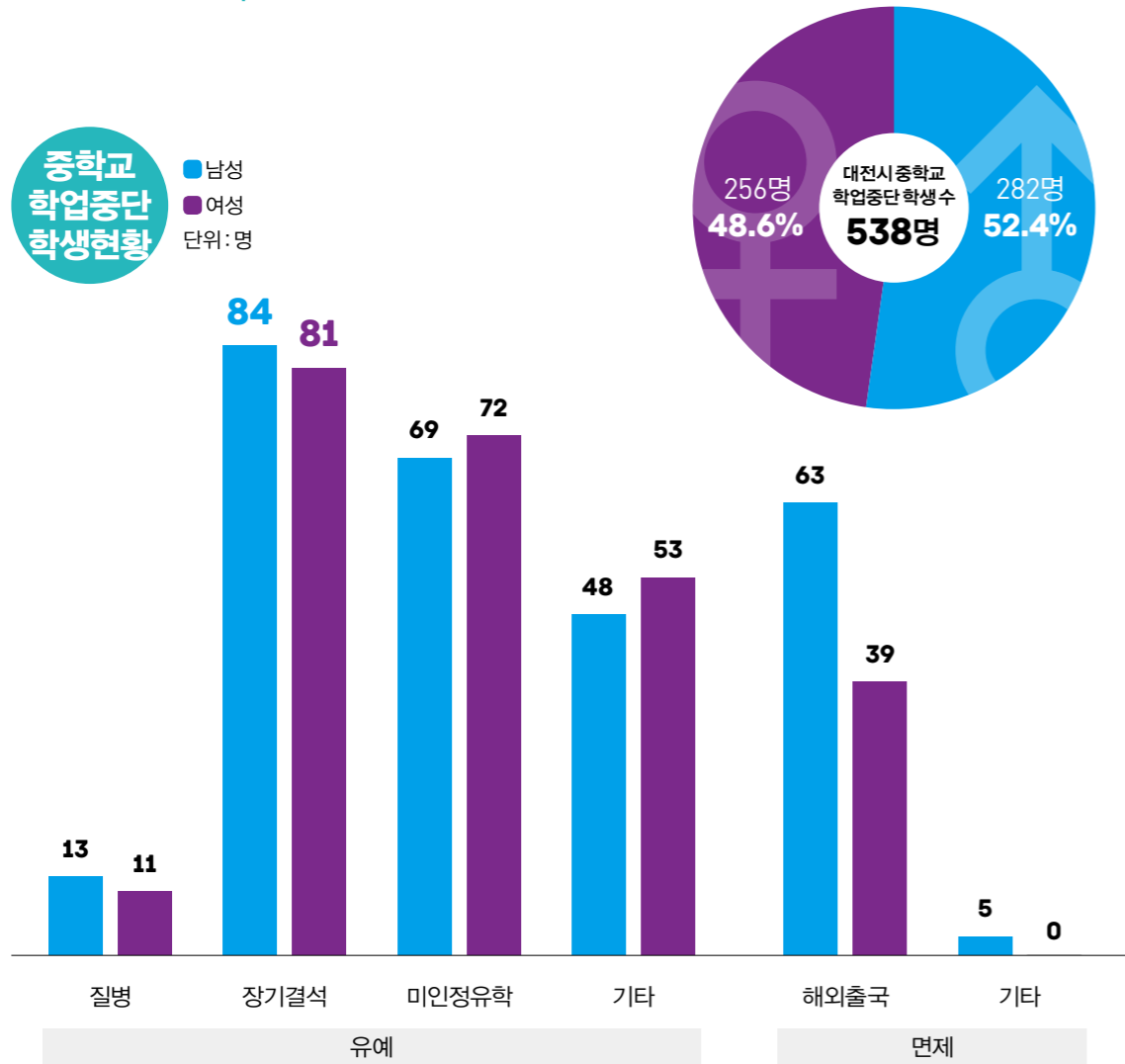
대전시 고등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살펴보면 총 졸업자 20,893명 중 국내대학, 각종 학교 등 상급학교로 '진학자' 15,797명(75.6%), '취업자' 1,877명(9%), '무직자' 2,053명(9.8%)이다. '진학자' 15,797명 중 여성(7,958명)이 남성(7,839명)보다 119명 더 많다.

대전의 학생은 남성이 많고, 교원은 여성이 많아



2014년 4월 기준 대전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학생 수는 235,621명으로 남학생이 52%(122,548명), 여학생 48%(113,073명)로 남학생이 더 많고, 교원의 경우 여성이 72.6%(11,652명)로 남성 27.4%(4,401명)보다 2.6배 더 많다.

중학교 학업중단 남학생이 4.8%p 더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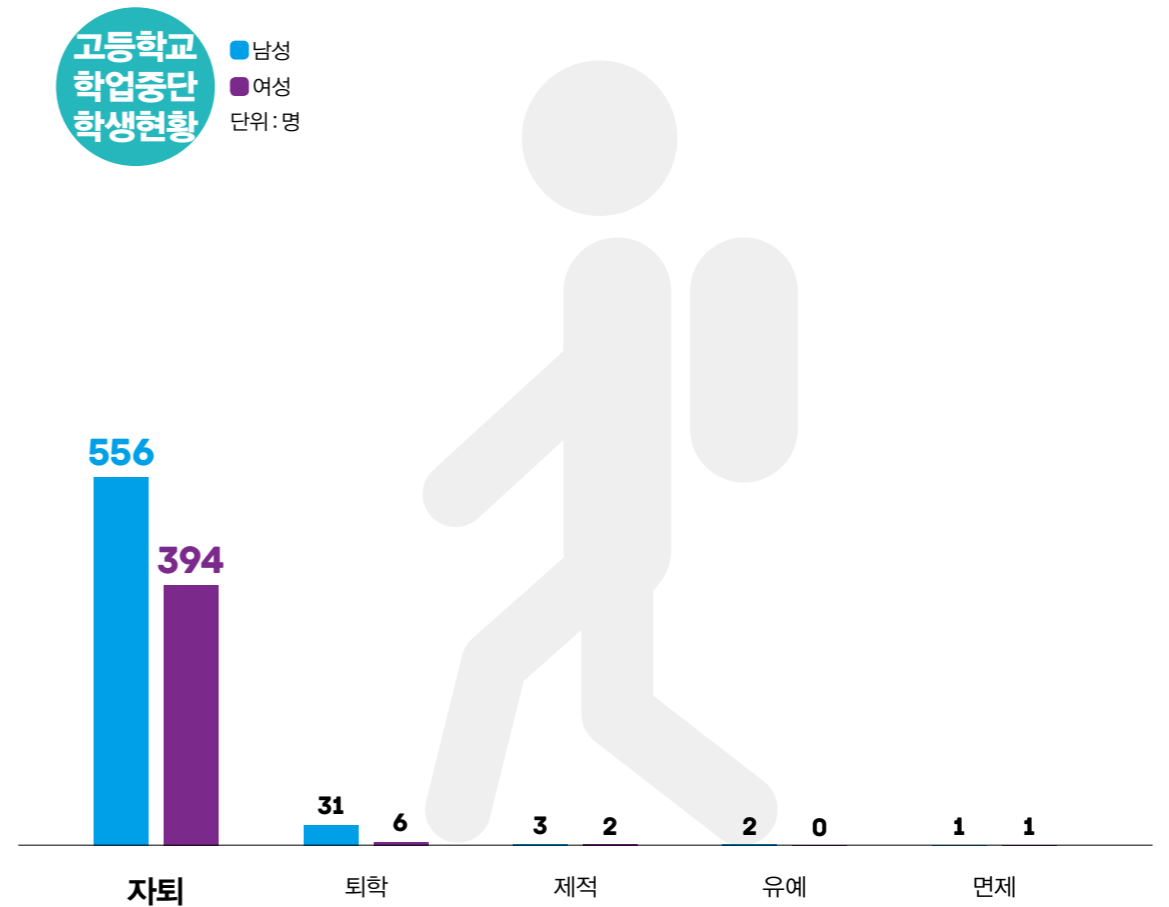


출처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교육통계연보(2014)

대전시 중학교 학업중단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남학생 282명(52.4%), 여학생 256명(47.6%)으로 남학생이 26명 많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장기결석'이 가장 많고, '미인정 유학', '해외출국' 순이다.

✚ 2013. 3. 1~ 2014. 2. 28. 학업중단 학생 현황

고등학교 학업중단 사유 자퇴가 95%



출처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교육통계연보(2014)

대전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은 995명으로 남학생 592명(60%), 여학생 403명(40%)으로 남학생이 20%더 많다. 학업중단 사유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자퇴'가 각각 94%, 98%로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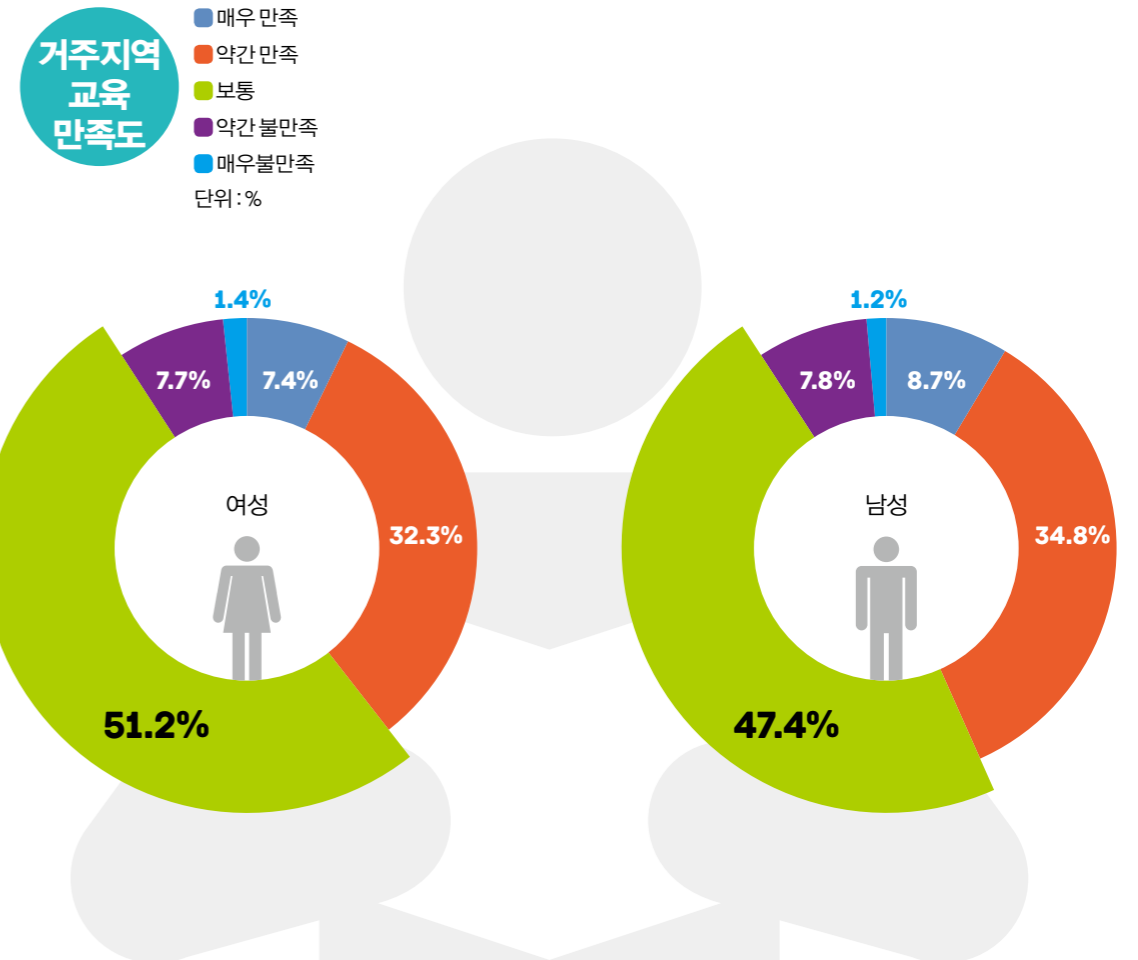
구별 학업중단 중학생 현황

구분		유예				면제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기타	해외출국	기타
동구	남성	2	16	3	7	1	0
	여성	2	8	2	2	0	0
중구	남성	1	19	4	5	3	2
	여성	4	13	8	9	2	0
서구	남성	5	26	27	16	24	0
	여성	5	29	29	28	19	0
유성구	남성	2	10	31	16	33	3
	여성	0	14	28	11	18	0
대덕구	남성	3	13	4	4	2	0
	여성	0	17	5	3	0	0

구별 학업중단 고등학생 현황

구분		자퇴	퇴학	제적	유예	면제
		남성	72	5	1	0
동구	여성	39	1	1	0	0
	남성	93	0	0	0	0
중구	여성	117	0	0	0	0
	남성	110	0	0	2	0
서구	여성	93	0	0	0	0
	남성	201	18	2	0	0
유성구	여성	120	5	1	0	0
	남성	80	8	0	0	0
대덕구	여성	25	0	0	0	1

대전시 교육환경에 41.6%가 만족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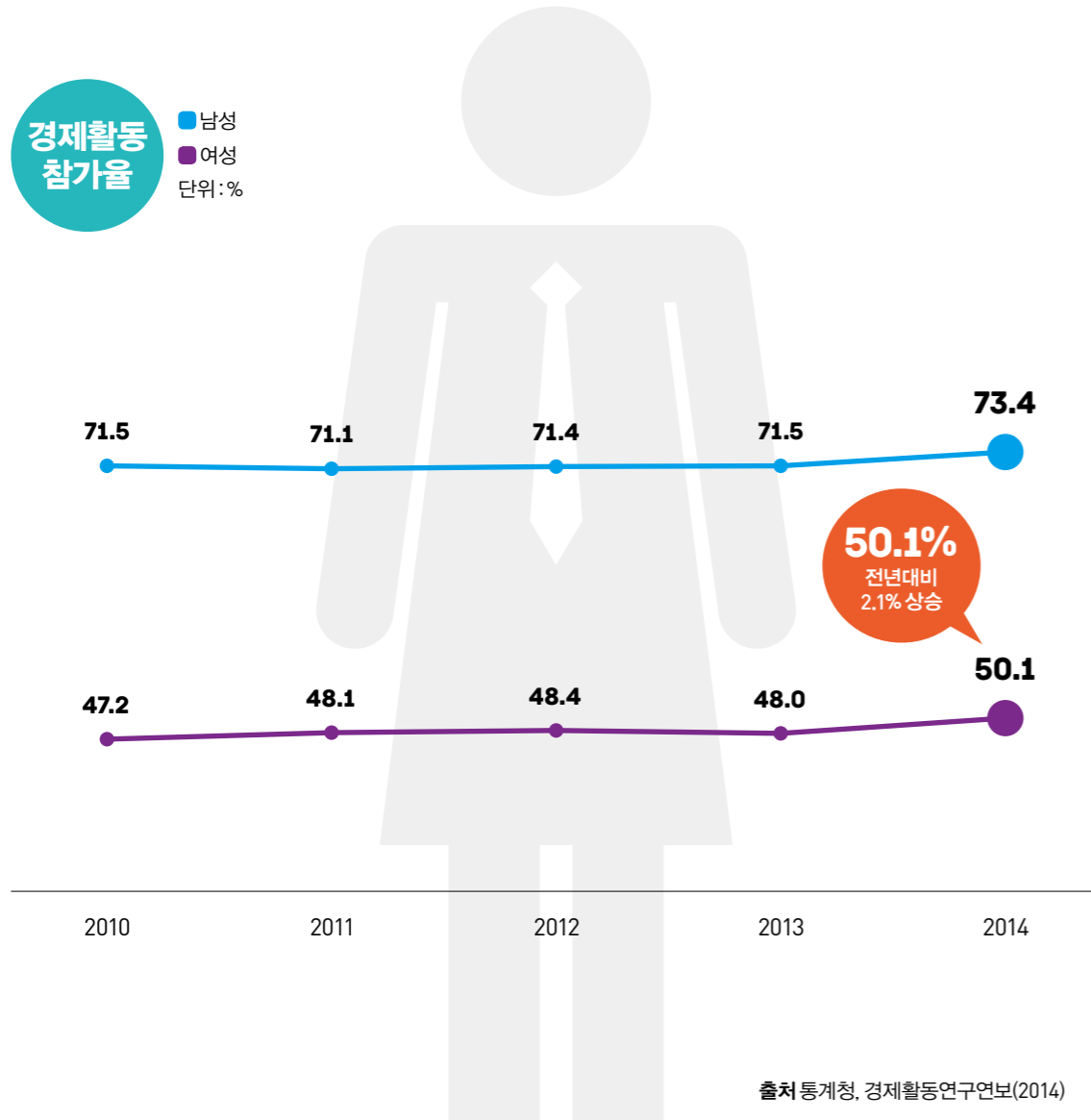
대전시민은 거주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 41.6%가 '만족(매우만족 8%, 약간만족 33.5%)'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점 만점 평균 3.39점으로 '다소 만족'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성(43.5%)이 여성(39.7%)보다 '만족' 비율이 높다.

6.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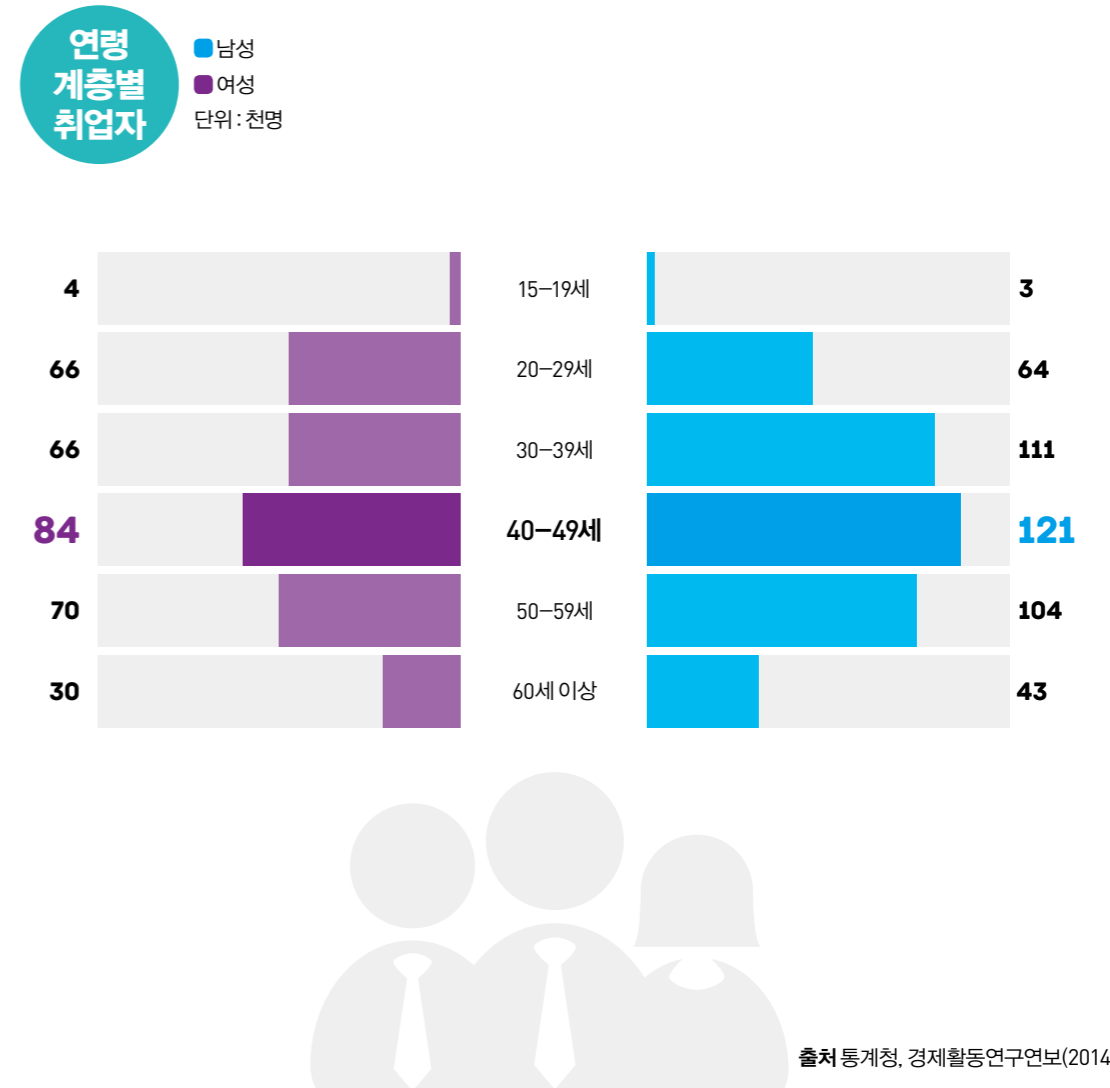
6-1 경제활동	경제활동 참가율	성 및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연령계층별 취업자	성 및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교육정도별 취업자	성 및 교육정도별 취업자 수
	산업별취업자	성 및 산업별 취업자 수
	직업별취업자	성 및 직업별 취업자 수
	중사상지위별취업자	성 및 중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6-2 비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인구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실업률	성 및 연도별 실업률
	경력단절여성 규모	2013, 2014 경력단절여성규모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61.5% 전년 대비 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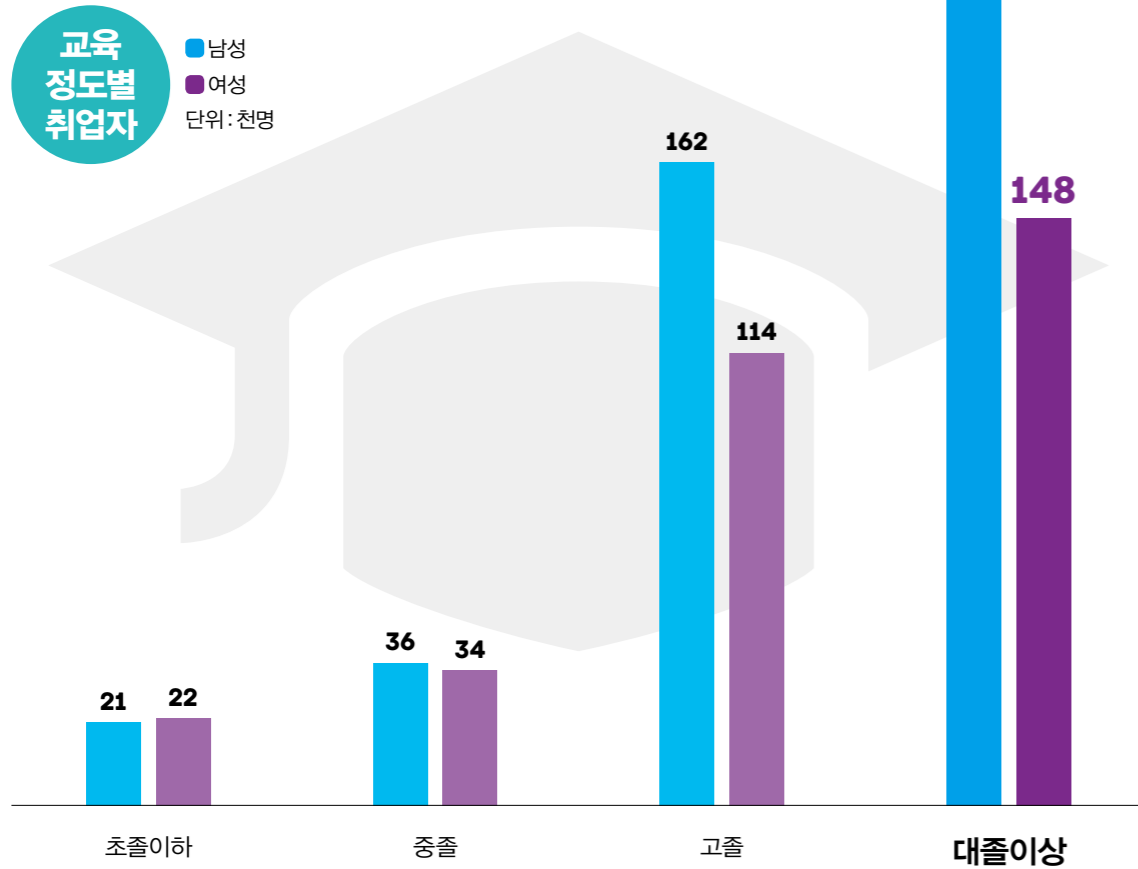
대전시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추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 2014년 73.4%로 전년 대비 1.9%p 소폭 상승하였고, 여성은 2010년 47.2%에서 조금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50.1%로 전년대비 2.1%p 증가했다.

연령계층별 취업 현황, 남성 여성 모두 40대가 가장 높아



대전 시민의 2014년 연령계층별 취업자 현황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40대가 121천명(27.1%), 30대 111천명(24.8%), 50대 104천명(23.3%), 20대 64천명(14.3%)순으로 나타났고, 여성도 40대가 84천명(26.3%)으로 가장 많고, 50대 70천명(21.9%), 30대 66천명(20.7%), 20대 66천명(20.7%)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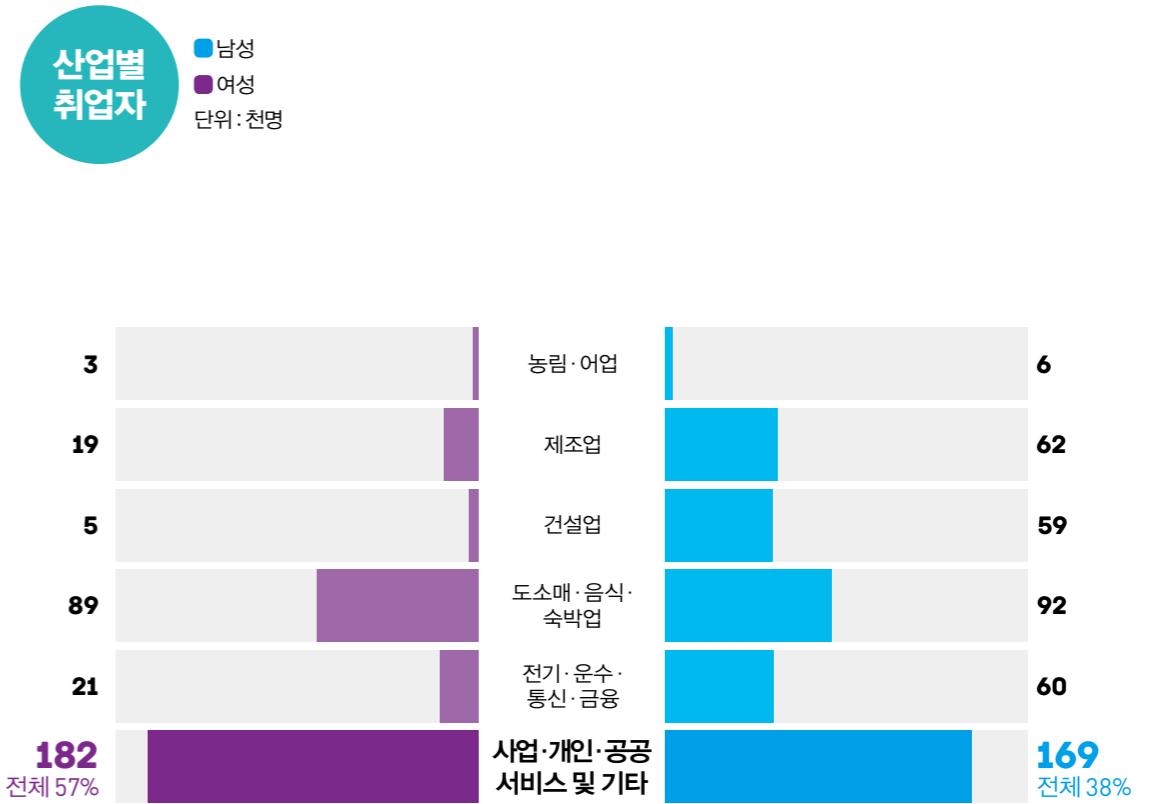
남성, 여성 모두 대졸 취업자가 가장 많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연구연보(2014)

2014년 대전 취업자를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남성 51%, 여성 46.4%가 '대졸 이상'이고, '고졸'(36.2%, 35.7%), '중졸'(8.1%, 10.7%), '초졸 이하'(4.7%, 6.9%)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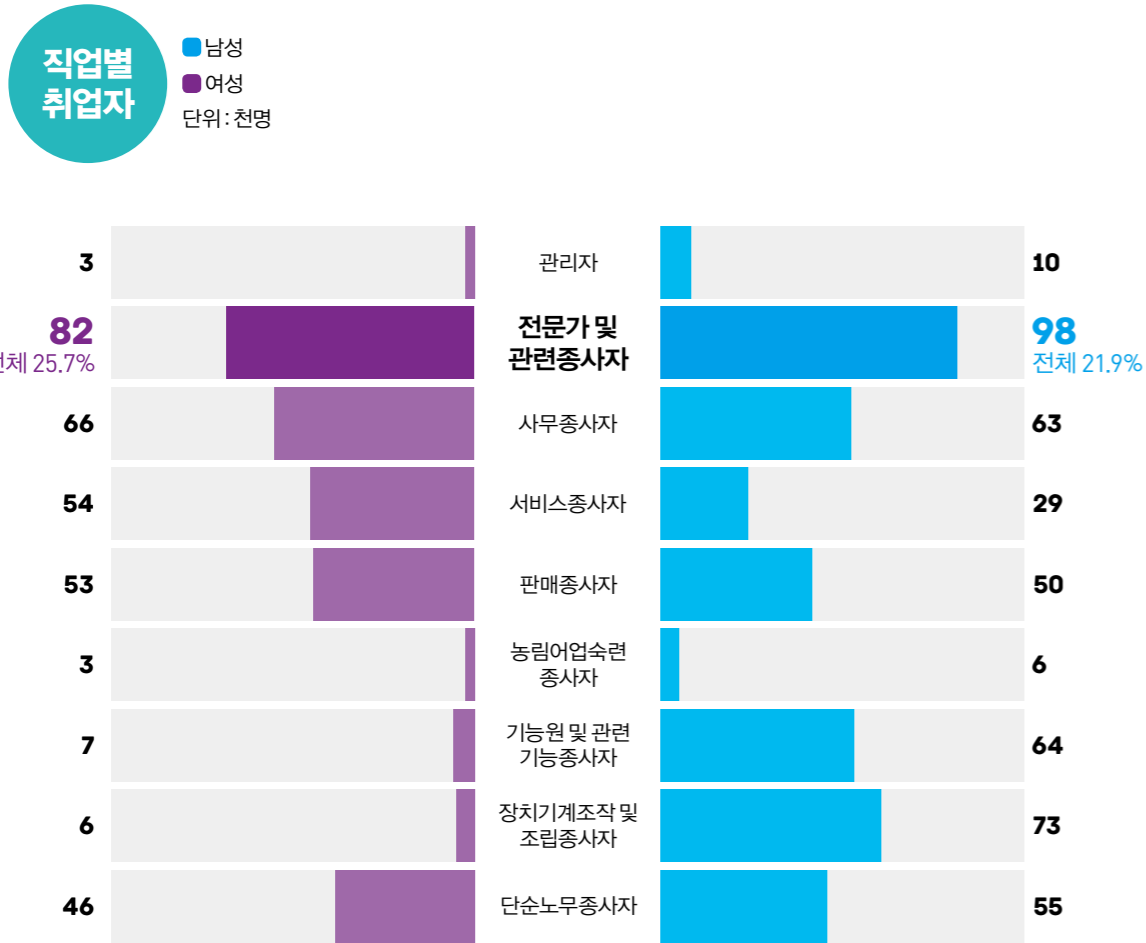
대전 시민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에 가장 많이 종사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연구연보(2014)

대전시 산업별 취업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취업자 319천명 중 57%(182천명)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이 27.9%로 89천명이 종사한다. 남성의 경우 전체 취업자는 447천명으로 38%가 '사업 및 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 20.6%, '제조업' 13.9%, '전기·운수·통신·금융' 13.4%, '건설업' 13.2% 순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업종에 가장 많이 종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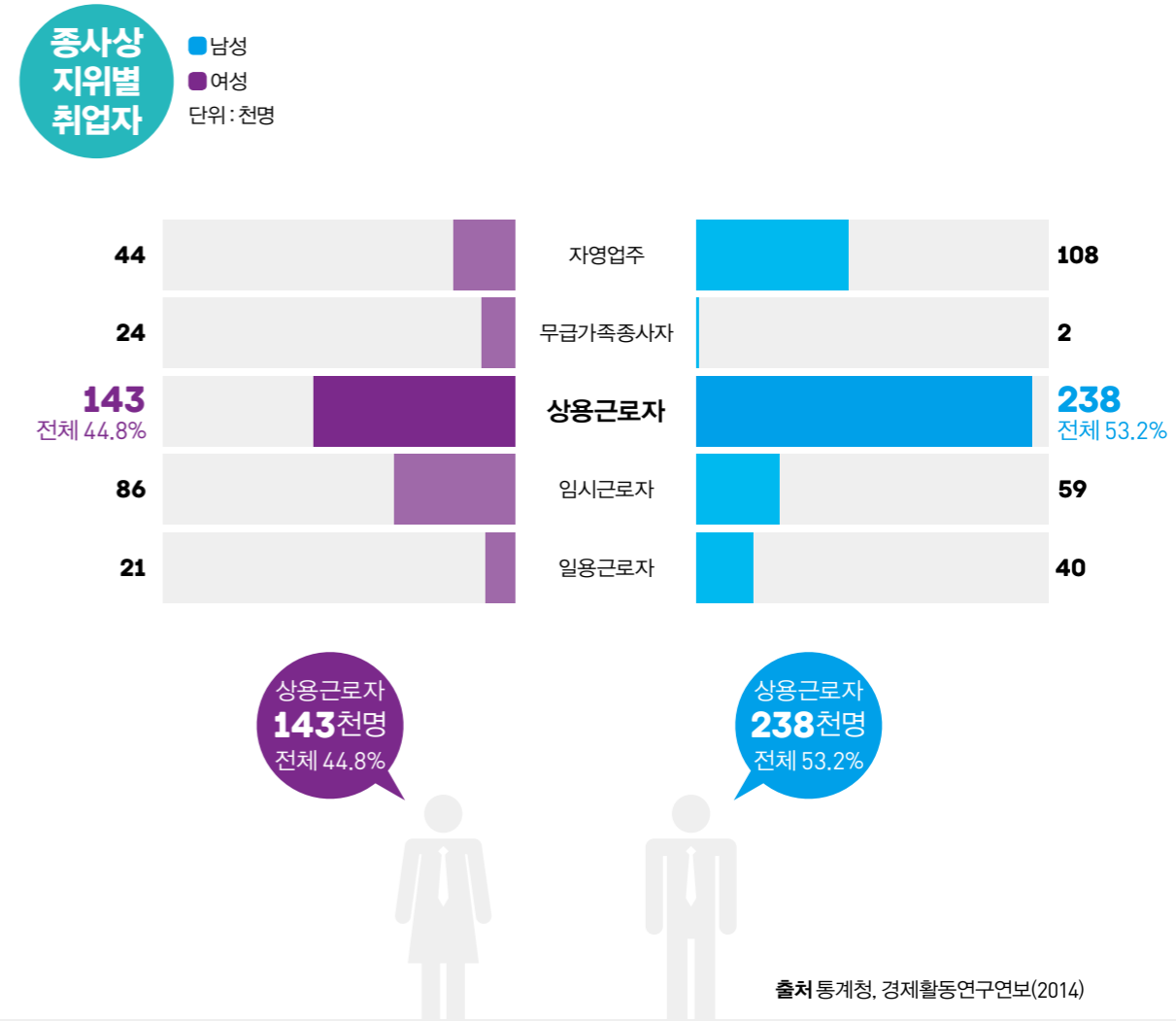
대전 취업자 직업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가장 많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연구연보(2014)

대전 취업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각각 98천명(21.9%), 82천명(25.7%)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 남성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6.3%),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4.3%), '사무종사자'(14.1%), '단순노무종사자'(12.3%), '판매종사자'(11.2%) 순이고, 여성은 '사무종사자'(20.7%), '서비스종사자'(16.9%), '판매종사자'(16.6%), '단순노무종사자'(14.4%)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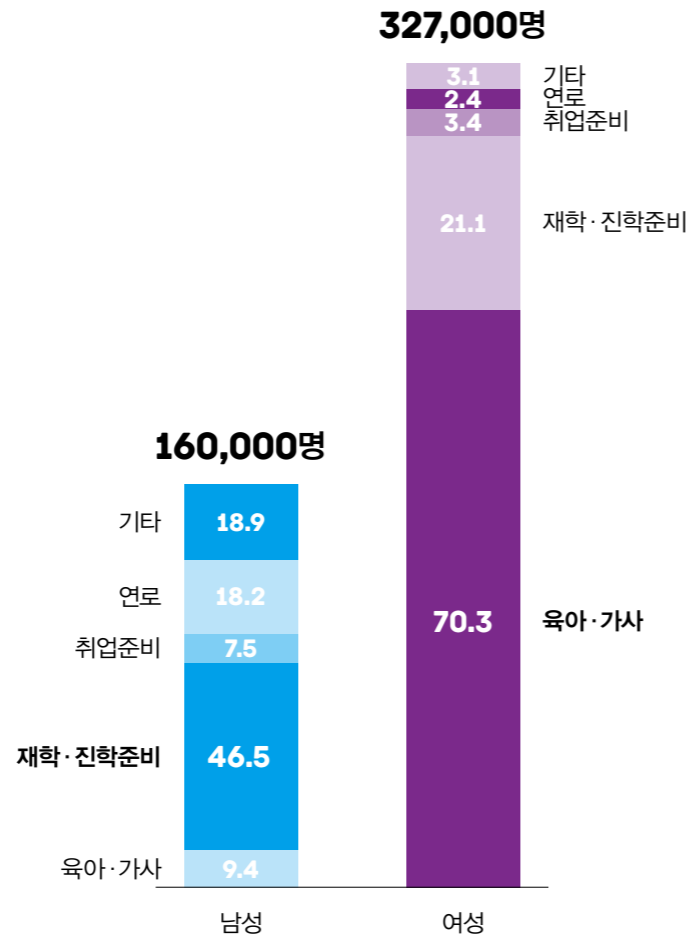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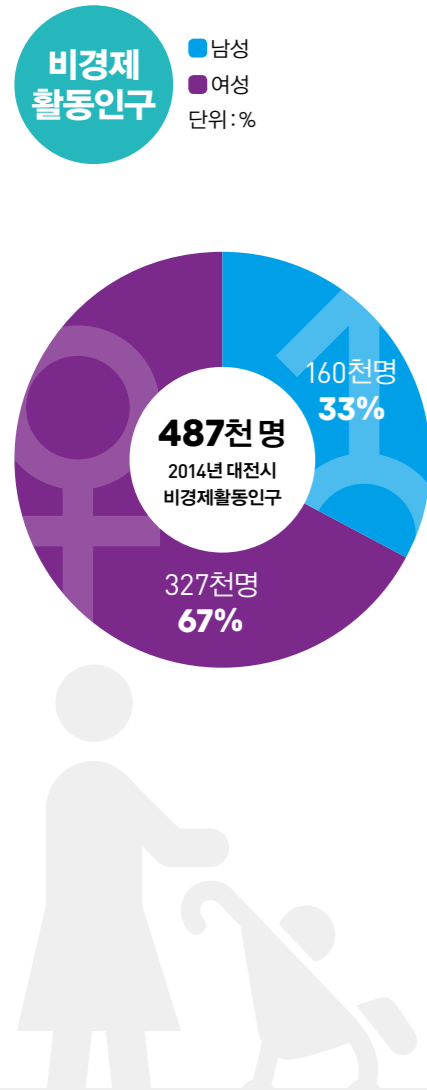
대전 취업자 10명 중 5명 상용근로자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연구연보(2014)

대전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각각 53.2%, 44.8%로 가장 많다. 남성은 '자영업주'(24.2%), '임시근로자'(13.2%), '일용근로자'(8.9%), '무급가족종사자'(8.9%)순이고, 여성은 '임시근로자'(27.0%), '자영업주'(13.8%), '무급가족종사자'(7.5%), '일용근로자'(6.6%)순으로 지위별 취업 분포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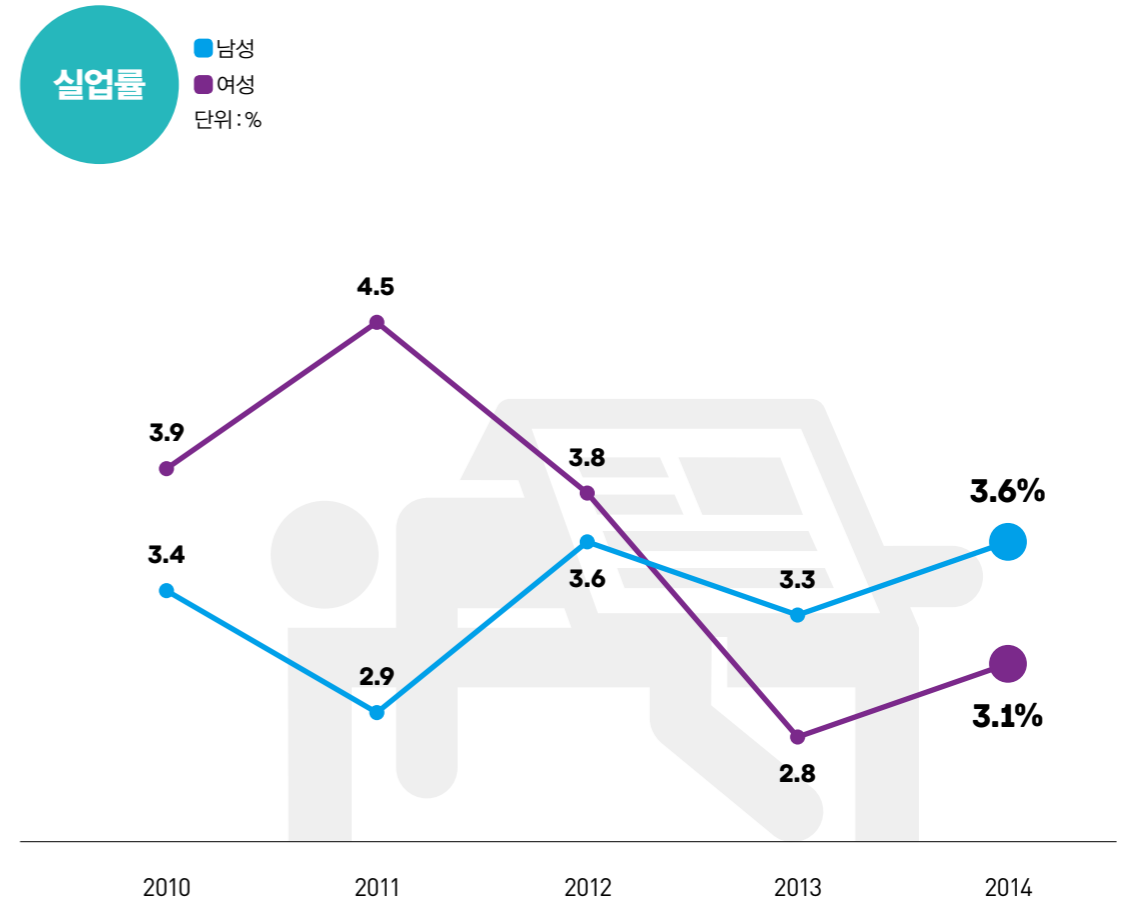
대전시 비경제활동인구의 67% 여성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4)

2014년 대전시 비경제활동인구는 모두 487천명이며, 이중 여성은 327천명으로 67%에 해당한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70.3%가 '육아 및 가사를 하고 있는 반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9.4%만이 '육아 및 가사를 담당한다.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은 '재학, 진학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실업률 3.4%로 전년대비 0.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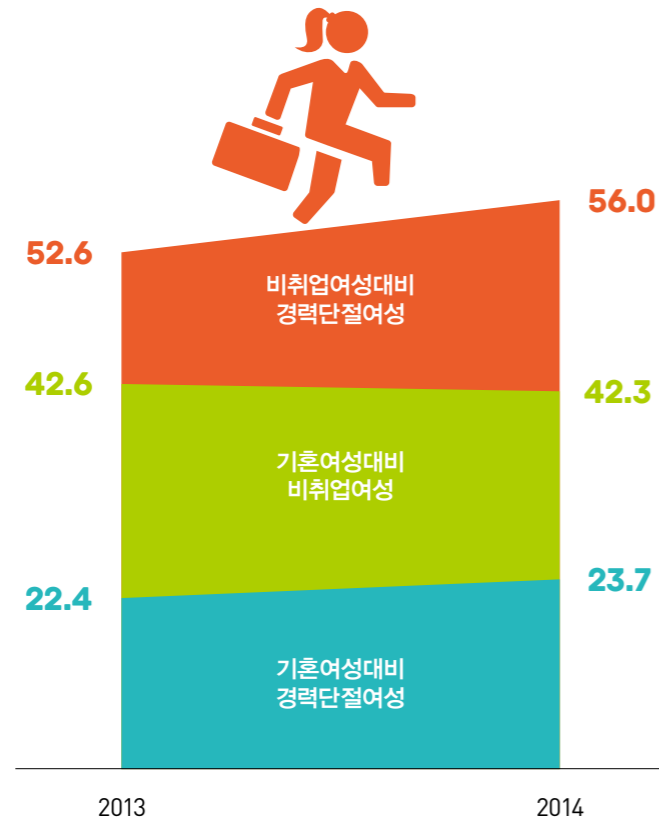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대전시 2014년 실업률을 살펴보면 3.4%로 전년대비 0.3%p 상승했다. 성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2010년 3.4%에서 2014년 3.6%로 소폭 상승했고, 여성은 2010년 3.9%에서 2014년 3.1%로 0.8%p 감소했다.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대전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전년대비 3.4%p 증가

**경력단절
여성 규모**
단위: %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4)

대전시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율을 전년과 비교해보면 2013년 4월 기준 22.4%에서 2014년 4월 23.7%로 1.3%p 증가했다.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전년대비 3.4%p 증가한 56%이다.

※ 경력단절여성: 15-6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취업이 아닌 여성으로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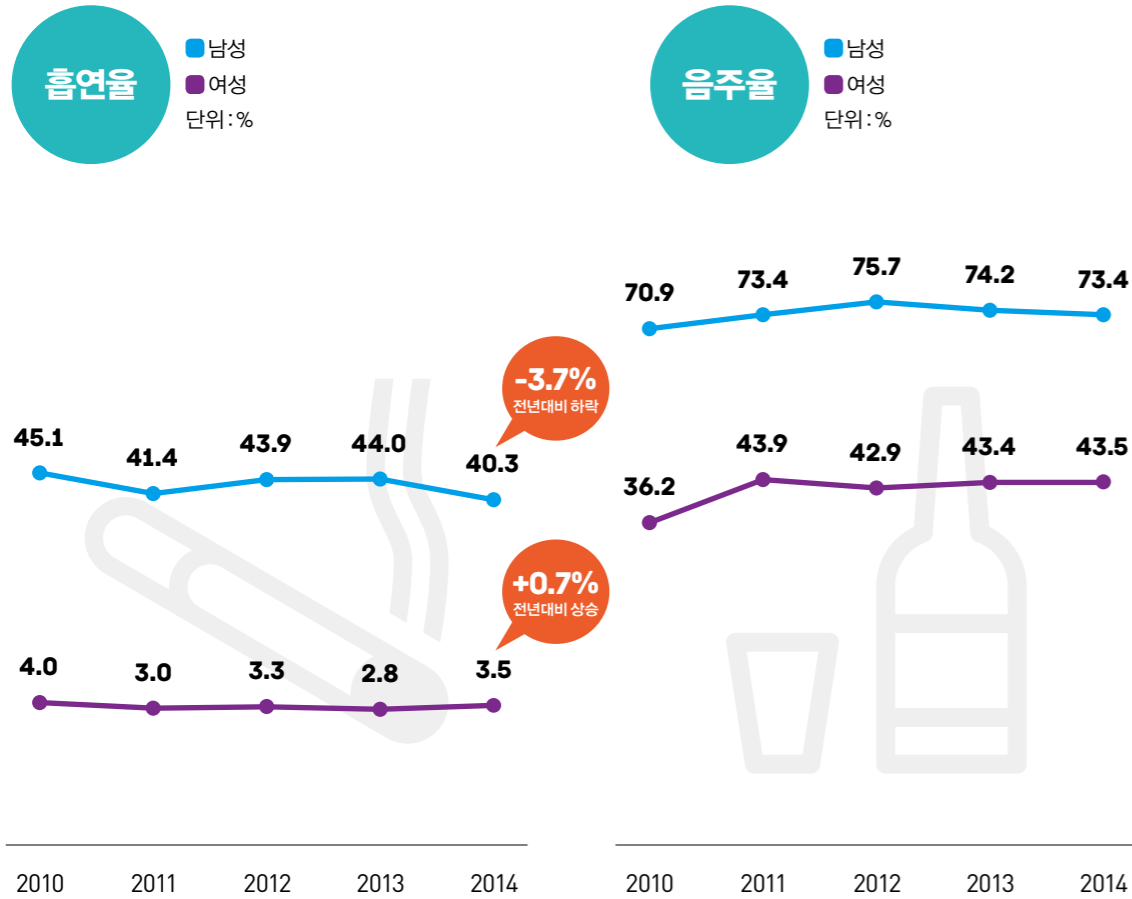
DAEJEON
GENDERSENSITIVE
STATISTICS

7. 보건 및 복지



7-1 보건	흡연율 및 음주율	성 및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	성별 이용 의료시설 비율
	암 검진수검률	성별 암 검진수검율
	평균운동시간	성별 평균 운동일수, 시간
	비만율	성 및 연도별 비만율
	스트레스 인지율	성 및 연도별 스트레스 인지율
7-2 복지	국민연금가입자	성 및 연령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	성별 생활비마련방법 비율
	노인의 고충문제	성별 고충문제 비율
	장애인등록현황	성 및 자치구별 장애인등록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성 및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한부모 가족 현황	자치구별 한부모 가족수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대상 비율

대전시 흡연율 22.1%, 음주율 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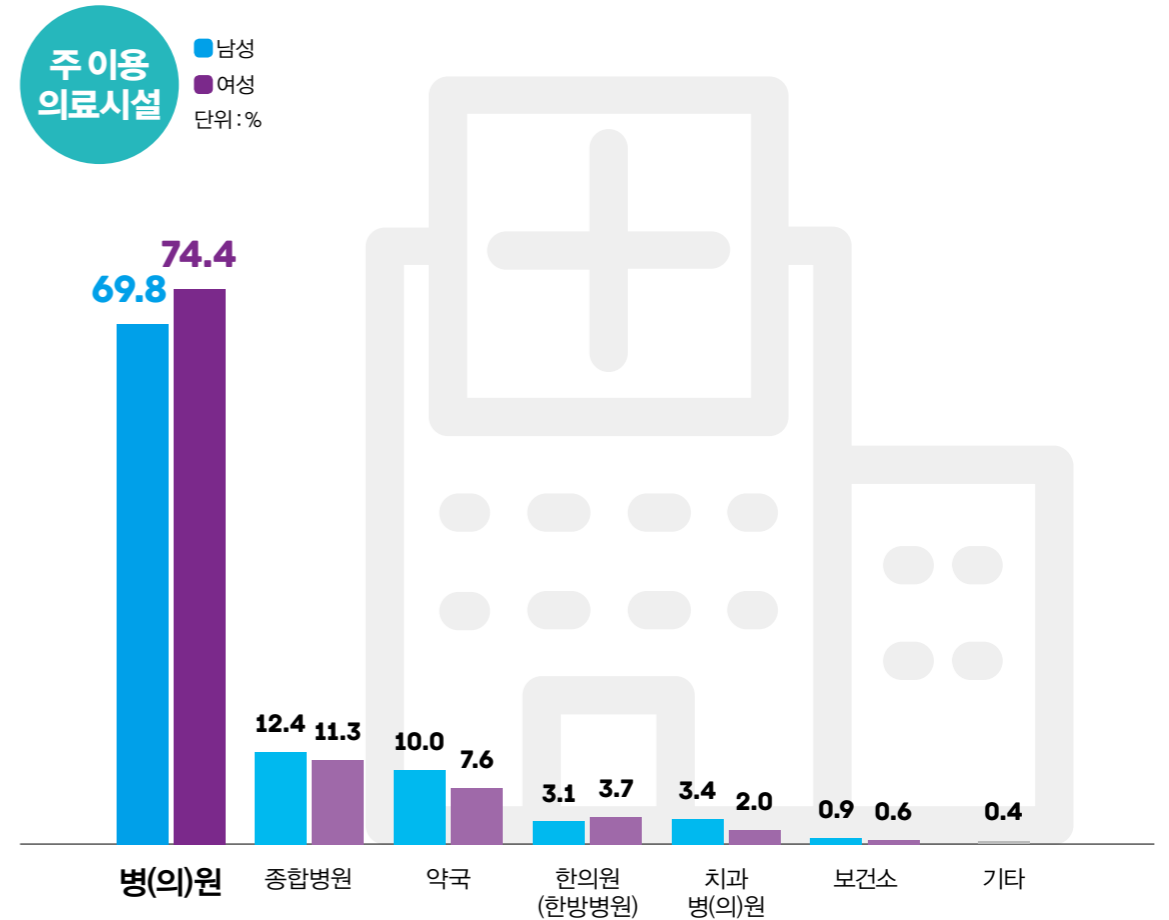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2014)

2014년 대전시의 흡연율은 22.1%로 전년 대비 1.3%p 감소하였으며, 성별로 남성은 감소한 반면 여성은 증가했다. 2014년 음주율은 59.5%로 작년과 동일하여 변화가 없다. 성별 음주율은 남성의 경우 2014년 73.4%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성은 0.1%p 증가했다.

✦ 흡연율: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매일 피움, 가끔 피움)분율
음주율: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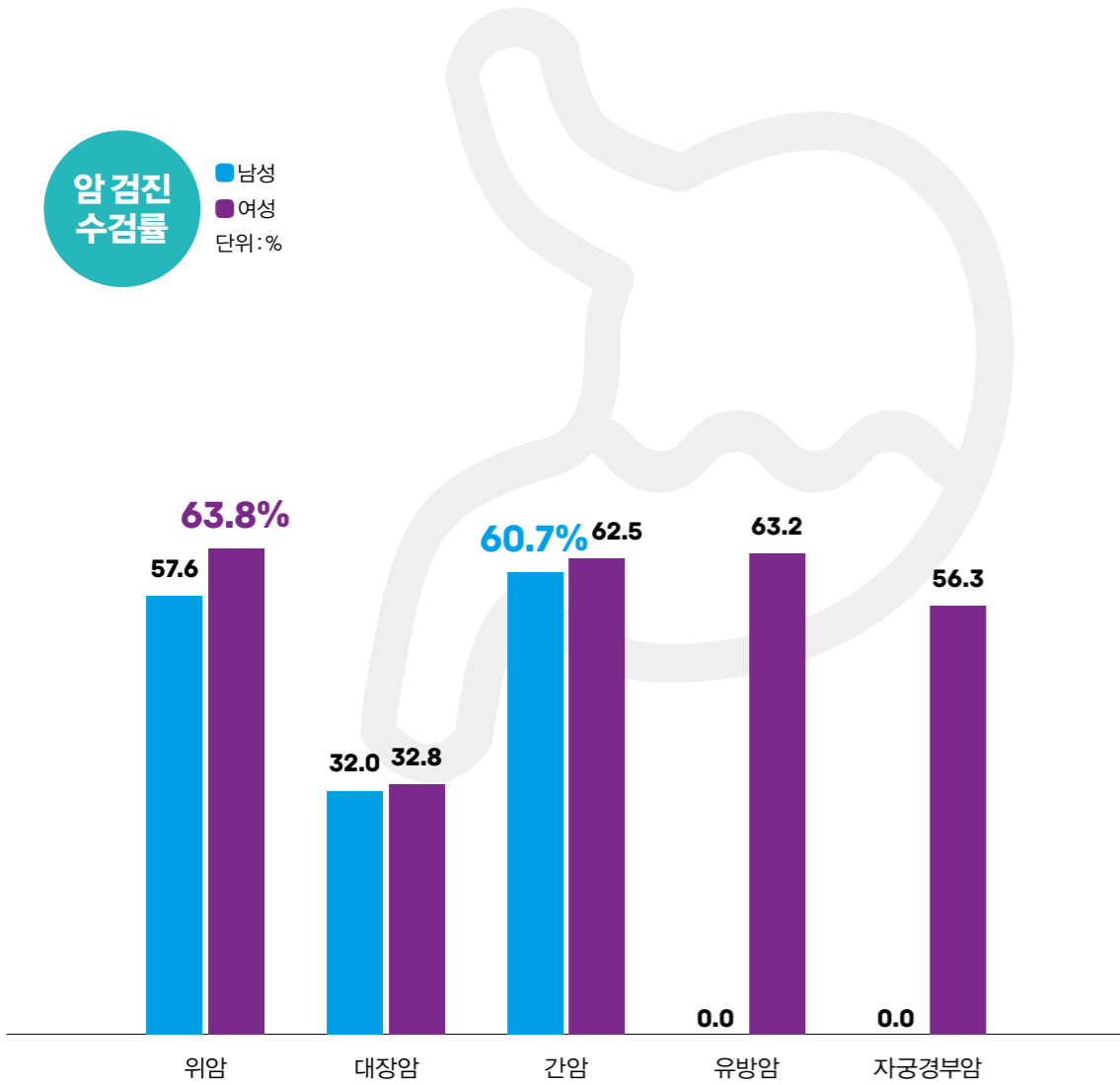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은 병(의)원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2014년 대전 시민 3명 중 2명 이상(72.2%)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로 '병(의)원'을 꼽았으며, 이어서 종합병원(11.8%), 약국(8.8%), 한의원(3.4%) 순이다. 성별로 보면 병의원은 여성의 비율이 74.4%로 남성 69.8%보다 높고, 종합병원은 남성 12.4%, 여성 11.3%로 남성의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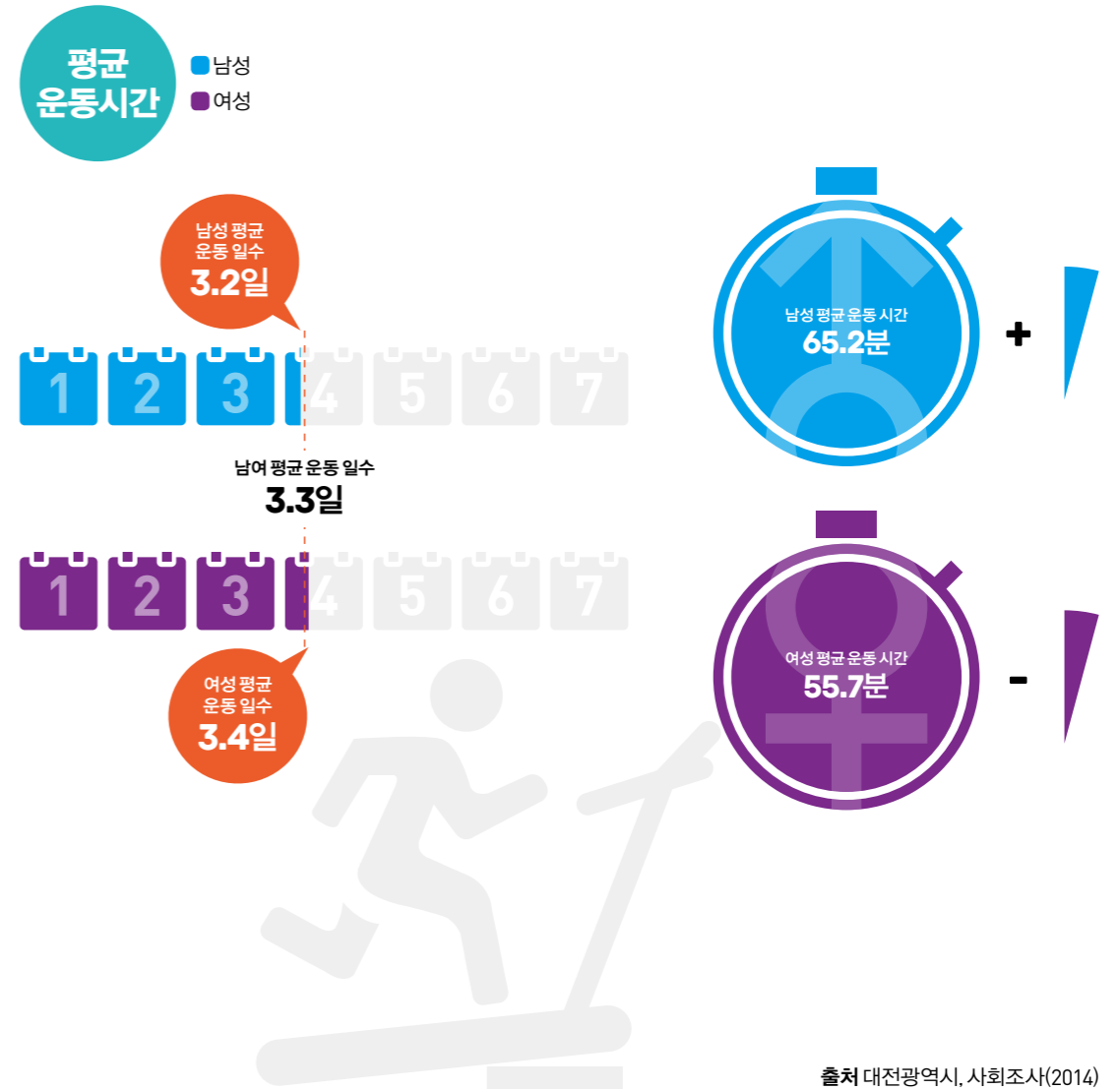
대전 시민 5대 암 수검률 49.3%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2013)

암 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대상인원은 남성 237,622명, 여성 306,799명으로 나타났고, 수검인원은 각각 110,157명, 158,394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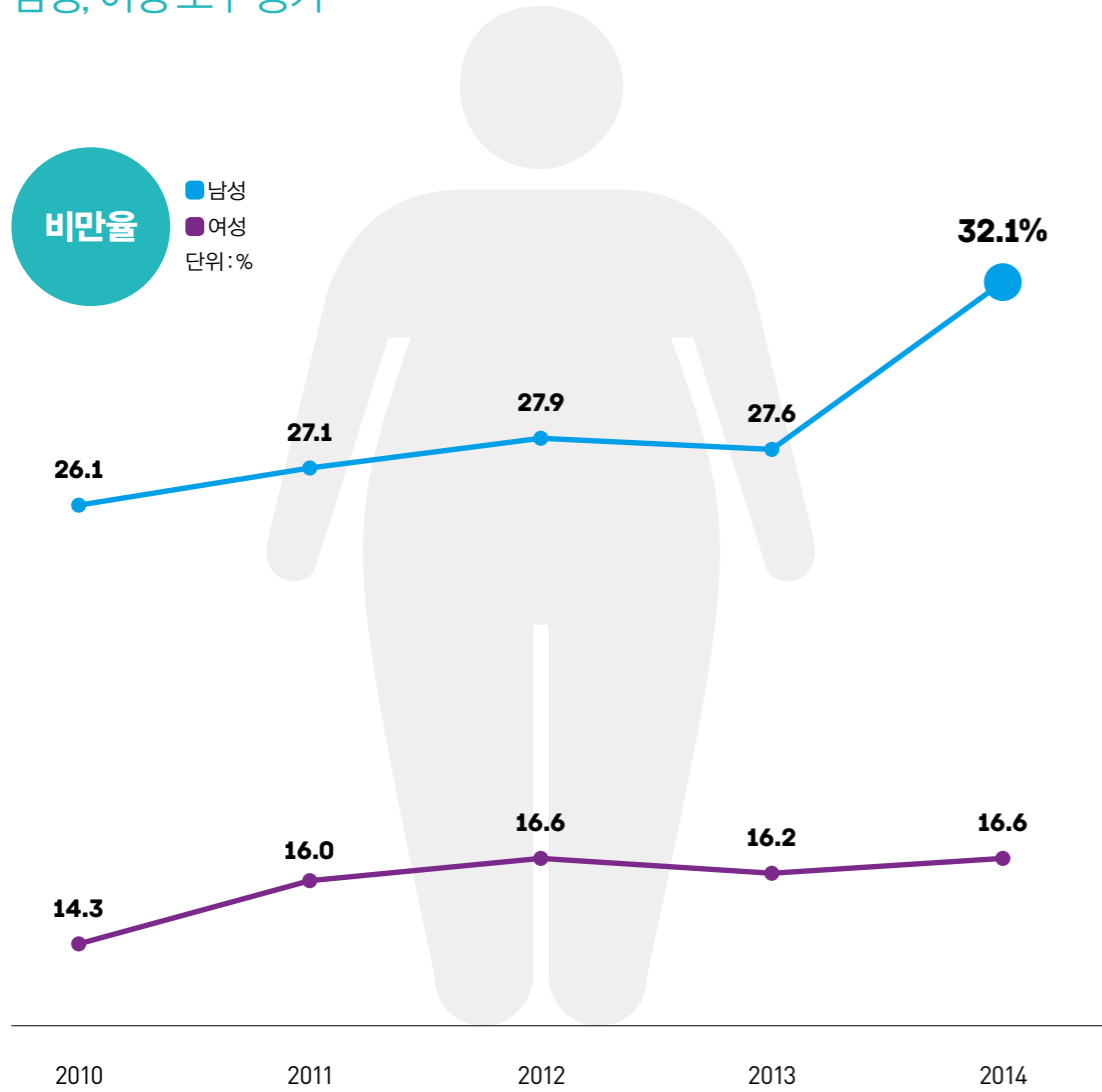
대전시민 평균 운동시간 1주일 3.3일, 평균 1시간 운동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2014년 대전시민의 53.7%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 일수는 1주일에 평균 3.3일이며, 1회 운동 시 평균 1시간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일 수는 여성이 더 높지만 운동시간은 남성이 더 길다.

2014년도 비만을 남성, 여성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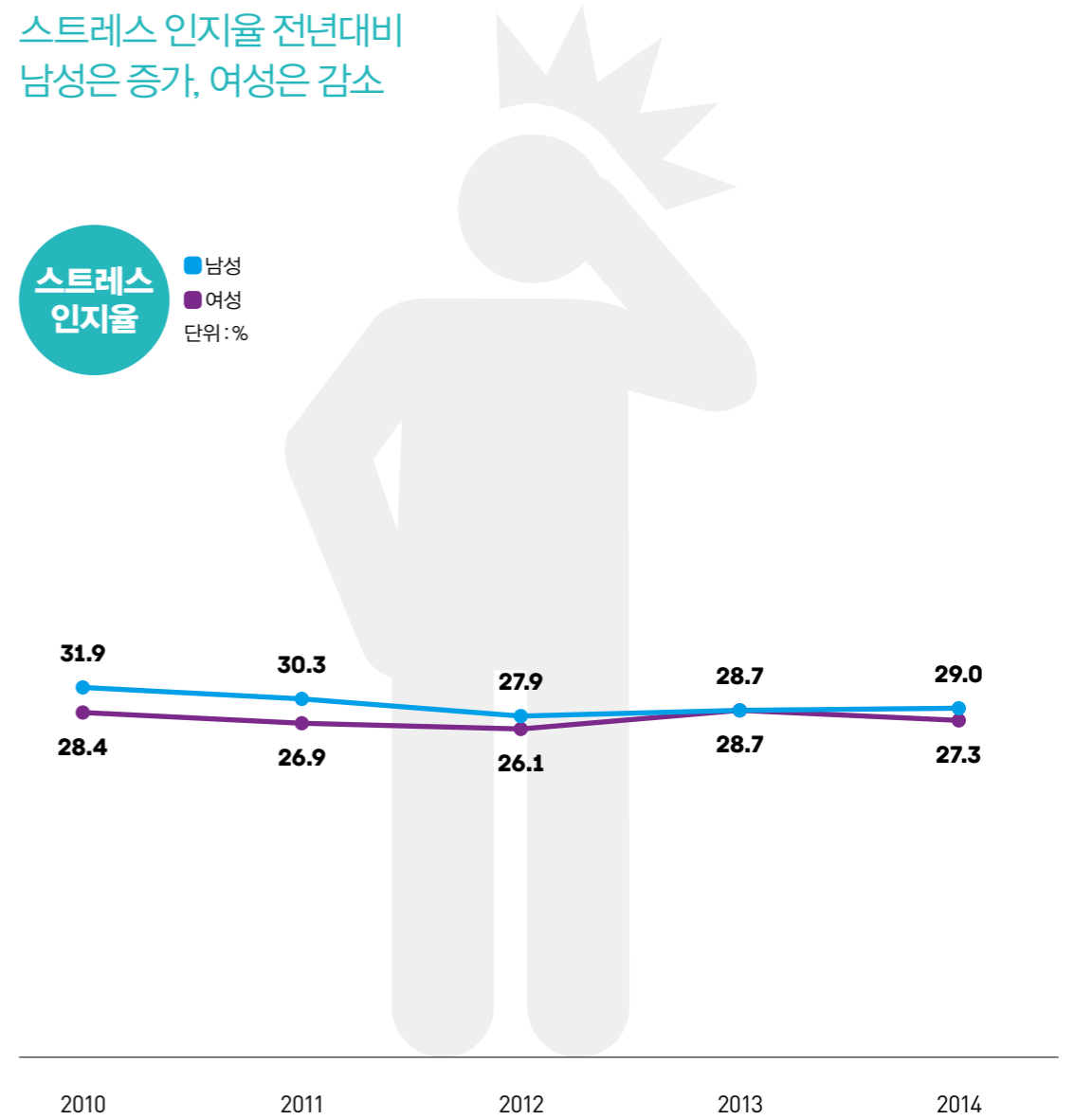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2014)

대전 시민의 비만을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2014년 32.1%로 전년대비 4.5%p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2014년 16.6%로 전년대비 0.4%p 소폭 증가했다.

✦ 비만율(자기기입): 체질량지수(kg/m²)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

스트레스 인지율 전년대비 남성은 증가, 여성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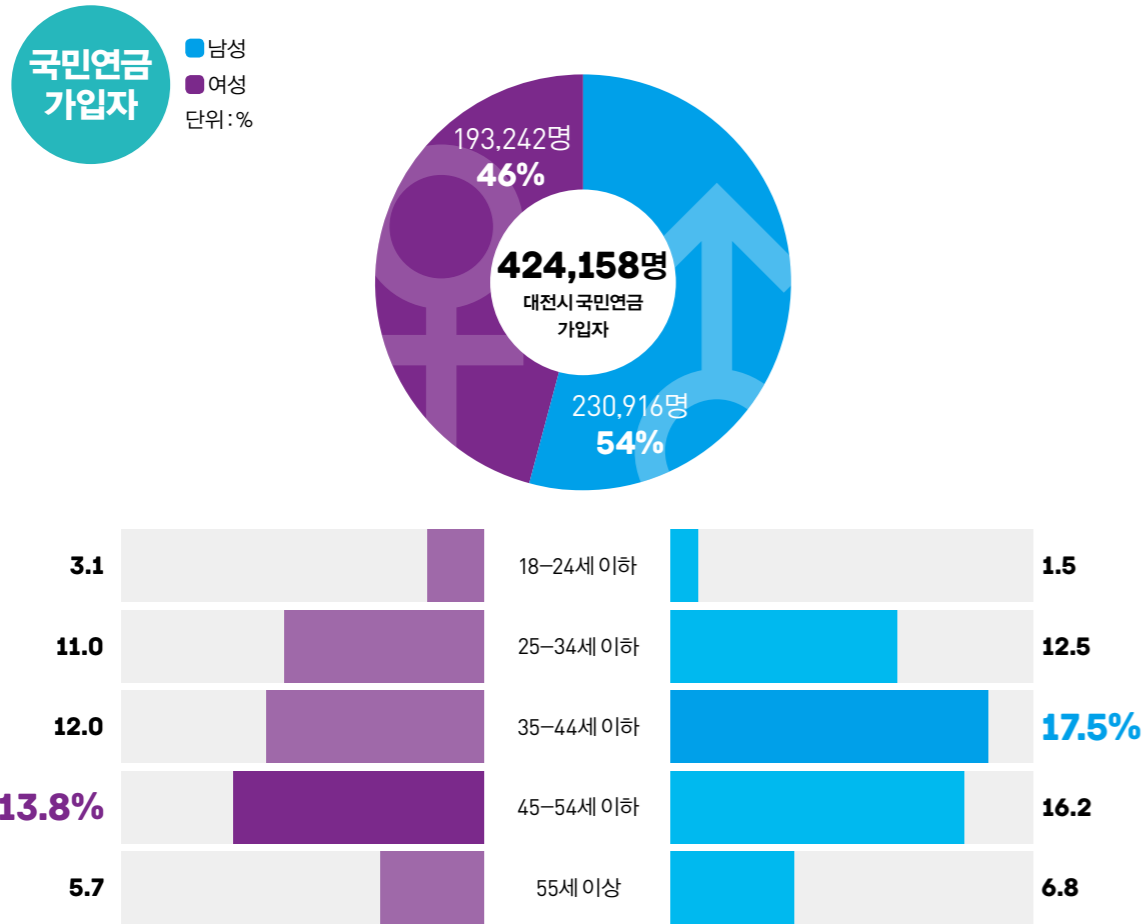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2014)

대전 시민의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남성 31.9%, 여성 28.4%에서 2012년 남성 27.9%, 여성 26.1%로 소폭하락 한 후 2014년 남성 29%, 여성 27.3%로 다시 상승했다.

✦ 스트레스 인지율: 평소 일상생활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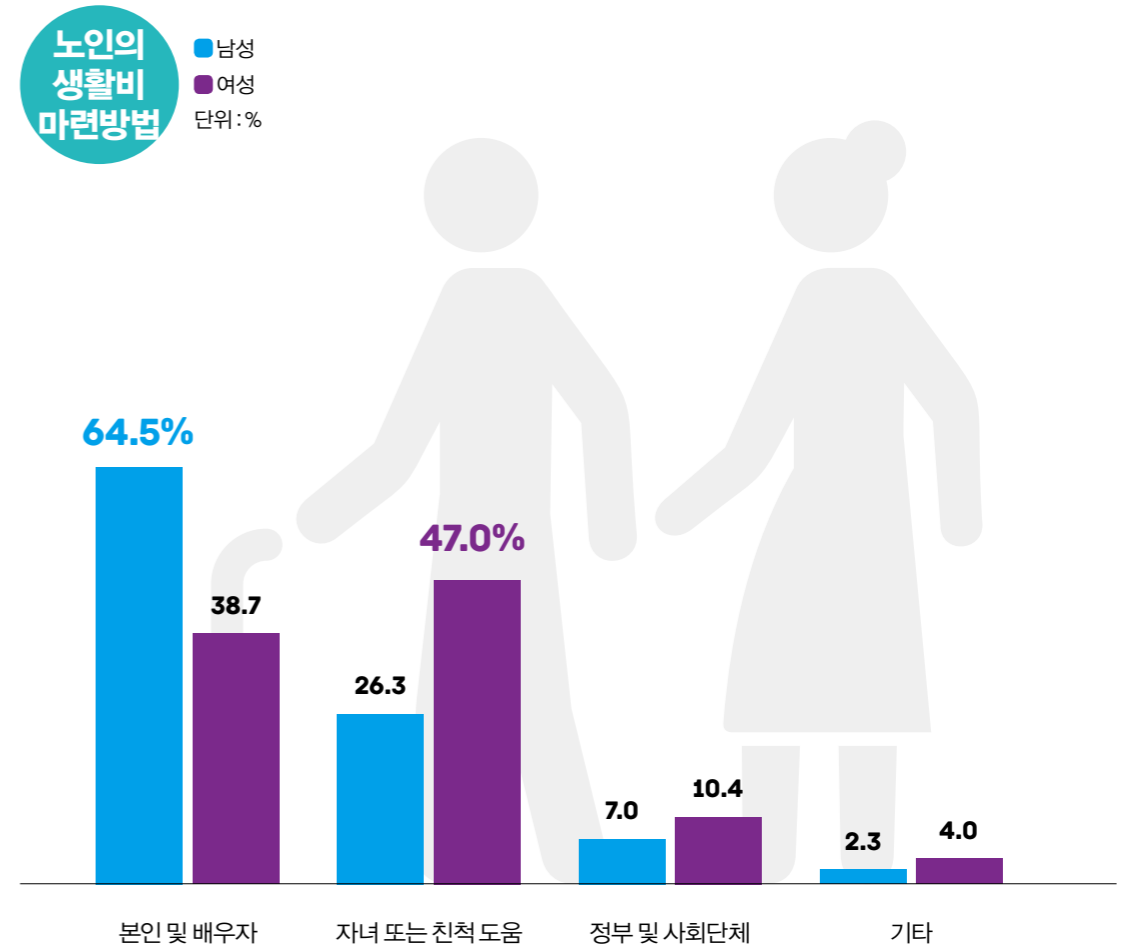
대전시 여성 중 국민연금 가입은 46%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2013)

대전시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424,158명으로 그중 여성은 193,242명, 남성 230,916명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54%, 여성은 46%이다. 연령별 가입자의 성별비율은 여성은 '45-54세 이하' 13.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35-44세 이하'가 17.5%로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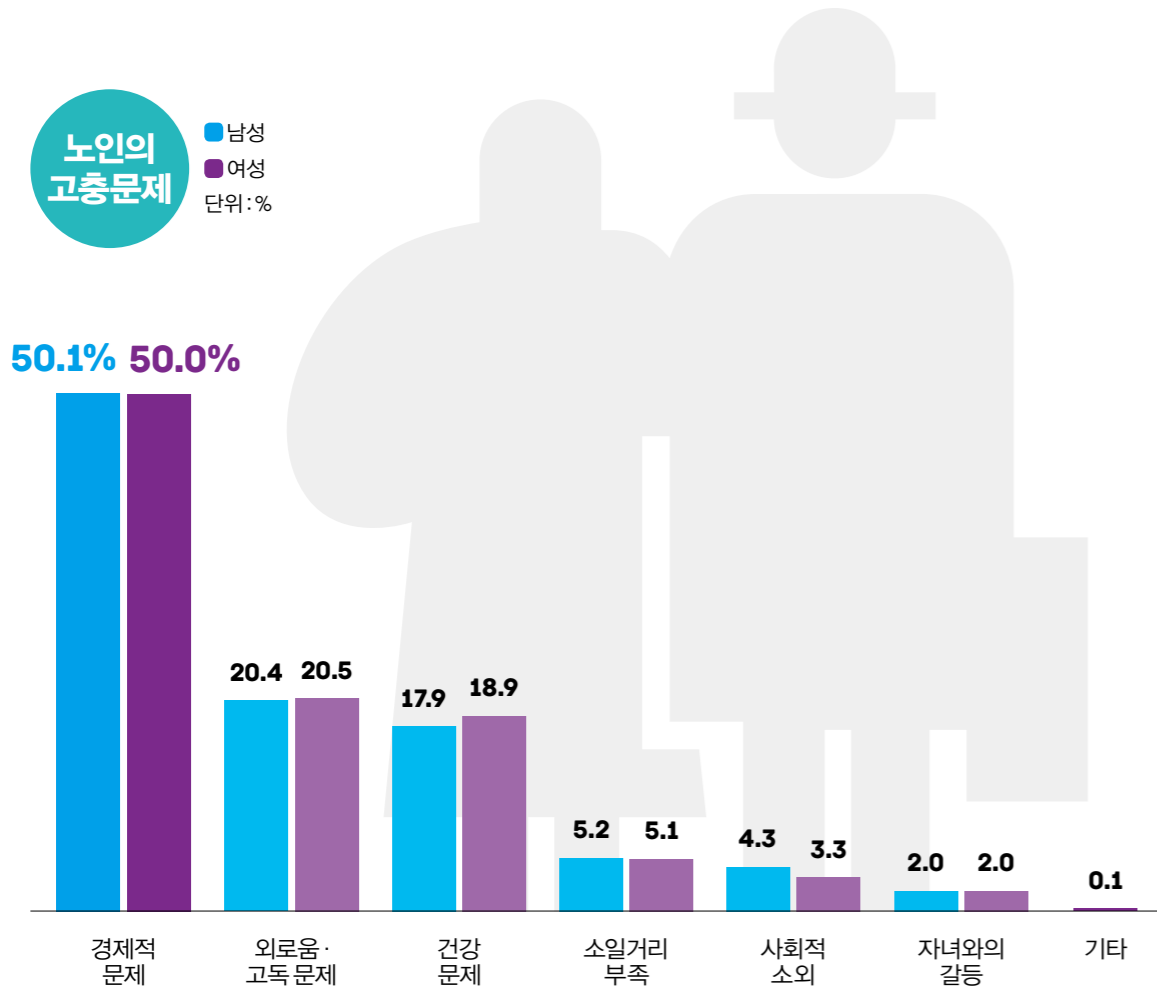
노인의 생활비 마련 방법 남성은 본인 및 배우자 마련이, 여성들은 자녀 또는 친척 도움이 가장 많아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2013)

대전시 65세 이상 남성노인의 64.5%는 생활비를 '본인 및 배우자'가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노인은 '자녀 또는 친척 도움'이 47%로 가장 많다. '정부 및 사회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 비율도 여성노인이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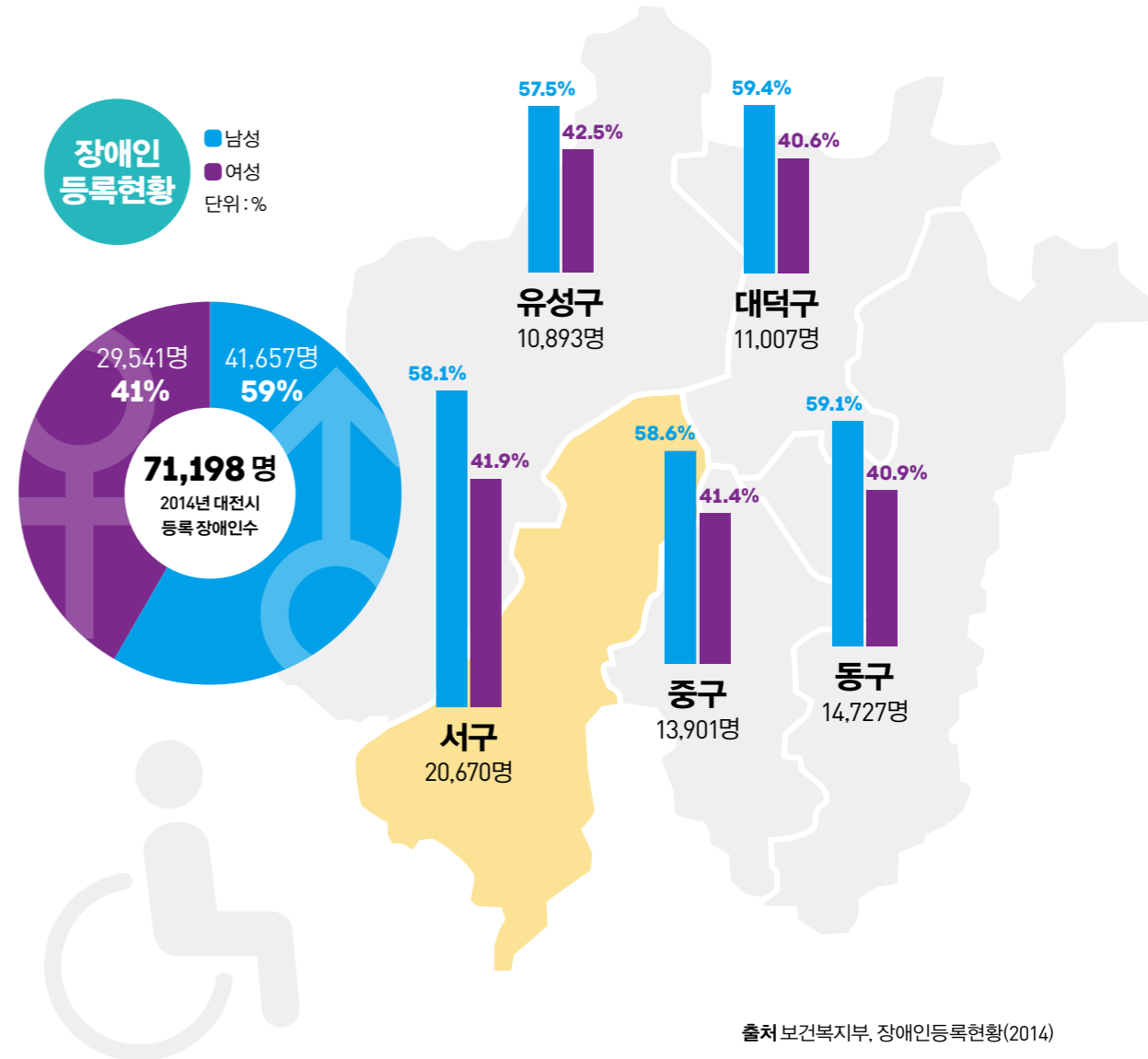
대전 시민은 경제적 문제를 노인의 주 고충문제로 인식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대전시민은 노인들의 고충으로 경제적 문제(남성 50.1%, 여성 50.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외로움 및 고독의 문제(남성 20.4%, 여성 20.6%), 건강문제(남성 17.9%, 여성 18.9%) 순으로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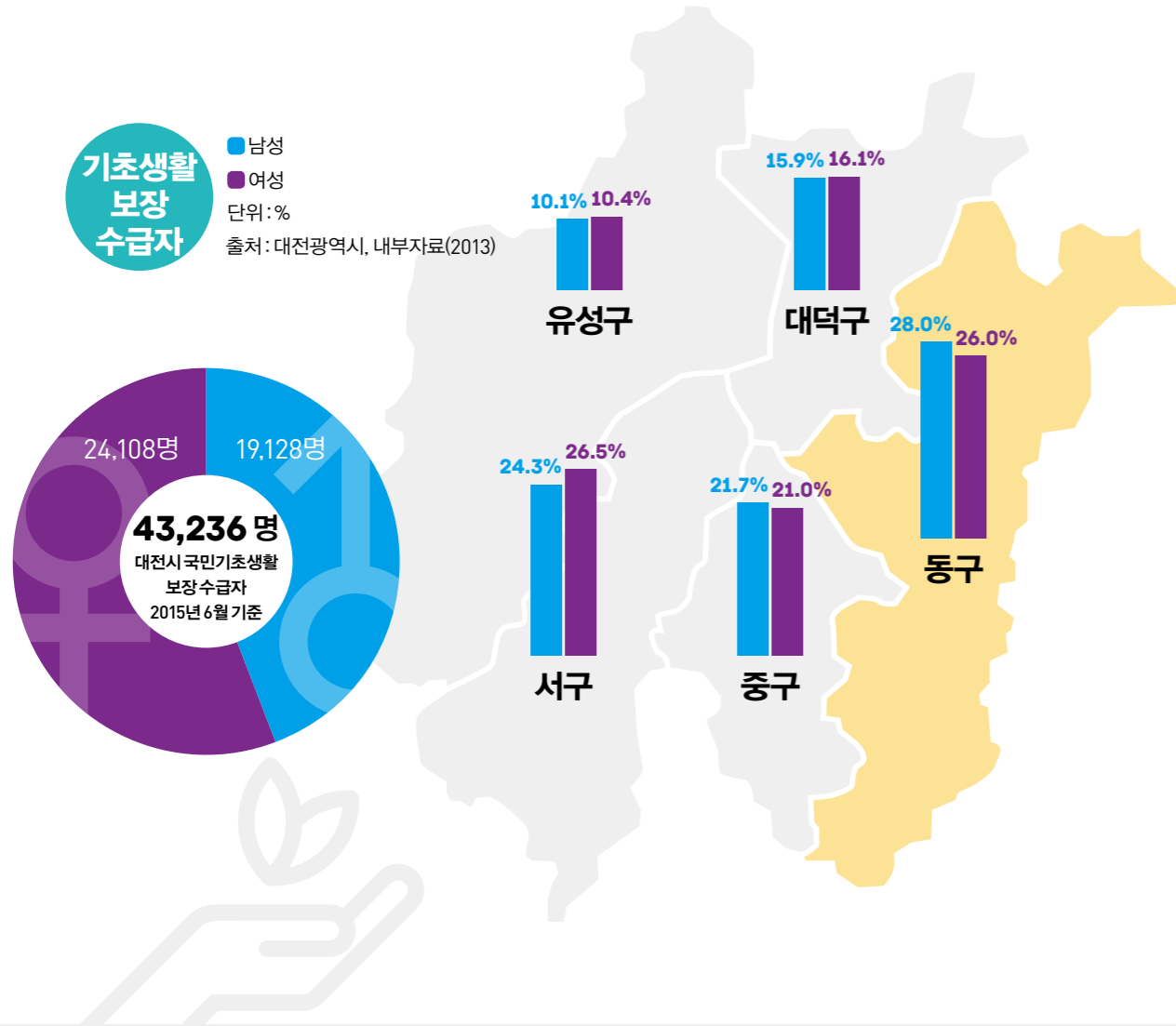
대전시 등록 장애인수는 71,198명으로 남성이 59%, 여성 41%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2014)

대전시 2014년 등록 장애인수는 남성 41,657명(59%), 여성 29,541명(41%)로 남성이 18%p 더 많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구가 20,670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 14,727명, 중구 13,901명, 대덕구 11,007명, 유성구 10,893명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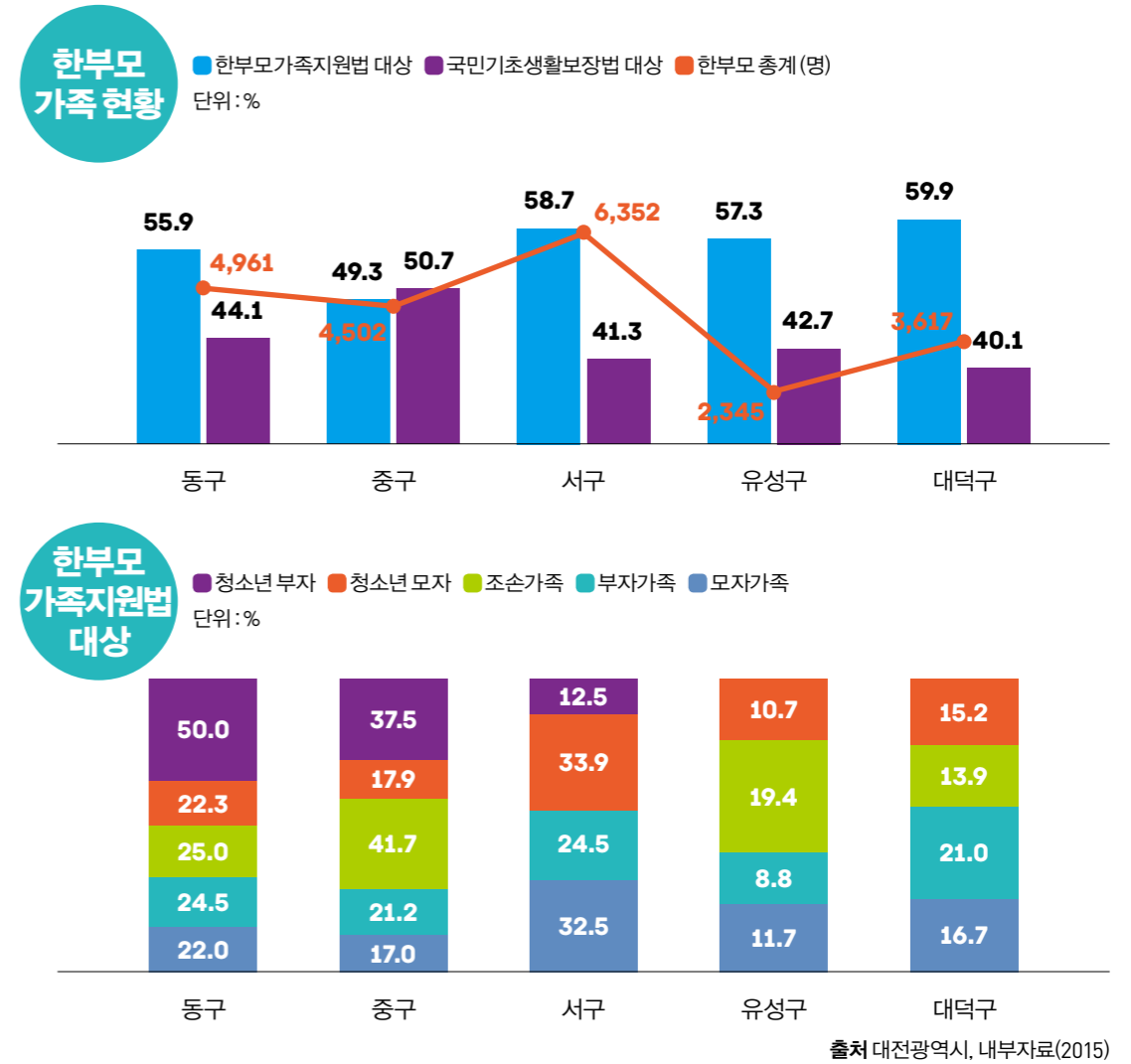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 56% 여성



2015년 6월 기준 대전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43,236명이다. 이중 여성이 24,108명, 남성 19,128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980명 더 많다. 총 수급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56%로 나타났다. 구별로 동구(11,627명)에 가장 많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서구 11,038명, 중구 9,195명, 대덕구 6,925명, 유성구 4,451명 순이다. 중구와 동구는 남성의 비율이 높고, 대덕구와 유성구, 서구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의미.

모/부자 가족은 서구에, 조손가족은 중구에 가장 많아



2015년 5월 기준 대전시 한부모가족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777명으로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이 9,546명,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12,231명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모자가족 9,097명, 부자가족 2,970명, 청소년모자가족 112명, 조손가족 36명, 청소년부자가족 16명 순이다. 모자가족은 서구에 32.5%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부자가족, 청소년 모자가족 역시 각각 서구에 24.5%, 33.9%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부자가족은 동구에 50% 거주하고 있으며, 조손가족은 중구에 41.7%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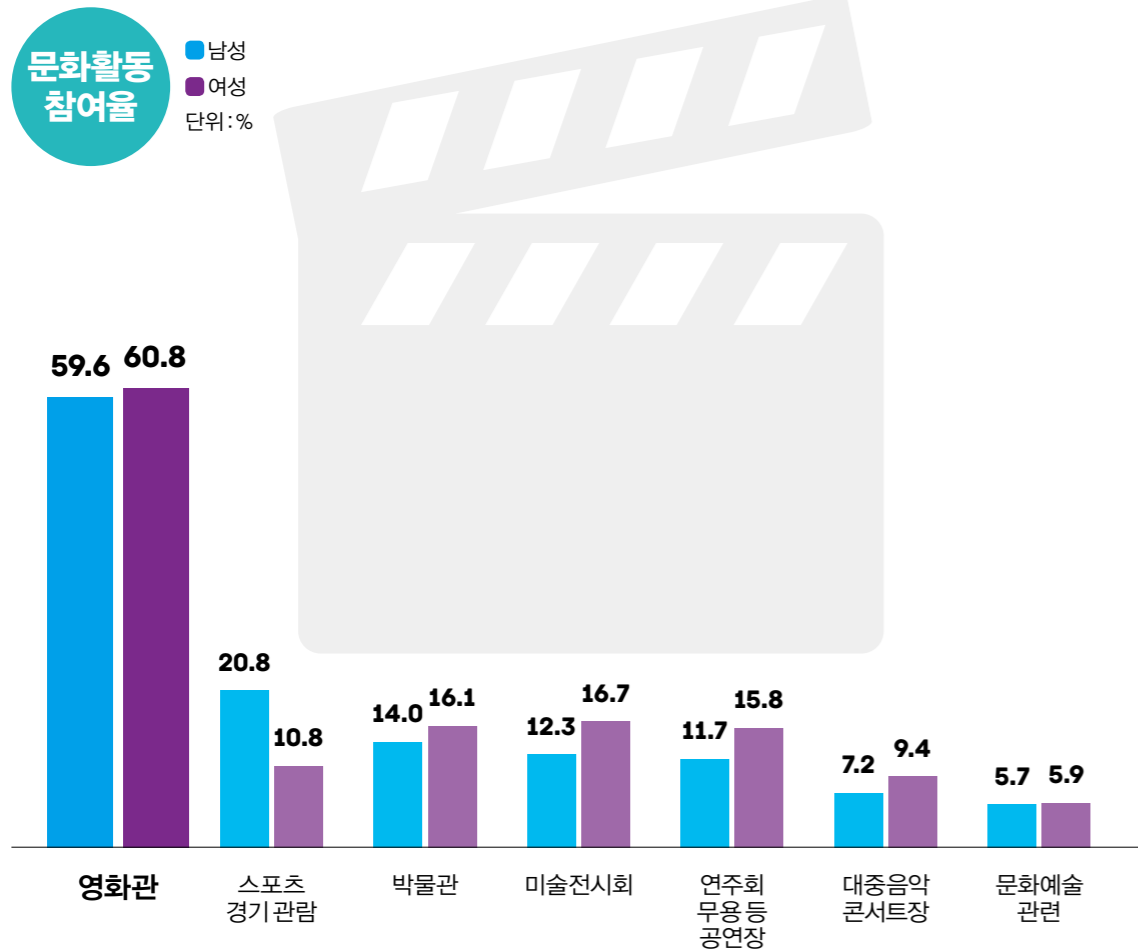
8. 사회참여 및 문화



8-1 사회참여문화

문화 활동 참여율	성별 문화 활동 참여율
지방선거투표율	성 및 연령별 투표율
대전시 여성 공무원	급별 여성공무원 수
계층적 귀속의식	성별 계층적 귀속의식 비율
사회적 소통	성별 사회적 소통 비율
사회적 포용(외국인)	성별 및 외국인인민자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비율
연대감(대전 시민 자부심)	성별 대전 시민 자부심 비율
사회적관계망	성별 사회적 관계망 비율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경험	성별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평균 점수
SNS이용율	성별 SNS 이용율
여가활동	성별 여가활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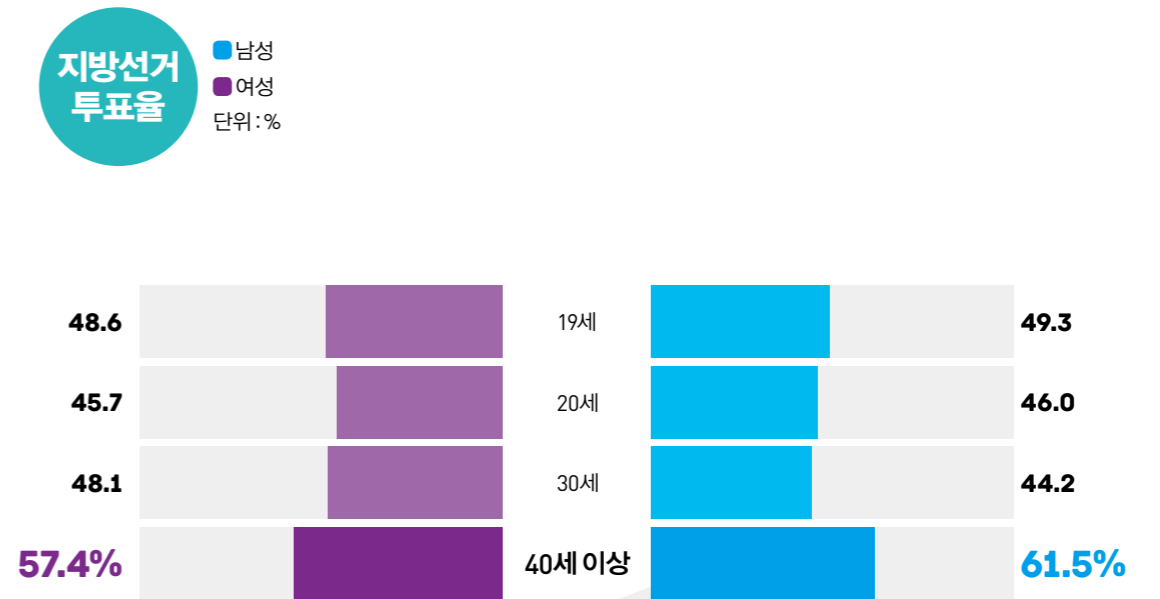
문화활동 참여는 영화관이 60.2%로 가장 높아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2014년 대전 시민의 문화활동 참여는 '영화관람'이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포츠 경기 관람'(15.6%), '박물관'(15.1%), '미술전시회, 미술관'(14.6%), '연주회, 무용, 연극 등 공연장'(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경기관람은 남성이 높고, '영화관', '박물관', '미술전시회', '연주회 무용 등 공연장', '대중음악 콘서트장'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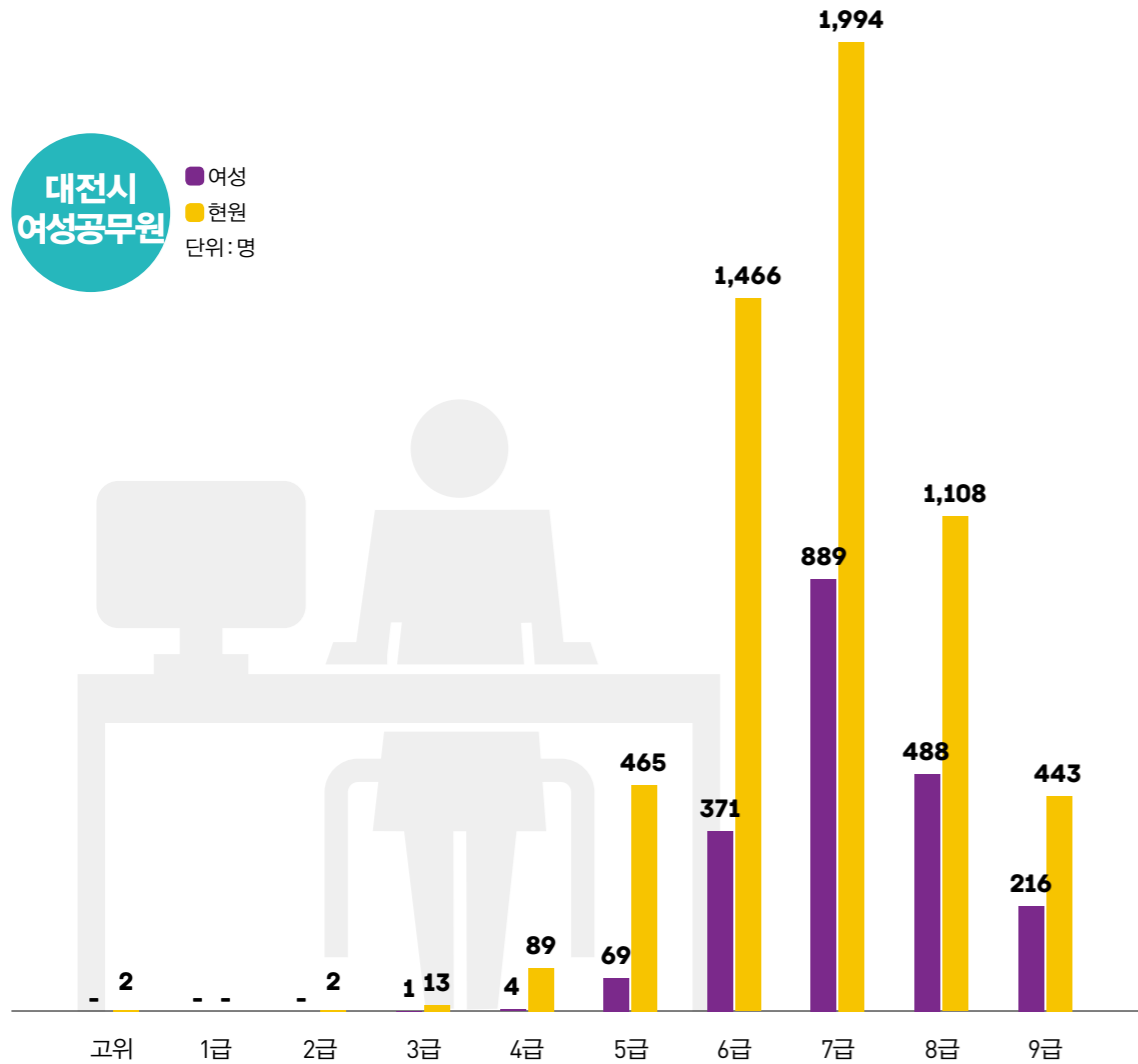
지방선거 투표율은 40대 이상이 가장 높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율 분석(2014)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의 성별, 연령대별 투표율은 남성(61.5%)과 여성(57.4%)에서 모두 40대 이상이 가장 높고, 남성은 30대가 44.2%로 가장 저조했으며, 여성은 20대가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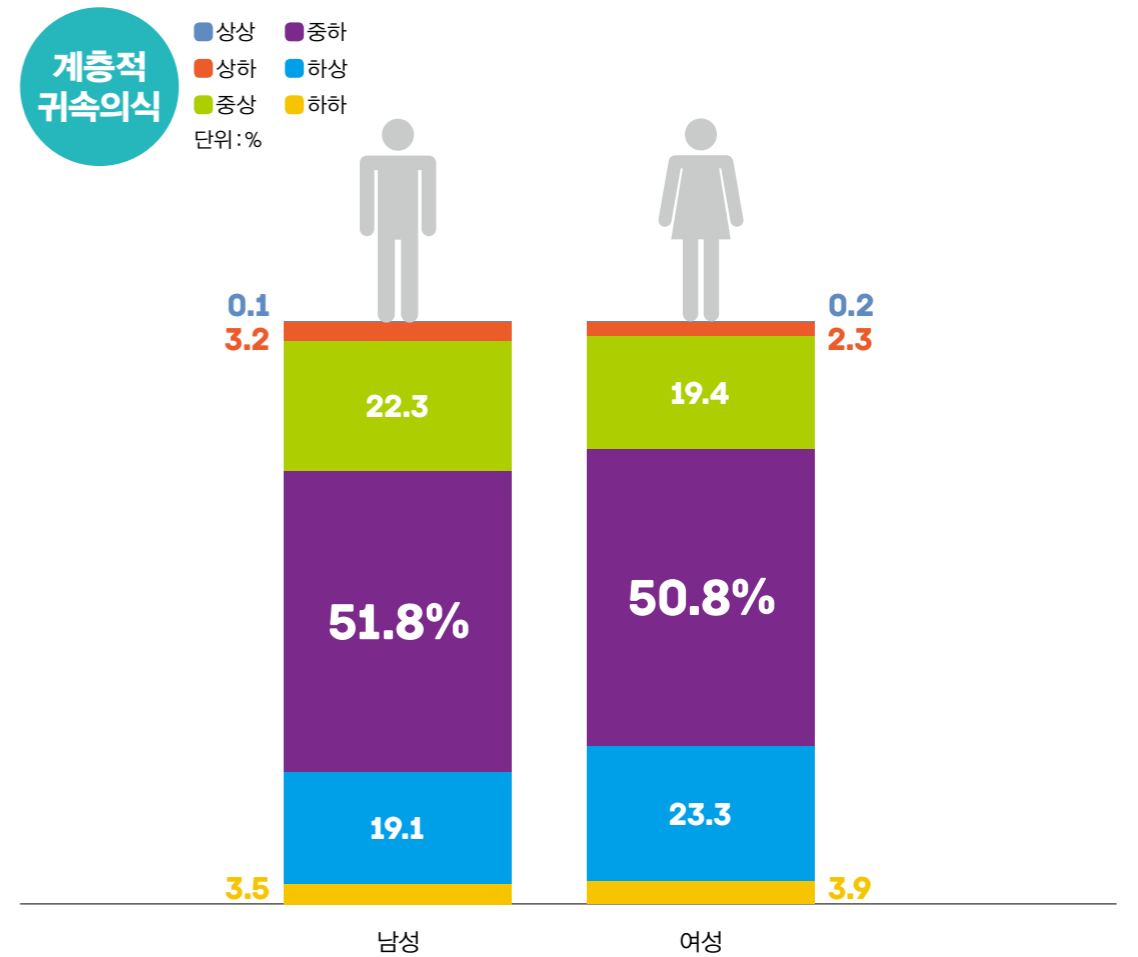
대전시 5급이상 여성공무원 13%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대전시 여성공무원 수는 2013년 기준 2,038명으로 전체 공무원 5,580명의 36.5%를 차지한다. 급별로 살펴보면 특히 9급에 절반 가까운 비율 48.8%가 여성이고, 7급의 비율도 44.6%가 여성이다. 그러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는 74명으로 5급 이상 현원의 13%에 해당한다.

대전 시민 중 절반이상 중하층으로 생각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3)

대전시민의 절반 이상인 51.3%는 자신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가 '중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하상'(21.3%), '중상'(20.8%), '하하'(3.7%)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중하'(51.8%), '중상'(22.3%), '하상'(19.1%)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중하'(50.8%), '하상'(23.3%), '중상'(19.4%) 순이다.

대전시민 5명 중 3명은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 평가

사회적 소통

■ 남성
■ 여성
단위: %

가족간의 소통



직장구성원간의 소통



이웃간의 소통



세대간의 소통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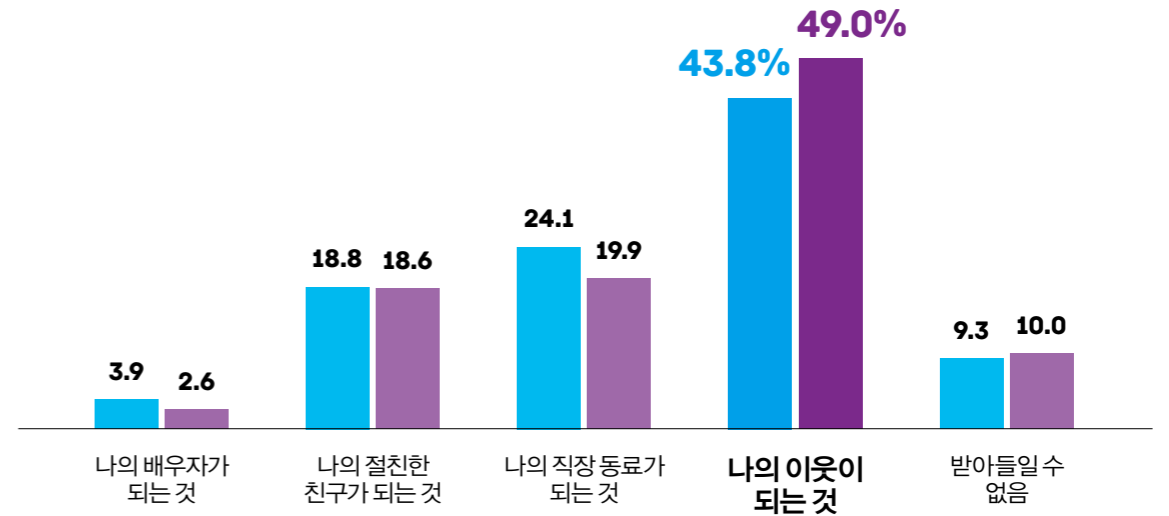
대전 시민의 2014년 가족간의 소통 정도를 평가한 결과, 5점 만점 평균 3.87점으로 '긍정'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간의 소통에 대해 '긍정'(62.6%)이 '부정'(6.3%)에 비해 높고, 남성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구성원 간 소통 정도는 5점 만점 평균 3.60점으로 '다소 긍정' 수준으로 나타나, 직장 구성원 간 소통에 대해 '긍정'이 32.8%이다. 성별로는 남성(39.0%)의 '긍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웃 간의 소통 정도를 평가한 결과, 5점 만점 평균 2.74점으로 '보통'수준이고, 남성은 '부정'(45.1%) 비율이 '긍정'(17.0%) 비율에 비해 높다. 세대 간 소통 정도 결과는 5점 만점 평균 3.09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세대 간 소통 정도에 대해 '긍정'이 29.1%이다.

외국인을 '나의 이웃'으로 포용하는 경우 많아

외국인 사회적 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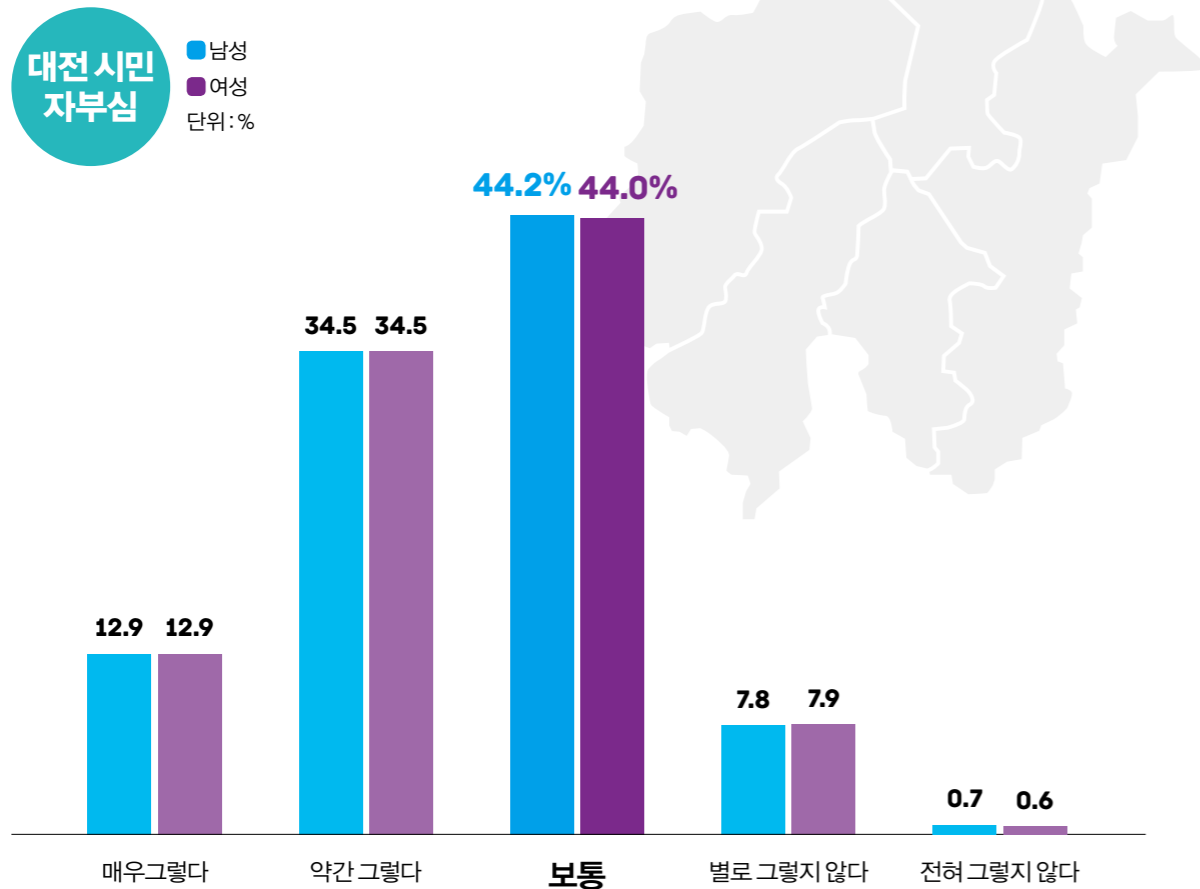
■ 남성
■ 여성
단위: %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대전 시민의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해 수용정도를 조사한 결과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의 포용 비율이 남성 43.8%, 여성 49%로 나타나 여성의 포용도가 5.2%p 더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이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남녀 각각 3.9%, 2.6%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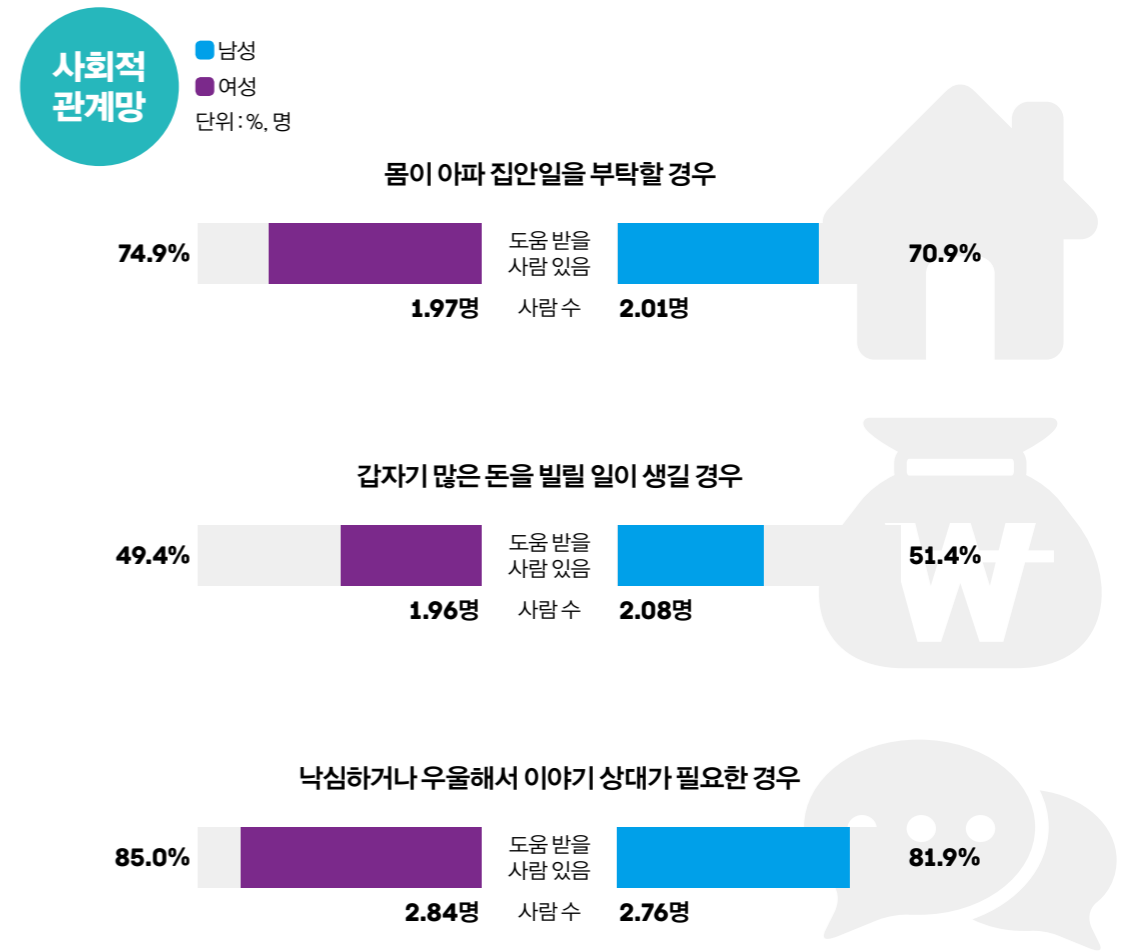
대전 시민이라는 자부심은 3.51점으로 다소 긍정 수준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대전 시민으로서 자부심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44.2% 여성 44%로 가장 많고, '약간 그렇다' 34.5%, '매우 그렇다' 12.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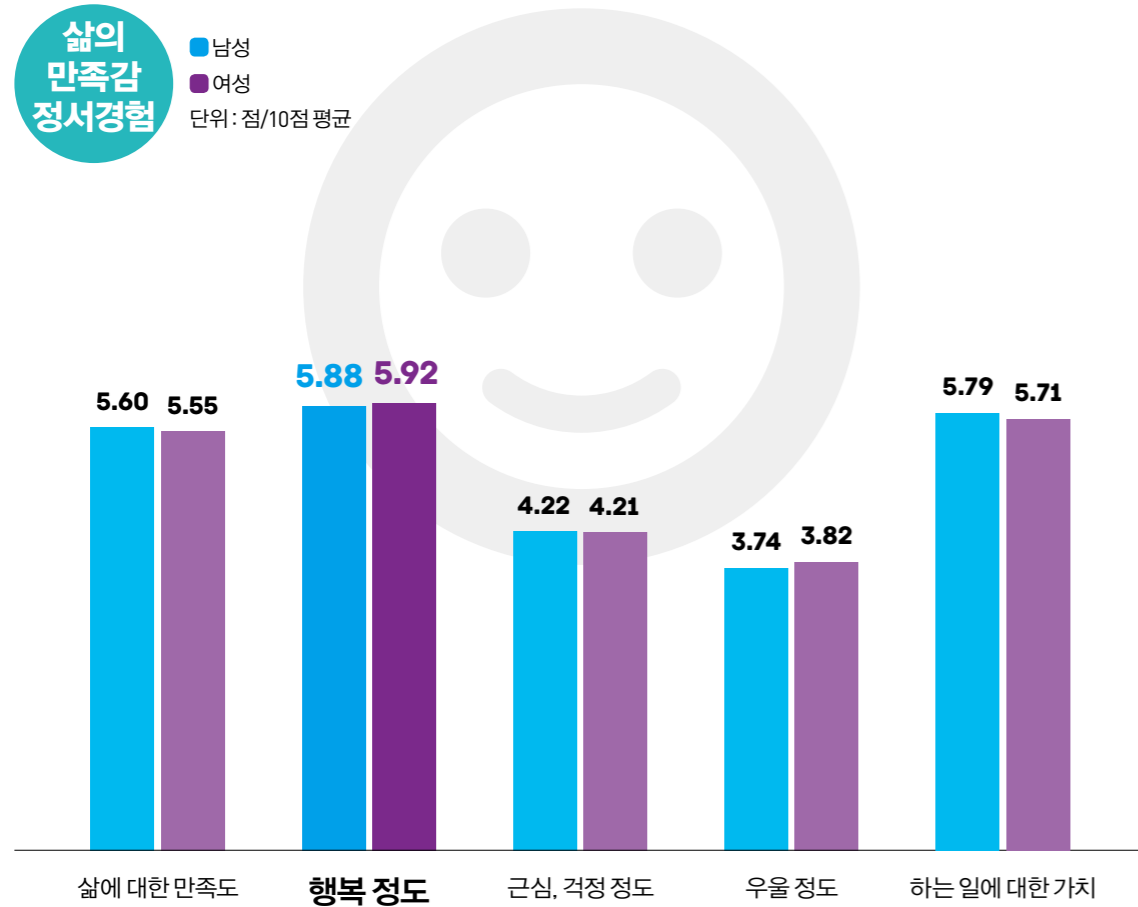
대전 시민 대부분 도움을 요청할 사람 있어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2014년 대전 시민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83.5%(남성 81.9%, 여성 85.0%)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73.0%(남성 70.9%, 여성 74.9%)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였으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50.4%(남성 51.4%, 여성 49.4%)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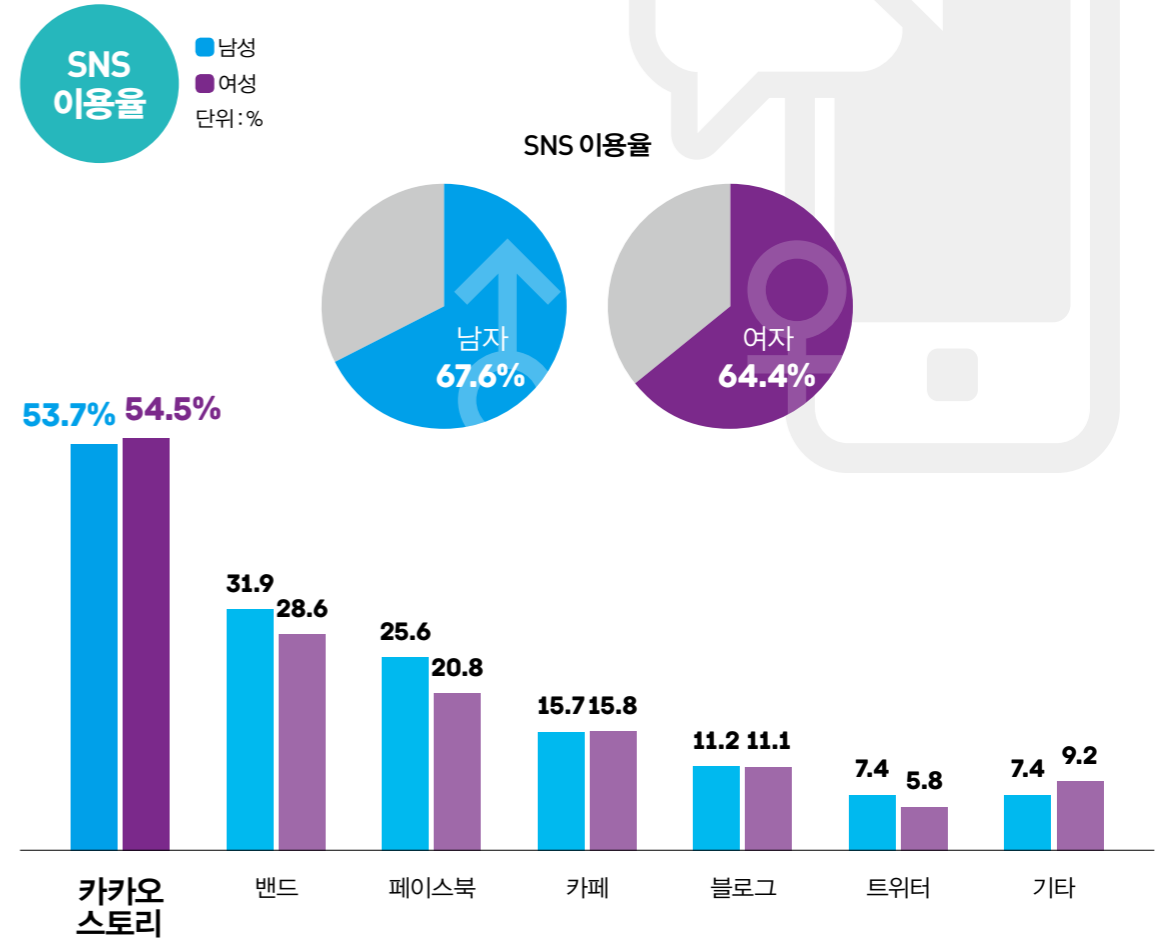
대전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 등 주관적 정서는 '보통'수준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대전 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은 10점 만점 평균 5.58점으로 '보통(남성 5.6점, 여성 5.55점)' 수준이며, 행복 정도는 평균 5.90점으로 '보통(남성 5.88점, 여성 5.92점)' 이다. 근심, 걱정 정도와 우울 정도는 '그렇지 않다' 수준이며, 하는 일에 대한 가치는 남성 5.79점으로 여성 5.71점보다 약간 높다.

대전 시민 3명 중 2명은 SNS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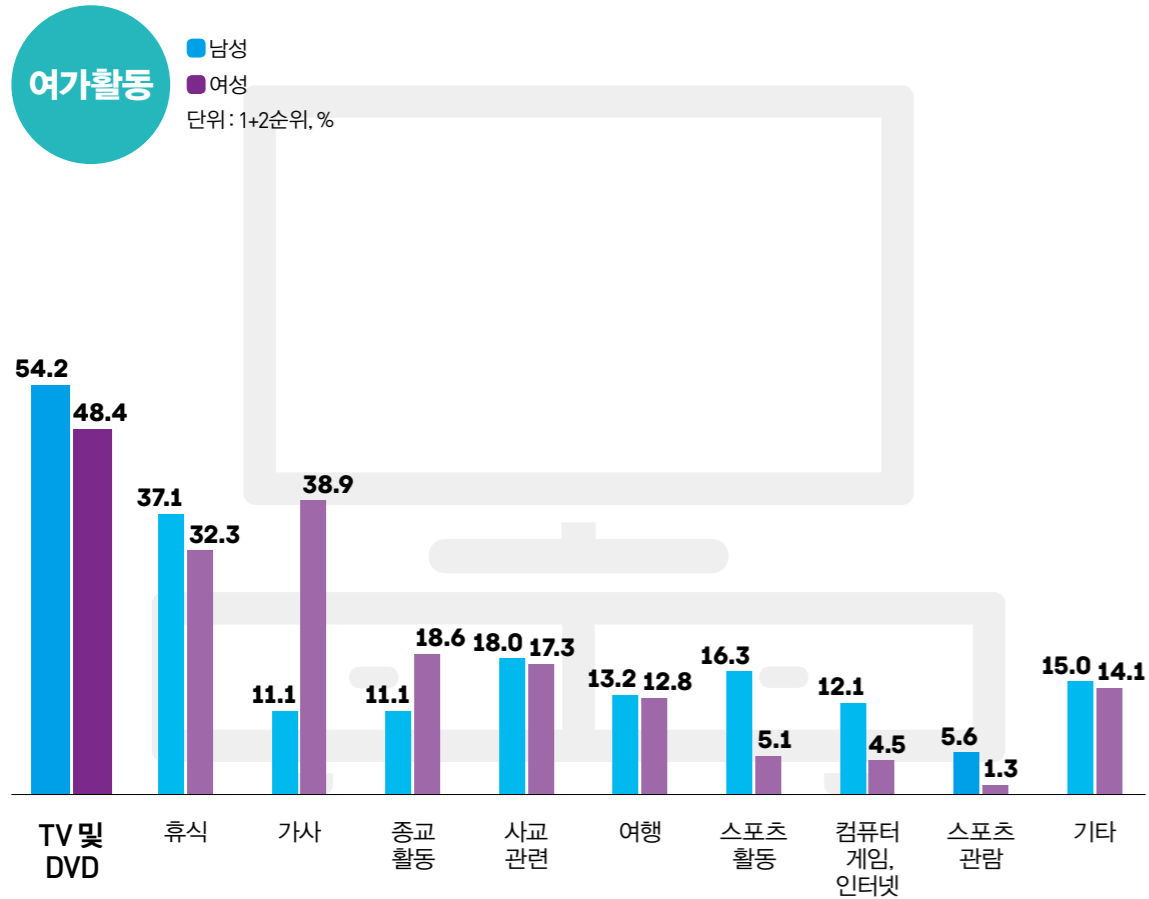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2014년 당시 SNS 이용률은 남성 67.6%, 여성 64.4%로 남성의 이용률이 좀 더 높다. 종류별로는 '카카오프로필'(남성 53.7%, 여성 54.5%), '밴드'(남성 31.9%, 여성 28.6%), '페이스북'(남성 25.6%, 여성 20.8%), '카페'(남성 15.7%, 여성 15.8%), '블로그'(남성 11.2%, 여성 11.1%), '트위터'(남성 7.4%, 여성 5.8%) 순이다.

✦ SNS(Social Network Service):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 인관관계를 강화하거나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폭넓게 형성하도록 해주는 서비스

대전 시민 여가활동은 TV 및 DVD 시청이 가장 높게 나타나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동에 대해 'TV 및 DVD 시청'이 51.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휴식'(34.6%), '가사'(25.7%), '사교 관련 활동'(17.6%)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TV 및 DVD 시청',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가사', '종교 활동' 등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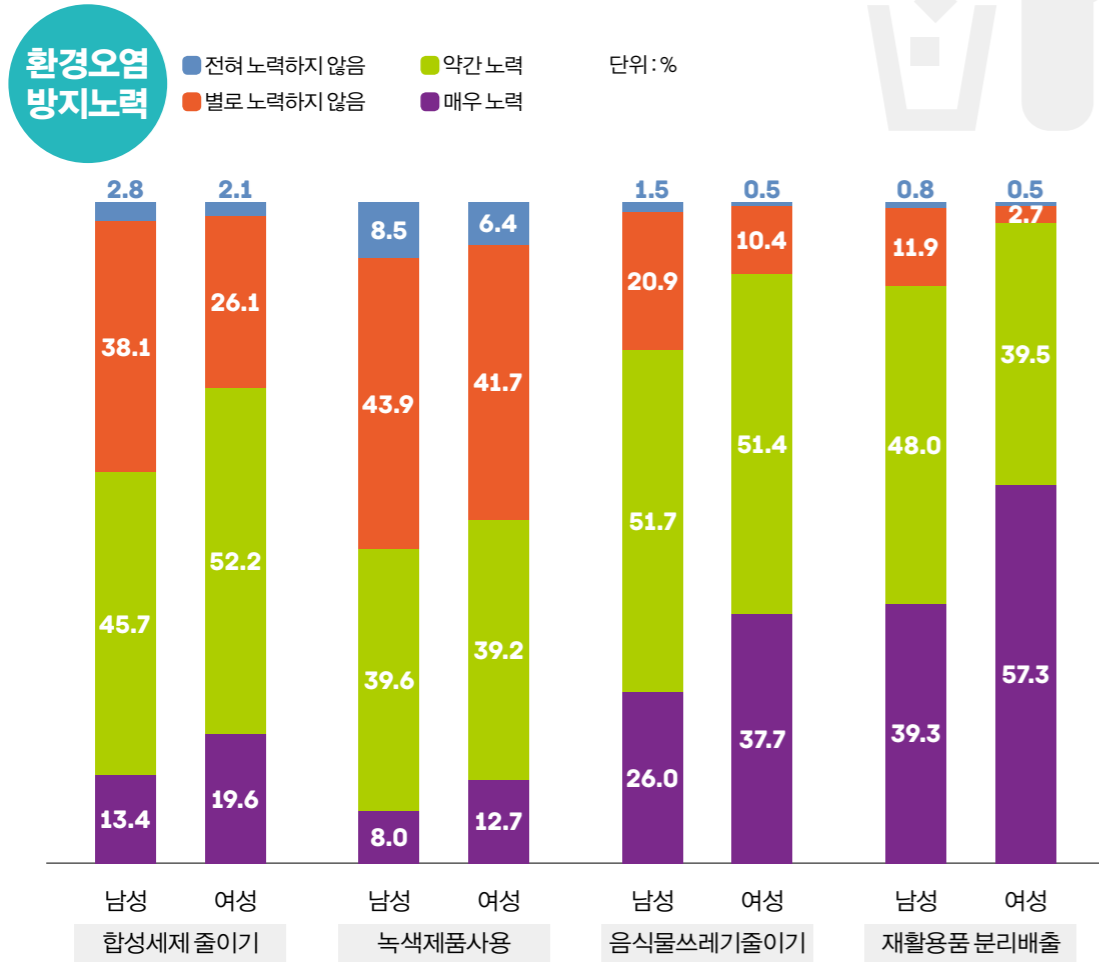
DAEJEON GENDERSENSITIVE STATISTICS

9. 환경 및 안전



9-1 환경	환경오염방지노력	성별 환경오염방지노력 비율
	대기환경체감도	성별 대기환경체감도 비율
	생활환경만족도	성별 생활환경만족도 비율
9-2 안전	이용교통 수단	성별 이용교통수단 비율
	교통사고 발생율	성별 교통사고 발생율
	성폭력피해자 신고 지원현황	성폭력 피해 신고, 지원 건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평균 점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성별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비율
	신종 전염병에 대한 안전 인식	성별 신종 전염병에 대한 안전 인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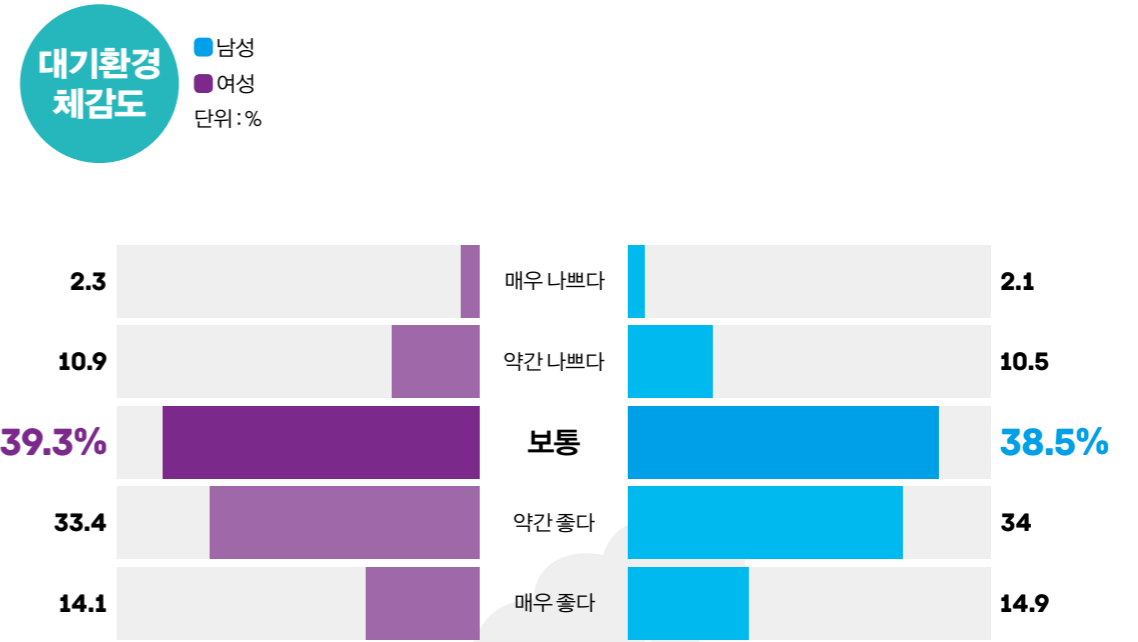
환경오염 방지노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가장 높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14)

대전 시민의 환경오염 방지노력을 살펴보면 합성세제 줄이기는 '약간 노력'이 남성 45.7%, 여성 5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녹색제품 사용은 '별로 노력하지 않음'이 남성 43.9%, 여성 41.7%,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약간노력'이 남성 51.7%, 여성 51.4%로 가장 높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여성이 '매우노력' 5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약간노력'이 48%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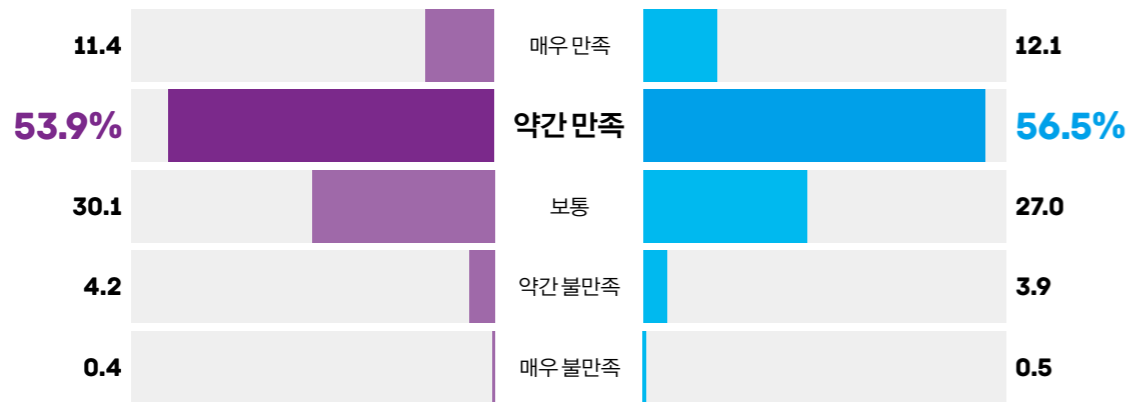
대기환경 체감도는 '다소 만족' 수준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2014년 대전시의 대기환경 체감도는 5점 만점 평균 3.47점으로 '다소 만족' 수준이며, '만족' (약간 좋다, 매우 좋다)비율은 48.2%이다. 대기환경이 '나쁘다'는 응답은 남성 12.6%, 여성 13.2%로 여성이 0.6%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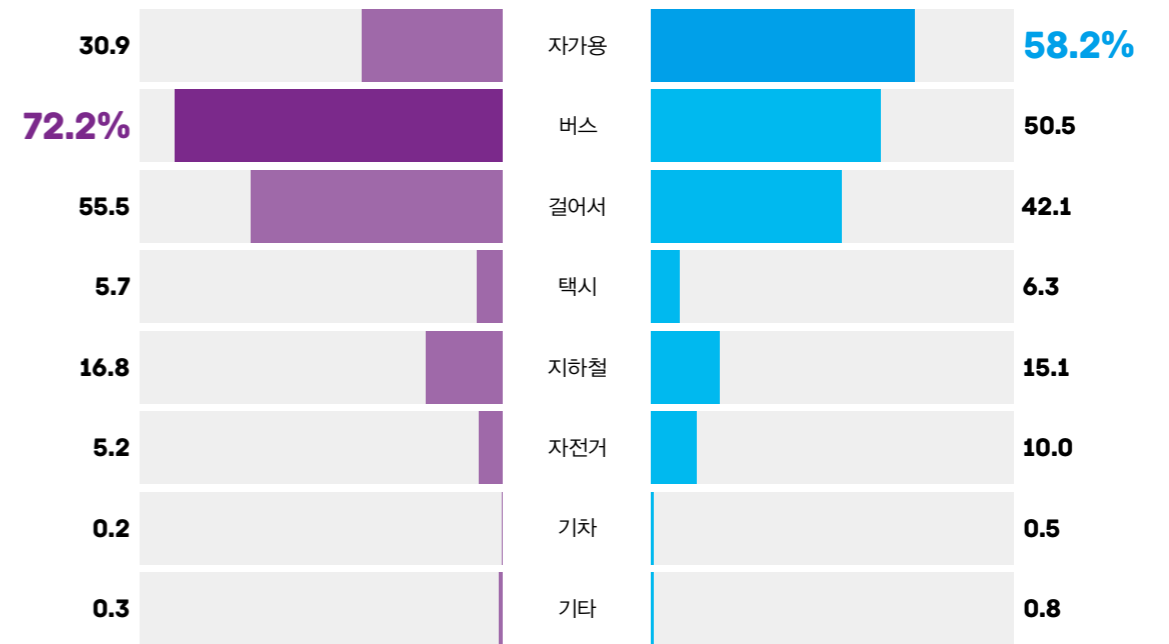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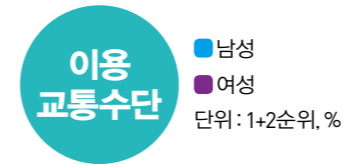
대전 시민 3명중 2명 생활환경에 만족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3)

생활환경에 대해 대전 시민 3명 중 2명(66.9%)이 '만족하는 반면, '불만족'은 4.5%이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65.4%)보다 남성(68.6%)이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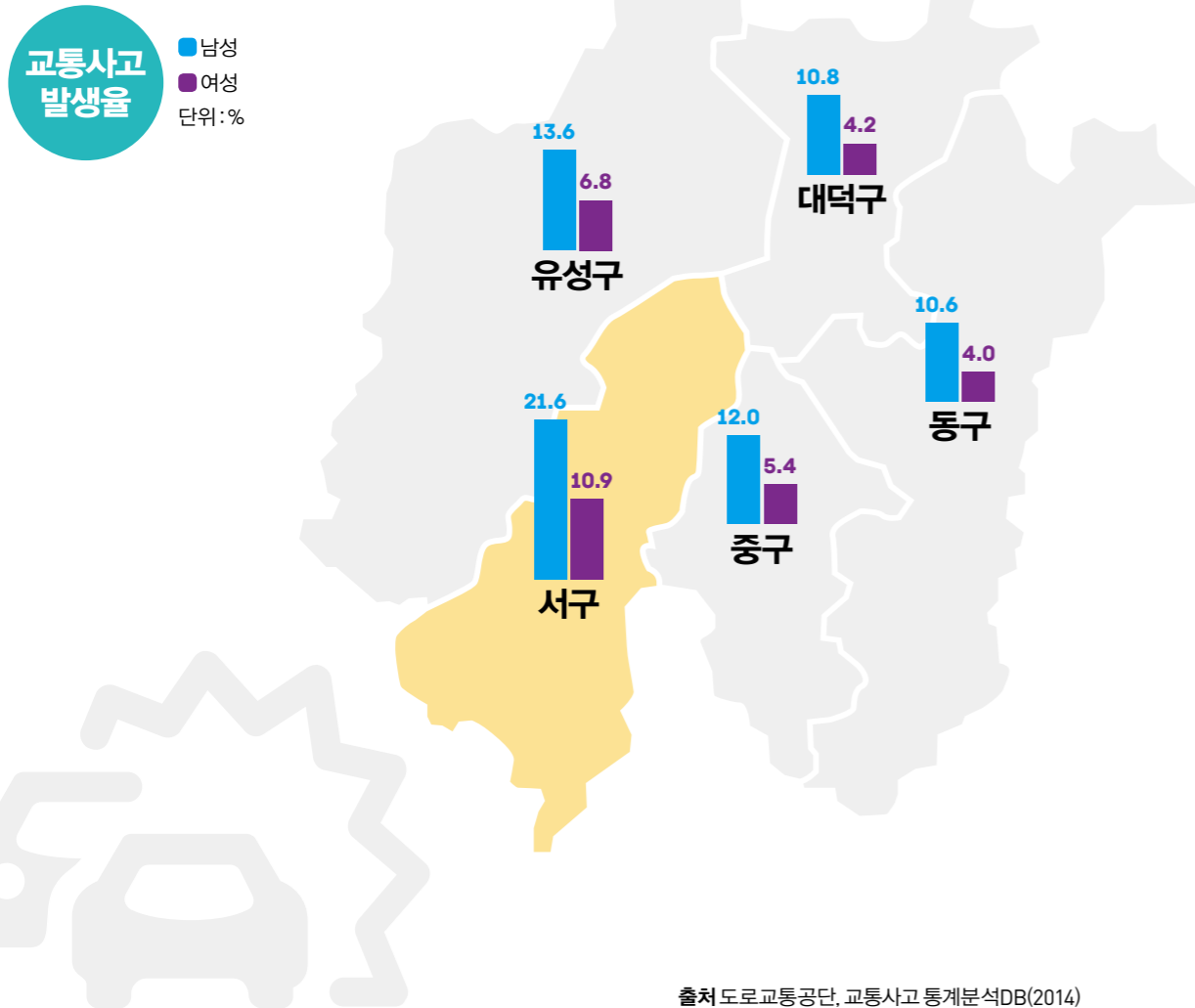
대전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남성은 자가용, 여성은 버스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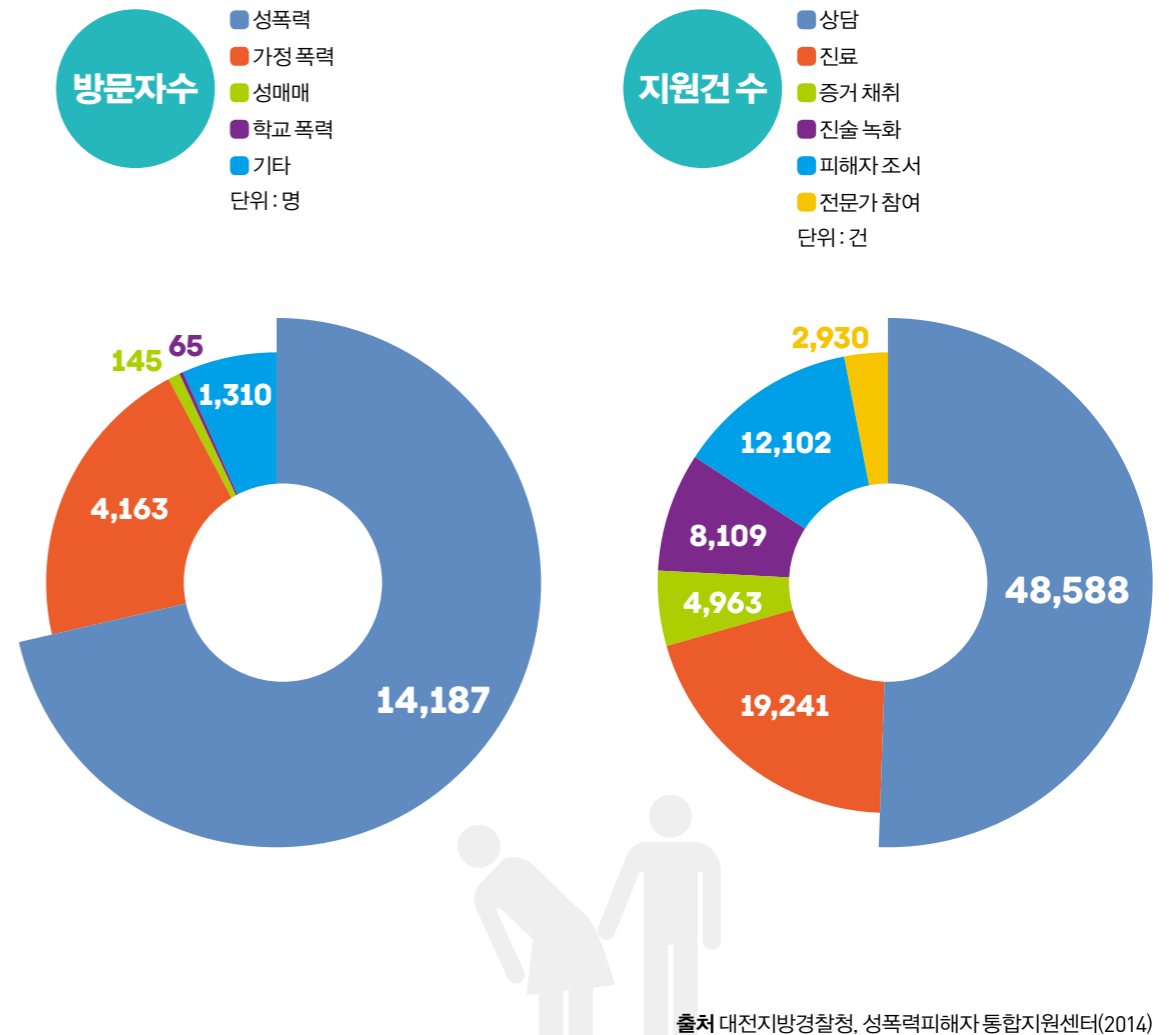
대전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61.7%), '자가용(44.1%), '걸어서(49.0%)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가용' 58.2%, '버스' 50.5%, '걸어서' 42.1%, '지하철' 15.1%순이고, 여성은 '버스가 72.2%로 가장 많고, '걸어서' 55.5%, '자가용' 30.9%, '지하철' 16.8% 순이다.

대전 교통사고 발생 서구가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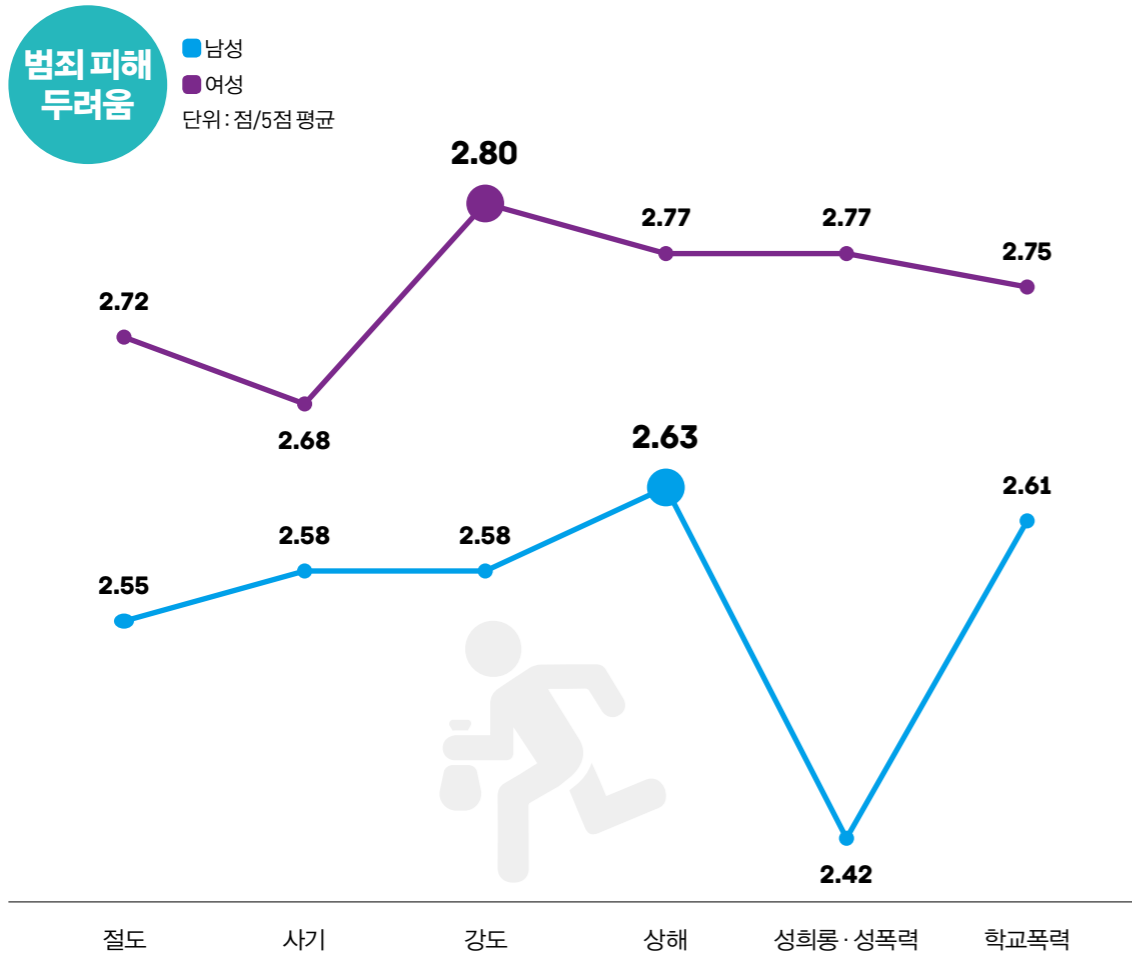
2014년 대전 교통사고는 총 32,626건(남성 22,403, 여성 10,223)이 발생했으며, 성별 비율은 남성이 68.7%, 여성 31.3%이다. 구별 교통사고 빈도는 서구 10,612, 유성구 6,656, 중구 5,704, 대덕구 4,887, 동구 4,767건 순이다. 남성은 서구 21.6%가 가장 큰 비율을 보이고 동구가 10.6%로 가장 낮다. 여성도 서구가 10.9%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 중구, 대덕구, 동구 순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교통사고 비율은 68.7%, 여성 31.3%로 남성이 여성의 두 배이다.

성폭력 피해 지원 상담이 가장 많아



대전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성폭력 14,187명, 가정폭력 4,163명, 성매매 145명, 학교폭력 65명 순으로 나타났고, 지원건수는 상담 48,588건, 진료 19,241건, 피해자 조서 12,102건, 진술녹화 8,109건, 증거채취 4,963건, 전문가 참여 2,930건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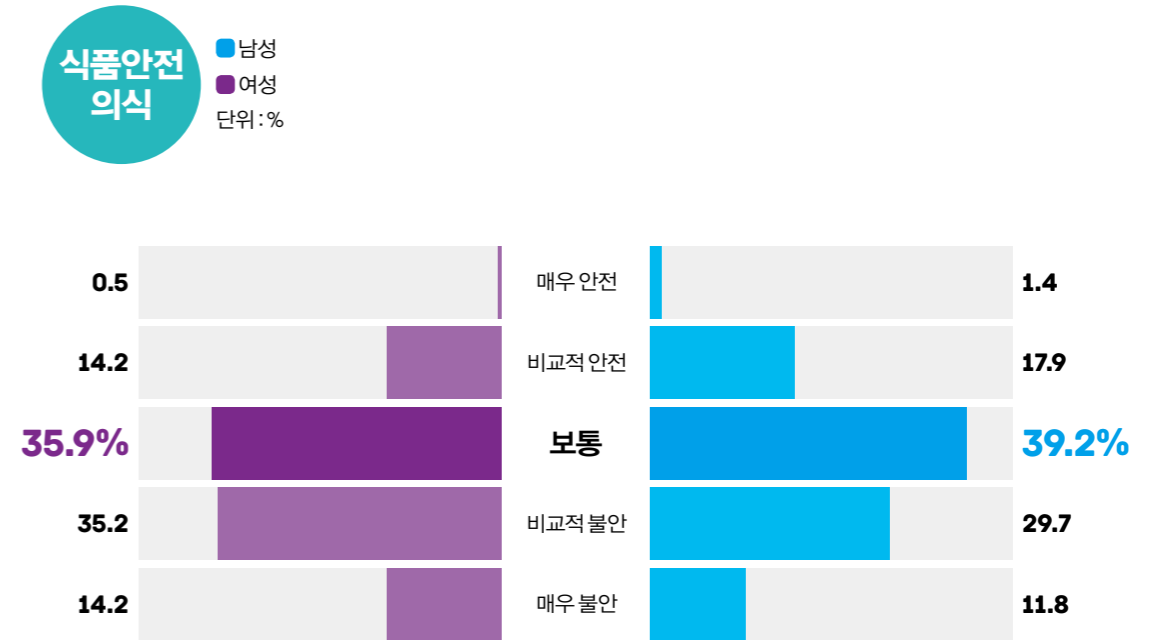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강도', '상해'가 가장 높아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2014년 대전시 시민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인식조사에서 평소 각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강도', '상해'가 각각 5점 만점 평균 2.70점으로 가장 높았다. 여성(2.75점)이 남성(2.56점) 보다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전 시민의 45.5%가 식품 안전에 대해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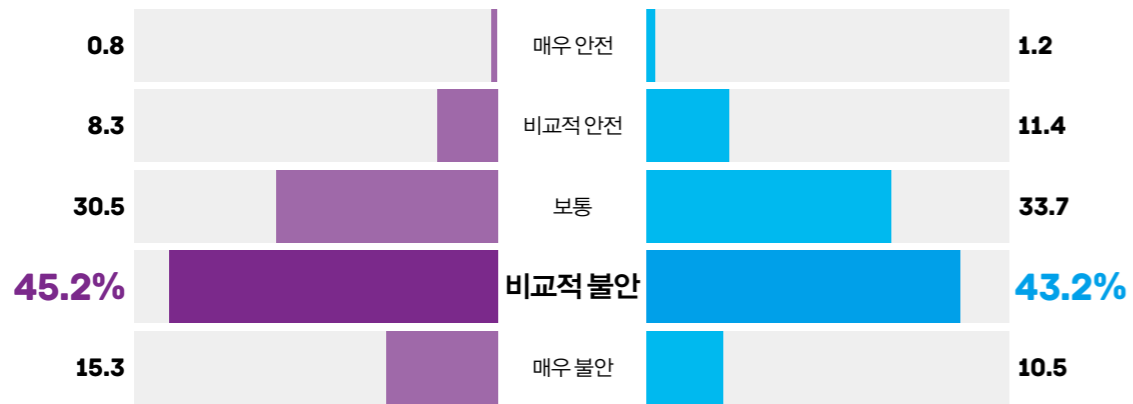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14)

대전 시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성별로 살펴보면 '불안(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49.4%로 남성 41.5%보다 7.9%p 더 높다.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4.6%p 높게 나타났다.

대전 시민 두 명 중 한명은 신종전염병 때문에 불안하다고 인식

신종
전염병
안전의식

■ 남성
■ 여성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14)

2014년 신종전염병에 대한 안전 인식도를 살펴본 결과 대전 시민의 57.2%가 '불안(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했고, 여성(60.5%)이 남성(53.7%) 보다 불안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DAEJEON
GENDERSENSITIVE
STATISTICS

2015 대전 성인지 통계

-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 주소** 223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 연락처** Tel. 042-530-3548 Fax. 042-530-3559
Web. www.djdi.re.kr/gfcenter/main.do
- 디자인·제작** 디자인스튜디오 203 대전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